발간 등록 번호

11-B260003-0001-25-08

2018 No.4

국제개발협력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국제개발협력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18년 제4호

KOICA

편집자의 글

오늘날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패러다임하에서는 기존의 소극적 평화 형태인 분쟁 후의 '평화유지(peacekeeping)'에서 벗어나 적극적 의미에서의 '평화구축(peacebuilding)', 더 나아가 '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를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동 논의에 대한 주요 주체로서 관련 연구 및 협력 이니셔티브를 구축하는 등 평화 지속화 논의의 구체화와 현장 적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만성적 분쟁 위기 해소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도적지원과 개발, 평화활동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작업 또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활동 주체들 간의 다각적이고 포용적인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호에서는 "**평화 지속화를 위한 포용적인 글로벌 파트너십(A Global, Inclusive Partnership towards Sustaining Peac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적극적 평화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논의 흐름 및 노력 현황을 살펴보고, 분쟁 지역 내 인도적 지원과 개발, 평화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평화지속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업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 있어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을 비롯한 양자공여기관들이 평화 지속화를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포용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번 호 이슈 부문은 총 3개의 원고로 구성되었다. 우선 '**The Challenge of SDG16.1- Can We Halve Global Violence?(David Steven, Rachel Locke, Soomin Lee)**'에서는 SDG16(정의로운 사회, 포용적 사회, 평화로운 사회 구축)에 관련된 논의를 SDGs 8개 목표 및 36개 세부 목표로 확대·적용함으로써 SDG16의 보다 포괄적인 이행을 강조하는 SDG16+ Pathfinder 이니셔티브 중에서 평화 관련 세부 목표인 SDG16.1(모든 형태의 폭력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한다. 특히 폭력적 분쟁뿐만 아니라 비폭력적 분쟁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예방이 SDG16.1 프레임워크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SDG16.1을 SDG16+ 차원에 확대·적용함으로써 평화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두 번째 원고인 '**UNDP DRC's Intervention for Sustaining Peace and Operationalisation of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in the DRC(UNDP DRC Office)**'에서는 주요한 분쟁취약국 중의 하나인 DR콩고 내에서의 분쟁 위기 해소를 통한 평화지속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 현황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DR콩고 국가 차원에서의 취약성 해소를 위한 뉴딜(New Deal) 이행 현황을 소개하고, UNDP를 비롯한 파트너 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한 triple nexus 차원에서 평화지속화를 어떻게 구축하고자 하는지를 함께 소개한다. 이를 통해 현재 다자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triple nexus를 통한 평화지속화 사업에 양자공여기관은 어떠한 참여를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지도 함께 소개한다.

세 번째 원고인 '**평화활동의 주변에서 지속적 평화의 중추로: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론을 중심으로(권구순)**'에서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평화의제가 평화구축을 비롯한 다면적 평화활동에 대한 평화의 지속화 논의로 확대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이러한 평화구축 및 지속적 평화의제에서 시민사회에게 요구되는 역할 및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평화구축 논의 이행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 현황과 과제가 무엇인지 소개한다.

또한 이번 섹터 부문에는 2개의 원고가 수록되었다. 첫 번째 원고인 '**SDGs 직업 역량 핵심 지표인 ICT 역량 제고를 위한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동향 및 개발협력 수요(서정희·양혜경)**'에서는 SDGs 내에서 핵심지표로 설정하여 강조하고 있는 '청소년과 성인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역량 강화'의 효과적인 달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ICT 교육 분야에서 국제적 벤치마킹 대상인 에스토니아와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이 개발도상국 내 청소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도 살펴본다.

두 번째 원고인 '**예산지원(Budget Support)의 최신 동향과 과제(고요한)**'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 유형 중의 하나인 예산지원 방식의 의미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동 예산지원 사업 방식이 얼마나 효과성을 갖는지에 대한 평가 방식 및 긍정적 효과 그리고 한계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번 4호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평화지속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KOICA가 양자공여기관으로서 어떠한 참여 전략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지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평화 이슈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 다른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KOICA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활동 주체와의 포용적인 파트너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제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개발 활동 자체뿐만 아니라 인도적지원 및 평화활동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 또한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호를 통해 평화지속화를 위한 논의적 흐름과 함께 실제 이행 사례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또 향후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8년 11월

KOICA ODA연구정보센터

본 원고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Ⅰ. 개발협력 이슈

1. The Challenge of SDG16.1 – Can We Halve Global Violence? ····· 3
David Steven (Associate Director,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Rachel Locke (Head of Research, SDG16.1,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Soomin Lee (Program Associate,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2. UNDP DRC's Interventions for Sustaining Peace and Operationalisation of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in the DRC ····· 23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UNDP DRC Office)

3. 평화활동의 주변에서 지속적 평화의 중추로
: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 49
권구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Ⅱ. 섹터포커스

1. SDGs 직업 역량 핵심지표인 ICT 역량 제고를 위한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동향 및 개발협력 수요 ····· 77
서정희(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양혜경(KOICA 사업품질성과관리팀 차장)

2. 예산지원(Budget Support)의 최신 동향과 과제 ····· 107
고요한(KOICA ODA연구정보센터 연구원)

Ⅲ. KOICA 개발협력자료 이용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도서관 ····· 127
2. KOICA ODA도서관 2018년도 학술DB 목록 ····· 128
3. KOICA 2018년 10월 ~ 2018년 11월 발간물 목록 ····· 130
4. KOICA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이용 ····· 131
5.『국제개발협력』원고 기고 방법 ····· 132
6.『국제개발협력』원고 집필 규정 ····· 133

I

개발협력 이슈

1. The Challenge of SDG16.1 – Can We Halve Global Violence?
David Steven (Associate Director,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Rachel Locke (Head of Research, SDG16.1,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Soomin Lee (Program Associate,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2. UNDP DRC's Interventions for Sustaining Peace and Operationalisation of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in the DRC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UNDP DRC Office)

3. 평화활동의 주변에서 지속적 평화의 중추로
: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권구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The Challenge of SDG16.1 – Can We Halve Global Violence?

David Steven (Associate Director,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Rachel Locke (Head of Research, SDG16.1,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Soomin Lee (Program Associate,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tents

I. From SDG16 to SDG16+

II. The Challenge of SDG16.1

III. SDG16.1 and the Prevention of Violent Conflict

IV. SDG16.1 and the Prevention of Non-Conflict Violence

V. Conclusion: Could We Halve Global Violence?

References

Abstract

SDG16+ includes 36 targets from eigh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SDGs) that aim to build more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While the SDG16+ targets apply to all countries, they draw attention to the needs of people, communities, and societies at greatest risk of being left behind due to violence, injustice, exclusion, and poor governance. SDG16.1 promises to significantly reduce all forms of violence everywhere. While the number of violent deaths will increase by 10% by 2030 on current trends, the evidence suggests that conflict and non-conflict violence can be successfully prevented. Urgent action is needed to reduce the risk of conflict and to focus prevention on violence hotspots in cities. Longer-term efforts will transform harmful gender norms and make societies safer for women,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live in. Those working on the prevention of different forms of violence should unite behind a common effort to implement SDG16.1.

Keywords: SDG16.1, SDG16+, Reduce Violence,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Ⅰ. From SDG16 to SDG16+

Through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orld's leaders made a commitment to fostering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which are free from fear and violence (UN, 201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SDGs) contain a series of ambitious targets for preventing violence in all its forms. They aim to promote the rule of law and provide justice for all, and to build transparent, effective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The agenda also pledges to tackle inequality and exclusion, corruption, illicit financial and arms flows, and other factors that give rise to violence and insecu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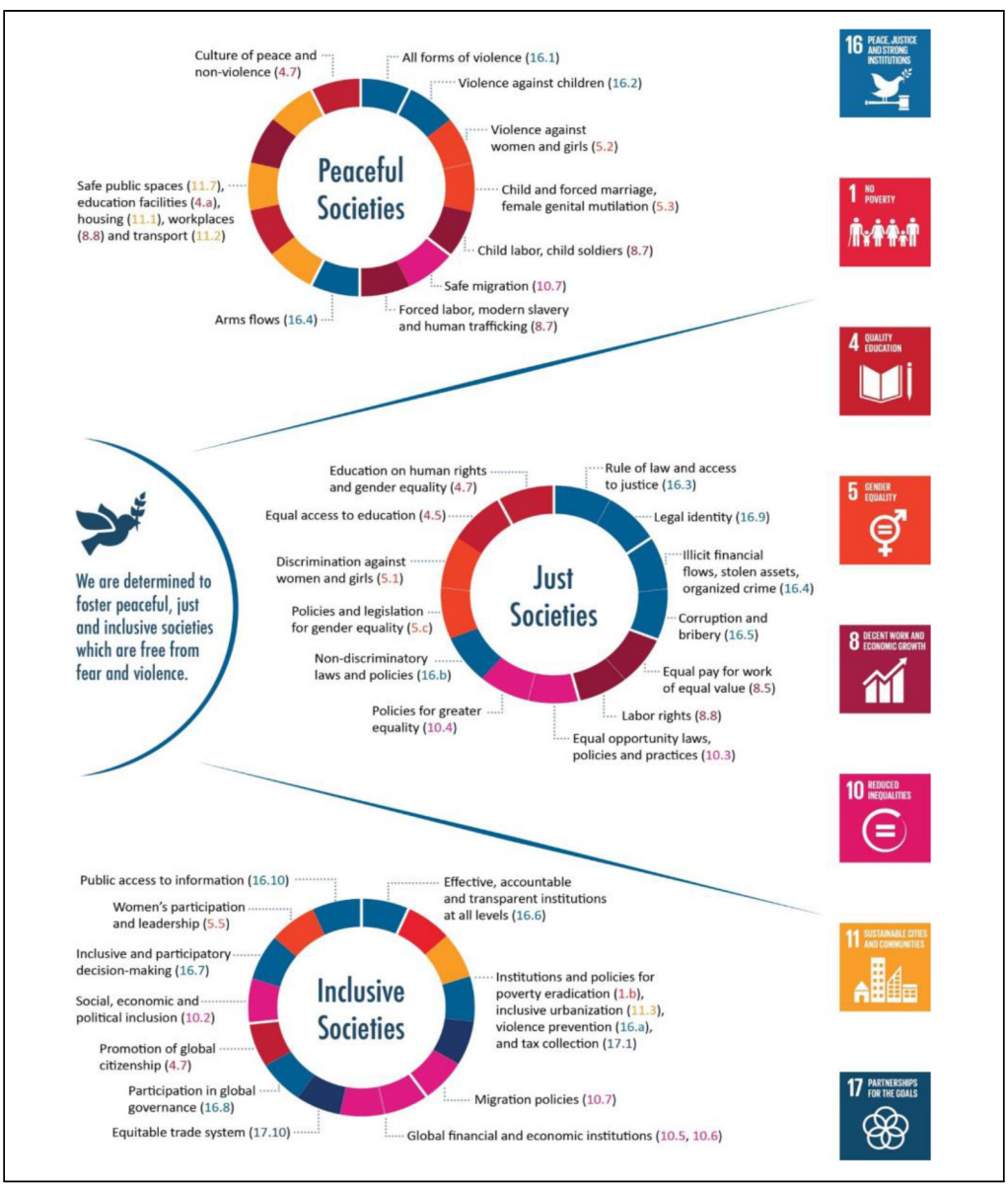
The SDG16 is the main goal for building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but the 2030 Agenda's negotiators placed related targets in other goals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unpublished). In all, 36 targets from eight SDGs directly measure an aspect of peace, justice, or inclusion. The SDG16+ (<Figure 1>) brings together targets for various forms of violence, with a commitment to promoting safe environments for people to live in and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It offers a perspective of a 'just society' that is based on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It brings together targets for governance with those for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clusion.

The SDG16+ targets underpin the delivery of all parts of the 2030 Agenda. But the relationship also runs the other way. Factors from other SDGs reduce risk and increase resilience in ways that contribute to peace, justice and inclusion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2017: 15). This is line with the 2030 Agenda's affirmation that "there can be no sustainable development without peace and no peace without sustainable development (UN, 2015)."

The need for peace is greatest in the countries facing the highest levels of violence. The 2030 Agenda recognizes the urgency of the challenges facing the most vulnerable countries, including countries affected by conflict and post-conflict

countries. These countries faced the highest obstacles to meet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MDGs; OECD, 2015). On current trends, between 43 and 60% of the extreme poor will live in countries affected by conflict, violence, and fragility in 2030 (World Bank, 2018).

〈Figure 1〉 SDG16+ Targets



Source: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2017: 4)

While universal in scope, the SDG16+ targets draw attention to the needs of people, communities, and societies that face the greatest risk of being left behind due to violence, injustice, exclusion, and poor governance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2017: 12). This provides a link to the Sustaining Peace resolutions, adopted by both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Security Council, which underline that "development, peace and security, and human rights are interlinked and mutually reinforcing (UN, 2018)."

Through the Sustaining Peace resolutions, member states have called for action to prevent the "outbreak, escalation, continuation and recurrence of conflict (UN, 2018)," with the aim of helping a society move towards recovery,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he SDG16+ targets provide a guide for this action. Targeted and inclusive prevention strategies are needed where levels of violence are highest, reducing risks of conflict and providing foundations for more resili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 universality of the SDG16+ targets must not be forgotten. All societies experience violence, injustice, and exclusion, with the burden falling disproportionately on disadvantaged people, groups, and communities. Democracy is under threat in many parts of the world (V-Dem Institute, 2018). Trust in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is at an all-time low in many parts of the world (Open Government Partnership, 2018). All countries must strive to build more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Through collective action, they must work together to reduce risks to peace that span national borders.

II. The Challenge of SDG16.1

The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2017) – a multi-stakeholder but member state-led partnership – has developed a roadmap for implementation of these targets (<Box 1>). This was published during the high-level week of the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7.

In the roadmap, the Pathfinders underline the importance of SDG16.1, which makes a commitment to "significantly reduce all forms of violence and related death rates everywhere." SDG16.1 is backed up by target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and for tackling specific forms of violence and abuses such as modern slavery or child marriage.

〈Box 1〉 The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The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brings together over 40 member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lobal partnerships and other parts to accelerate delivery the SDG16+ targets.

The Roadmap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identifies strategies, actions, and enabl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16+. The transformative strategies cover the prevention of all forms of violence, institutional renewal to underpi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ction to increas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clusion.

As an 'action platform', the Pathfinders are working to suppor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pathfinders as they make and implement commitments on SDG16+. The Pathfinders hosts a ministerial Task Force on Justice. It is developing new strategies for tackling inequality and exclusion, and is exploring the creation of an agenda for action on SDG16.1.

Source: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2017)

Conflict and non-conflict violence are a pervasive part of the lives of the many of the world's citizens. More than half a million people are killed violently each year and many more suffer physical injuries (McEvoy and Hideg, 2017). Beyond the direct consequences of violence lie a "wide spectrum of negative behavioral, cognitive, mental health,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problems, chronic diseases and social effects that arise from exposure to violence (WHO, 2014)."

On current trends, SDG16.1 will not be met. According to a business-as-usual scenario, violent deaths will increase by nearly 10% from current levels, reaching 610,000 deaths in 2030 (McEvoy and Hideg, 2017). Under this scenario, the number of conflict and non-conflict deaths would grow, although the homicide rate would decline slightly. A more negative scenario is also possible, if conflict deaths continue to rise and homicide rates regress towards the worst performers in each region. Under this scenario, violent deaths would grow to 819,000 in 2030, an increase of 46%.

Under the business-as-usual scenario (and even more so under the negative scenario), high levels of violence and insecurity threaten the achievement of all 17 SDGs. But this path is not inevitable. Recent years have seen a substantial investment in understanding how to prevent violence, with an expert consensus that rapid reductions can often be achieved with sufficient commitment and resources (Bellis, Hardcastle, Hughes, Wood, and Nurse, 2017).

There are clear signs of a shift to prevention. The Secretary-General has called for prevention to permeate everything the United Nations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UN, 2017) does. The UN and World Bank (2018) have united behind "Pathways for Peace," a shared framework for the prevention of violent conflic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found governments are beginning to invest in the prevention of interpersonal violence (although "not on a scale that matches the burden") (UN and World Bank, 2018).

New partnerships have recently been launched, including the 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the EU-UN Spotlight Initiative to eliminate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Alliance 8.7 (focusing on modern slavery and child labor). In Africa, Agenda 2063 aims to "silence the guns by 2020", while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The African Union Commission, 2015). Latin America's Instinto de Vida campaign has set the challenge of halving lethal violence in ten years[1].

1) Igarapé Institute, "Instinto de Vida," Igarapé Institute's website. available at https://igarape.org.br/en/issues/citizen-security/instinto-de-vida/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SDG16.1 has the potential to unite these disparate efforts behind a common mission,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significant and measurable decreases in violence by 2030. Linked to a broader effort to provide justice for all and promote inclusion, this will underpin progress towards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in all countries, with greatest benefits for the people, communities, and countries at greatest risk of being left behind.

Ⅲ. SDG16.1 and the Prevention of Violent Conflict

Covering all forms of violence everywhere, SDG16.1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conflict and non-conflict violence.

Violent conflict directly accounts for around 18% of violent deaths (McEvoy and Hideg, 2017). The indirect impacts are much greater. In Africa, armed conflict has led to a substantial and long-lasting increase in infant mortality. Between three and four young children are estimated to have lost their lives for every direct death from conflict (Wagner, Heft-Neal, Bhutta, Black, Burke, and Bendavid, 2018: 857-865). Indirect deaths result from the collapse of basic services in the short-term and from a longer-lasting "destructiv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and infrastructure (including health facilities), on social cohesion, and on psychological health and well-being (Geneva Declaration on Armed Violence and Development, 2008)." Today over 68.5 billion people are displaced from their homes, the majority due to violence and conflict[2].

Recent years have seen "a surge and expansion" of violent conflict, with more countries experiencing conflict than at any time in the past 30 years (UN and World Bank, 2018: 11). According to "Pathways for Peace," this growth is driven by three factors: the wave of violence that followed the Arab Spring, the spread of violent extremism and the growth of non-state conflict actors, and competition for power in African countries that are undergoing rapid demographic, social, economic, and increasingly environmental change.

Wars are not isolated from other forms of violence. Conflict, violent extremism, and criminal violence are interlinked and reinforce each other (UN and World Bank, 2018). Human rights abuses act as an early-warning signal for violent conflict, increase during conflict, and create further conflict risks (World Bank, 2011). Conflict increases women's exposure to other forms of violence (OECD, 2017), while gender-based violence is another early-warning signal (OSCE/ODIHR, 2009). Children face

2) UNHCR,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7," UNHCR, the UN Refugee Agency website, available at http://www.unhcr.org/globaltrends 2017/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large-scale abductions, recruitment into armed groups, sexual violence, and other forms of abuse (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2018). Individual exposure to violence has lifelong effects, including a greater risk of repeat victimization and of becoming a perpetrator of violence (Know Violence in Childhood, 2017). For societies, conflict "paves the way for higher tolerance of interpersonal violence, increased weapons and drug trade, and political corruption (OECD, 2016)."

Despite these adverse trends, the Pathways report argues that prevention reduces the risks of conflict and is cost effective. It identifies the need for an increased focus on prevention along a continuum that runs from environments where risks are emerging or where they have reached critical levels, to contexts of open violence or where violence has halted and avoiding recurrence is a priority (UN and World Bank, 2018: 99-100). At each of these stages:

Prevention is a process of building systems where actors are more likely to choose peaceful pathways, by taking advantage of favorable structural factors or mitigating the impacts of unfavorable ones, building incentive structures that encourage peace, and containing violence when it does occur. (UN and World Bank, 2018: 100)

The Pathways framework is aligned with the SDG16+ targets. A reduction in acute levels of violence provides an opening for societies to develop more sustainably. Justice systems must be equipped to manage conflicts without violence in arenas such as land, natural resources, and service delivery. Strengthened institutions are needed to mediate imbalances of power and rebuild trust within a society. Mor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on can help respond to long-standing patterns of exclusion, reducing grievances and rebuilding a community's stake in a peaceful, shared future.

Ⅳ. SDG16.1 and the Prevention of Non-Conflict Violence

The risk of non-conflict violence is unevenly distributed. Fewer than half of the world's 20 most violent countries are affected by conflict, reflecting extremely high levels of non-conflict violence, especially in urban centers (Small Arms Survey, 2016). High-income countries have seen much faster declines in their murder rates than those with middle and low incomes (WHO, 2014). As a result, the group of countries with low homicide rates is growing and is now home to more than four billion people. Just 10% of the global population, or around 700 million people, live in countries with the highest homicide levels (Small Arms Survey, 2015).

Women, children, and young men are most vulnerable to violence. Over a third of women have experienced physical or sexual violence at the hands of their partners, or have been victims of non-partner sexual violence (WHO, 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and South African Medical Research Council, 2013). One billion children are victims of serious violence each year (Hillis, Mercy, Amobi, and Kress, 2016). 700 million women were married before the age of 18, and 250 million before the age of 15 (UNICEF, 2014). More than 125 million girls and women have been victims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in 29 countries where the practice is most prevalent (UNICEF, 2013). About one in ten children aged 5-17 years are child laborers (Diallo, Etienne, and Mehran, 2013). Young men are disproportionately likely to be victims (and perpetrators) of many forms of violence, with homicide the fourth leading cause of death for young people globally (WHO, 2015).

There is a consensus that significant reductions in these forms of violence can be achieved. The first Global Violence Reduction Conference concluded that, for interpersonal violence, "a global… reduction by 50% in the next 30 years is achievable if policy makers harness the power of scientific evidence on violence reduction (Krisch, Eisner, Mikton, and Butchart, 2015)." The Igarapé Institute and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have made a similar argument for Latin America, arguing that a 50% decline in violence could be achieved in just ten years (Muggah

and Alvarado, 2016). Based on the track record of 25 countries that saw at least a 30% decline in homicide rates between 2000 and 2012,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OECD) argues that a rapid decline in violence is possible, although it underlines that while "halving the murder rate in any one of the countries most affected by violence is within historical precedent, to do so in most of them is not (OECD, 2015)."

Recent efforts have focused on helping policymakers understand how to use evidence to support violence prevention. "The Global Status Report on Violence Prevention" identifies six 'best buy' strategies for preventing interpersonal violence at a policy and programmatic level (WHO, 2014: 47). A group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3] have proposed a framework to underpin action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in 2015 (UN Women, 2015). For children, a similar group[4] identified the seven INSPIRE strategie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WHO, CDC,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PAHO, PEPFAR, Together for Girls, UNICEF, UNODC, USAID, and World Bank, 2016: 75). These multi-sectoral approaches to prevention are based on data about the scope of the problem, identification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mplementation of evidence-based interventions, and monitoring of impacts and cost-effectiveness[5].

Researchers have also identified evidence-based effective strategies for targeting violence hotspots in urban areas (Weisburd, Farrington, and Gill, 2016). The worst affected cities can achieve rapid reductions in violence through "proactive engagement with the police and other civic partners to enhance legitimacy and build social cohesion (Weisburd et al., 2016: 313)." In some cases, the fall in youth homicides has exceeded 50% (Braga and Weisburd, 2012). Given that non-conflict lethal violence is typically concentrated within a small number of city neighborhoods, this demonstrates clear potential for accelerating progress on SDG16.1 (Krisch et al., 2014).

3) UN Women, ILO, UNDP, UNESCO, UNFPA, UNOHCHR, WHO
4) WHO, CDC,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PAHO, PEPFAR, Together for Girls, UNICEF, UNODC, USAID, and World Bank
5) Violence Prevention Alliance, "The Public Health Approach," available at http://www.who.int/violenceprevention/approach/public_health/en/.

Ⅴ. Conclusion: Can We Halve Global Violence?

SDG16+ provides a framework for building more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SDG16.1 calls for urgent action to achieve significant and quantified reductions in violence. This target is yet to command sufficient attention, but it must do so in the early 2020s if the SDGs are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Just as halving poverty inspired those working on the MDGs, an objective to halve global violence could become central to the 2030 Agenda.

Three obstacles inhibit greater action on SDG16.1. First, advocacy focuses primarily on problems, rather than solutions, feeding fatalism and obscuring the evidence that violence can be prevented. Second, resources flow into ineffective and often unbalanced in their support for coercive approaches rather than towards inclusive prevention strategies that have the greatest potential to build more peaceful societies (UN and World Bank, 2015). Third, there is no single point of ownership for reducing all forms of violence everywhere within the international system, leading to a fragmentation between communities working to prevent different forms of violence.

Immediate priorities are to build political will by convincing decision makers that violence is a preventable epidemic. Partners who work on different forms of violence – both conflict and non-conflict – should unite around a compelling vision for how rapid reductions in violence can most rapidly be achieved. At sub-national,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comprehensive strategies are needed that are responsive to countries and regions with different burdens of violence.

These strategies are likely to blend targeted prevention to reduce the worst forms of violence with longer-term efforts to build more peaceful societies. Urgent action is needed to reduce conflict risk and to tackle violence hotspots in the most violent cities. This will lead to the fastest reductions in violence and provide new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for those at risk of being left behind. At the same time, longer-term efforts are needed to transform harmful gender norms and to build societies that are safe for women,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live in. Priorities

must be set, but strategies should be integrated, recognizing that threats are interconnected; when done right, most effective solutions help prevent multiple types of violence (Cliffe and Steven, 2017).

The next two years provide opportunities to build a movement that is inspired by the potential of SDG16.1. In February 2019, the PyeongChang Global Peace Forum will issue a new global appeal for peace.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will meet at ministerial level in July to review SDG16. In September, the first SDG Summit will convene to "accelerate further actions to accelerate implementation" of parts of the 2030 Agenda (UN, 2015). This summit will be preceded by 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 on 21 September. In 2020, a UN summit is planned. To seize these opportunities for SDG16.1, leadership will be needed from a coalition of champions, including governments, mayo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ivil society networks, found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References〉

Bellis, Mark A., Katie Hardcastle, Karen Hughes, Sara Wood, and Joanna Nurse. 2017. Preventing Violence, Promoting Peace - A Policy Toolkit for Preventing Interpersonal, Collective and Extremist Violence. Cardiff: The Commonwealth, available at https://www.thecommonwealth-healthhub.net/wp-content/uploads/2017/05/Preventing-Violence-Main-Report.pdf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Braga, Anthony A., and David L. Weisburd. 2012. "Pulling Levers: Focused Deterrence Strategies to Prevent Crime." *No. 6 of Crime Prevention Research Review.*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SDG Targets for Fostering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Unpublished reports, available at http://cic.nyu.edu/sites/default/files/peaceful_just_inclusive_targets_analysis_aug2016.pdf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Cliffe, Sarah, and David Steven. 2017. "An Integrated Approach to Prevention – The Links between Prevention, the 2030 Agenda, and Sustaining Peace." New York: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vailable at http://cic.nyu.edu/sites/default/files/cic_prevention_sdgs_sp_2017.pdf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Diallo, Yacouba, Alex Etienne, and Farhad Mehran. 2013. "Global Child Labour Trends 2008 to 2012."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vailable at http://www.ilo.org/ipecinfo/product/download.do?type=document&id=23015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Geneva Declaration on Armed Violence and Development. 2008. "Global Burden of Armed Violence 2008." Geneva: Geneva Declaration Secretariat, available at http://www.genevadeclaration.org/fileadmin/docs/Global-Burden-of-Armed-Violence-full-report.pdf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Hillis, Susan, James Mercy, Adaugo Amobi, and Howard Kress. 2016. "Global Prevalence of Past year Violence against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inimum Estimates." *Pediatrics* vol.137(3):e20154079, available at http://pediatrics.aappublications.org/content/pediatrics/137/3/e20154079.full.pdf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Igarapé Institute. “Instinto de Vida” posted on Igarapé Institute website, available at https://igarape.org.br/en/issues/citizen-security/instinto-de-vida/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Know Violence in Childhood. 2017. “Ending Violence in Childhood. Global Report 2017.” New Delhi: Know Violence in Childhood, available at http://globalreport.knowviolenceinchildhood.org/wp-content/uploads/2017/09/Global-Report-2017.pdf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Krisch, Maria, Manuel Eisner, Christopher Mikton, and Alexander Butchart. 2015. “Global Strategies to Reduce Violence by 50% in 30 Years: Findings from the WHO and University of Cambridge Global Violence Reduction Conference 2014.”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available at http://www.vrc.crim.cam.ac.uk/VRCconferences/conference/violencereductionreport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McEvoy, Claire, and Gergely Hideg. 2017. “Global Violent Deaths 2017 – Time to Decide.” Geneva: Small Arms Survey, available at http://www.smallarmssurvey.org/fileadmin/docs/U-Reports/SAS-Report-GVD2017.pdf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Muggah, Robert, and Nathalie Alvarado. 2016. “Latin America Could Cut Its Murder Rate By 50 Percent. Here’s How.” *Americas Quarterly,* October 4, 2016, available at http://americasquarterly.org/content/latin-america-could-cut-its-murder-rate-50-percent-heres-how#.V_USdkO7WVV.twitter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OECD. 2015. *“States of Fragility 2015: Meeting Post-2015 Ambition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vailable at http://dx.doi.org/10.1787/9789264227699-en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____. 2016. “States of Fragility 2016: Understanding Violence.”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vailable at http://www.oecd.org/development/states-of-fragility-2016-9789264267213-en.htm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____. 2017.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ituations: A Review of Donor Support." *OECD Development Policy Paper* (8).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ublishing, available at https://www.oecd.org/dac/conflict-fragility-resilience/docs/Gender_equality_in_fragile_situations_2017.pdf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Annual Report: Children Faced with Unspeakable Violence in Conflict as Number of Grave Violations Increased in 2017," available at https://childrenandarmedconflict.un.org/children-faced-with-unspeakable-violence-in-conflict-as-number-of-grave-violations-increased-in-2017/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Open Government Partnership. 2018. "Empowering the People - Our Antidote to Authoritarianism." Opening Plenary at the Open Global Partnership (OGP) Global Summit on July 17, 2018, Georgia, available at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stories/empowering-people-our-antidote-authoritarianism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OSCE/ODIHR. 2009. *Gender and Early Warning Systems: An Introduction.* Warsaw: OSCE's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available at https://www.osce.org/odihr/40269?download=true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Pathfinders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2017. "The Roadmap fo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 A Call to Action to Change our World." New York: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vailable at http://www.cic.nyu.edu/pathfinders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Small Arms Survey. 2015. "The Global Burden of Armed Violence 2015: Every Body Counts database," available at http://www.genevadeclaration.org/measurability/global-burden-of-armed-violence/global-burden-of-armed-violence-2015.html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_____. 2016. "Monitoring Trends in Violent Deaths." *Research Notes* (59), available at http://www.smallarmssurvey.org/fileadmin/docs/H-Research_Notes/SAS-Research-Note-59.pdf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The African Union Commission. 2015. “Agenda 2063 – The Africa We Want: A Shared Strategic Framework for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First Ten-year Implementation Plan 2014-2023.” Addis Ababa: The African Union Commission, available at http://www.un.org/en/africa/osaa/pdf/au/agenda2063-first10yearimplementation.pdf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available at https:// sustainable 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publication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__. 2017 “The Vision of the Secretary-General on Prevention,” 3 May 2017, available at https://www.un.int/sites/www.un.int/files/Permanent%20 Missions/delegate/attachment_the_vision_of_the_sg_on_prevention.pdf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__. 2018. “Peace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ited Nations Document A/72/707-S/2018/43.

UN and World Bank. 2018.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ashington, D.C.: World Bank, available at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28337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UN Women. 2015. “A Framework to Underpin Action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New York: United Nations Women, available at http://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5/11/prevention-framework#view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UNICEF. 2013.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A Statistical Overview and Exploration of the Dynamics of Change.” New York: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vailabe at http://www.unicef.org/publications/index_69875.html#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_____. 2014. “Ending Child Marriage: Progress and Prospects.” New York: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vailable at http://www.unicef.org/media/files/Child_Marriage_Report_7_17_LR.pdf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UNHCR.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7” posted on UNHCR the UN Refugee Agency website, available at http://www.unhcr.org/globaltrends2017/(accessed on November 19, 2018).

Violence Prevention Alliance. “The Public Health Approach,” available at http://www.who.int/violenceprevention/approach/public_health/en/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V-Dem Institute. 2018. “Democracy for all? V-Dem Annual Democracy Report 2018.” Gothenburg: V-Dem Institute and University of Gothenburg, available at https://www.v-dem.net/media/filer_public/3f/19/3f19efc9-e25f-4356-b159-b5c0ec894115/v-dem_democracy_report_2018.pdf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Weisburd, David, David P Farrington, and Charlotte Gill (eds.). 2016. *What Works in Crim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 Lessons From Systematic Reviews.* New York: Springer.

WHO. 2014. “Global Status Report On Violence Prevention 2014.”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available at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145086/1/9789241564793_eng.pdf?ua=1&ua=1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___. 2015. “Preventing Youth Violence: An Overview of the Evide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available at http://www.who.int/iris/bitstream/10665/181008/1/9789241509251_eng.pdf?ua=1&ua=1&ua=14625_eng.pdf%3fua=1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WHO, CDC,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PAHO, PEPFAR, Together for Girls, UNICEF, UNODC, USAID, and World Bank. 2016. “INSPIRE - Seven Strategie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available at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207717/1/9789241565356-eng.pdf?ua=1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WHO, 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and South African Medical Research Council. 2013.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of Violence against Women: Prevalence and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Nonpartner Sexual Viole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available at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85239/1/9789241564625_eng.pdf?ua=1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World Bank. 2011. “World Development Report 2011 – Conflict, Security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available at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WDRS/Resources/WDR2011_Full_Text.pdfWDR 2011, box on human rights and conflict risk (accessed on November 19, 2018).

_____. 2018. “World Bank Annual Report 2018.” Washington, D.C.: World Bank.

UNDP DRC's Interventions for Sustaining Peace and Operationalisation of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in the DRC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UNDP DRC Office)

Contents

Ⅰ. Introduction
1. The DRC, a Country Facing Major Challenges of Peace and Development
2. The Need for a Coordinated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upport of the DRC

Ⅱ. 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Development Planning Process Initiated by the Country since 2001 to Address Issues of Peace and Development
1. New Deal Process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2. Development Planning Process in the DRC in a Context of Fragility and Recurrent Conflicts

Ⅲ. Interventions by UNDP DRC and Its Key Partners for Sustaining Peace in DRC
1. International Security and Stabilisation Support Strategy in Eastern DRC (I4S)
2. The Humanitarian Fund (OCHA)
3. UNDP's Interventions as Part of Its Programmatic Steering Wheel

Ⅳ. Operationalisation of the Nexus in the DRC: A Coordinated Approach to Interventions to Effectively Address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Issues in Post–Conflict Areas in the DRC
1. Rational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Nexus–based Interventions in Post–Conflict Areas
2. Approach and Methods of Operationalisation of the Nexus
3. Operationalisation of the Nexus in the Context of DRC
4. Implementation Phasing of the Nexus in an Identified Nexus Driver Would Then Decline
5. Nexus Pilots Identified in the DRC
6. Axes of Possible Thematic Interventions of the Nexus
7. UNDP Strategic Positioning in the Nexus

Ⅴ. Opportunities and Recommendations for a Strengthened Partnership with Donors, Mainly Bilateral Donors, Including KOICA, for 'Sustaining Peace' in the DRC

Ⅵ.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The humanitarian response has brought much relief to the plight and suffering of the affected Congolese people. However, despite significant humanitarian interventions for the last two decades,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opulations affected by the crises remain difficult. Thus, while recognising the achievement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s, it has emerged the need for an integrated, inclusive and coordinated approach to gradually transform the dividends of humanitarian action into sustainable recovery, capacity for resilience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It is this imperative that responds to the Nexus, which is understood as a set of structured and coordinated interventions led by the actors involved in the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continuum, based on a joint multi-year program, which allow achieve sustainable collective results, with a low residual risk of falling back into the previous situation.

In this context, this note presents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s (UNDP DRC) interventions for Sustaining Peace and the operationalisation of Nexus with proposed Nexus pilots in the context of DRC. The first section presents how Development Planning Support including New Deal contributes to Sustaining Peace. The second analyses the interventions of UNDP and its partners. The third explores the operationalisation of the Nexus in the DRC and the latter notes the opportunities for partnership on the Nexus Pilots.

Keywords: Operationalisation of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I. Introduction

1. The DRC, a Country Facing Major Challenges of Peace and Development

Surrounded by nine bordering countries,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here in after referred as DRC) is a vast country in the heart of Africa that extends over an area of more than 2.3 million km². It is the second largest country in Africa and the fourth most populous, with a population estimated at 77.3 million, of which 60% live in rural areas. Its population is characterised by a preponderance of women (53%) and young people (60%). It has significant natural resources[1] but remains a poor and underdeveloped country in the rank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and low human development. At the end of its 2006 constitution in 2015, it is a decentralised state, made up of 26 provinces. Its (semi-presidential) political system is essentially democratic, with a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But its weak electoral system does not yet allow the country to lay the foundations for a modern and democratic state.

The DRC is a fragile country that is struggling to recover from a period of political, security and economic instability that has lasted for more than two decades with many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IDPs) and massive human rights and serious crimes violations were committed. Despite the presence of approximately 100 armed groups in the country, particularly in the East, and the persistence of many remaining pockets of insecurity, which undermine peace and stability, several provinces and parts of the east are experiencing a positive dynamic of pacification, where the authority of the State, the justice and the reconciliation of the communities settle progressively, thanks to the support of United Nations Organization Stabilization Mission in the DRC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MONUSCO in French acronym) and the partners of development, among which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UNDP). The

1) The DRC is rich in important natural resources: 10% of the world's copper reserves, more than 50% of the world's cobalt reserves, 70% of the coltan reserves, 60% of the tropical forests, 37% of the world's hydropower potential, etc.

overall context of the country, however, remains daunting in terms of humanitarian, security, peace and human rights, political and economic governance, and development.

On the humanitarian, security and peace front, since 2016, the humanitarian crisis, concentrated more in the East (North Kivu, South Kivu, Tanganyika, and Maniema), has spread to the centre of the country, particularly in the Grand Kasai region, affecting areas previously considered stable, and exhausting the adaptive capacity of those already affected. According to estimates by humanitarian actors, in 2017, the crisis plunged nearly 13.1 million people (including 7.7 million children) in need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protection, nearly 14% of the total population of the country. And nearly 4.3 million people are internally displaced (1.7 million in 2017 alone). The weakening of the authority of the State at all levels (central, provincial, and local), resulting from the delay in the implementation of major reforms in the sovereign sectors (defence, security, justice, police, provincial and local civil service), decentralisation has favoured the development of areas of lawlessness and the proliferation of armed groups and ethnic militias, which are torn apart in particular for the control of mining income and land, against the backdrop of poverty, the problem of identity and regional dynamics.

At the same time, through recurrent crises, malnutrition and severe food deficits have affected more than 12.8 million people in 2017 (WFP, 2017), and previously endemic diseases[2] such as cholera, measles, measles, yellow fever, and Ebola disease resurface (WHO, 2017), mainly in the conflict-affected eastern and central provinces, thus increasing the vulnerability of populations.

2) According to the HRP 2017-2019 and the 2017 Health Ministry Sanitary Report, more than 50,000 cholera cases were recorded in 2017, including 1,070 deaths, an increase of 90.3% over the same period of 2016, with nearly 70% of cases reported in the eastern DRC. Measles affected 41,778 cases in the same year, including 502 deaths. The majority of reported cases are also concentrated in the eastern provinces. Regarding yellow fever, the number of cases reported in 2017 (968 cases including 50 deaths) decreased compared to 2016 (3,283 cases including 50 deaths). Major risks of recrudescence remain in 2018,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conditions of access to water, and the hygiene and sanitation structures in the conflict and reception areas of displaced persons and refugees. The Ebola Virus Disease (EVD) arose in 2018 in Equateur province (30 deaths), the poorest province in the country, and in North Kivu province (already nearly 150 deaths), affected for three decades conflict. The latter is the 10th episode of the EVD pandemic since 1975.

In terms of political governance, the DRC is currently engaged in a process of organising the presidential, legislative and provincial elections, in order to offer a more stable future to the Congolese people. The general elections scheduled for December 23, 2018 have reached a turning point with the appointment by the majority and the opposition of their presidential candidates. These elections raise great expectations both within the Congolese population and at the leve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they pose important issues in the perspective of consolidating the stability and peace of the DRC and the entire region. In addition, the overall situ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governance remains precarious, characterised in particular by a non-transparent management of public affairs - in particular mining and forestry contracts - and impunity maintained by the weakness of the means of control and repression. The bank account suffers from several dysfunctions that limit its resources and its external control functions including jurisdictional. Similarly, the effectiveness of parliamentary institutions (national and provincial) remains limited in relation to their executive control role. Thus, despite the organisation of two general elections in 2006 and 2011, and the adoption of a new constitution in 2006, as modified and amended in 2011, the country still faces the challenges of building effective institutions, catering the authority of the state, the creation of an open political space and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the media in public life. **Beyond the worrying political, humanitarian and security situation, the socio-economic and human development context remains precarious and marked by poverty, mass unemployment, inequalities, and shortcomings in the provision of the main basic services (drinking water, health, and education),** and the lack of economic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that pushes them to turn to armed groups controlling the illegal exploitation of minerals. According to the latest statistics (National Statistics Institute of the DRC-UNDP, 2017),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Congolese population remain very precarious and vulnerable. Nearly 63% of the population continue to live below the poverty line, with large disparities between cities (47%) and rural areas (79%). And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living in severe multidimensional poverty is increasing dramatically (48.5% in 2017 against 36.7% in 2015). High inequalities in both the distribution

of Human Development Index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HDI) earnings (the loss of human development due to inequality is estimated at 30.3% in 2017) than in the income distribution (Gini index 0.39), continue to amplify. Similarly, the gap in human development between men (HDI 0.492) and women (HDI 0.420) continues to widen, reflected by the deterioration of the Gender Development Index (GDI), which rose to 0.852 in 2017 vs. 0.833 in 2016. On the other hand, the labour market remains narrow and characterised by strong inequalities towards young people, the vulnerable and women. The underemployment rate exceeds 50%. And the employment structure remains dominated by the informal sector,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88% of the total. These data reveal that the reduction of poverty and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conditions of Congolese people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strong economic growth policy, coupled with a satisfactory redistributive policy.

On the other hand, many factors aggravating fragility – likely to undermine any prospect of development of the country in the medium and long term – continue to be perpetuated and strengthened, including uncontrolled urbanisation, deindustrialisation which drives the growth of the informal sector, demographic dynamics, and the proliferation of armed groups. Major structural reforms and pro-active policies are needed to stem these phenomena.

2. The Need for a Coordinated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upport of the DRC

The humanitarian response has always been positive and has in many ways brought much relief to the plight and suffering of the affected Congolese people. However, despite significant humanitarian interventions undertaken by humanitarian actors for almost two decades and those initiated as part of the stabilisation of eastern DRC by MONUSCO,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opulations affected by the crises remain difficult. The need to improve these conditions in a sustainable way and to transform conflict dynamics is imperative. Thus, while recognising the achievement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s, it has emerged, through several studies

and collective perceptions, the need for an integrated, inclusive, and coordinated approach to gradually transform the dividends of humanitarian action into sustainable recovery, capacity for resilience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It is this imperative that responds to the Nexus, which is understood as a set of structured and coordinated interventions led by the actors involved in the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continuum, based on a joint multi-year program, which allow achieve improved and sustainable collective results, with a low residual risk of falling back into the previous situation.

This note tries to develop this new Nexus approach in the context of the DRC. It is subdivided into four parts. The first presents the 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Development Planning Processes Engaged by the Country since 2001 to Address Peace and Development Issues; the second analyses the interventions of UNDP and its partners for a lasting peace in the DRC; the third section on the operationalisation of the Nexus as a coordinated approach to effectively addressing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issues in the DRC; and the latter notes the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 strengthened partnership with donors, especially bilateral ones.

II. 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Development Planning Process Initiated by the Country since 2001, to Address Issues of Peace and Development

1. New Deal Process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The DRC is one of the self-declared fragile countries emerging from a protracted conflict that has destroyed almost all of its basic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and weakened the institutions and authority of the state. Despite the positive evolution of political stability since the 2000s and the implement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by successive governments, the political legitimacy of the rulers remains disputed and the socio-economic and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remain weak. This situation highlights the fragility of the country and the need for the authorities to accelerate institutional, economic, and social reforms with a view to creating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lasting peace and sustained growth and creating decent jobs. The New Deal process, international engagement for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in fragile states, launched in 2011 at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 Busan, South Korea, is an effective international instrument that addresses these issues of fragility. It provides strong upstream tools such as FOCUS[3] and TRUST[4] tailored for fragile and conflict-affect settings to step

3) FOCUS Principles are Country-led pathways out of fragility that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IDPS) agreed to FOCUS on new ways of engaging with conflict-affected and fragile states, including the following: Fragility Assessment, One Vision, One Plan, Compact, Use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Goals to Monitor, Support political dialogue and leadership (IDPS, "New Deal Principles," available at https://www.pbsbdialogue.org/en/new-deal/new-deal-principles/ (accessed on November 25, 2018)).

4) TRUST Principles are Commitment for Results that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Dialogue agreed to build mutual TRUST by providing aid and managing resources more effectively, and by aligning these resources for better results. In doing so, they seek to increase transparency, risk management to use country systems, strengthen national capacities and timeliness of aid, improving the speed and predictability of funding to achieve better results. This includes the following: Transparency, Risk Sharing, Use and Strengthen Country Systems, Strengthen Capacities, Timely and Predictable Aid : (IDPS, "New Deal Principles," available at https://www.pbsbdialogue.org/en/new-deal/new-deal-principles/ (accessed on November 25, 2018)).

forward for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The DRC has subscribed to the New Deal and launched, with the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of UNDP, an ambitious roadmap, which has yielded encouraging results. In 2013 and 2016, fragility assessments of the New Deal's five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Goals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PSGs) containing specific actions, with monitoring indicators, were elaborated and adopted by all stakeholders at the national level (Government, sectoral partner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NGOs)). These PSGs and actions were integrated in 2017 into the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PNSD in French acronym), for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One Vision and One Plan of the FOCUS tools of New Deal). In 2018, a comprehensive and detailed analysis of the five PSGs and the fragility spectrum of the DRC was re-conducted in 18 provinces out of total 26 provinces with a clear objective to capture the decentralised realities in a participatory manner which was not taken into account in the previous two assessments. As envisaged by the project, the project is supporting to make enabling-environment for coordination of all actors through Compact or Mutual Accountability Framework (the third component of the FOCUS tools), which is key for the operationalisation of the Nexus, amongst actors of government, donors, NGOs, universities, and private sectors across the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agendas. For this process, a fragile-to-fragile peer-learning workshop between DRC and Sierra Leone with ten g7+ countries has been recently organised and the key actors of the DRC's New Deal from the government, civil society, universities and private sector have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and produced a Roadmap towards Compact for a concrete strategy for coordination such as creation of multi-actors dialogue platform and funding facility. These can, in turn, contribute to the operationalisation of Nexus.

2. Development Planning Process in the DRC in a Context of Fragility and Recurrent Conflicts

Since 2001, the DRC's development objectives and priorities across the three

programmatic cycles have evolved but remain on a common foundation. Take the country out of its fragility by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peace, poverty, governance, and employment. The first Interim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covering the period 2002-2005 aimed at stabilising and rebuilding the country after the years of conflict. The second Strategy Paper for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2006-2010 (GPRSP-1) aimed to improve governance and boost pro-poor growth. And the third MDG-based 2011-2015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GPRSP-2) aimed at boosting job-creating growth and reduc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Since 2015, the country has embarked on the participatory and inclusive process of developing the next national programme framework called the PNSD 2019-2014, which aims to unite all sector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licies. It aims to make the DRC a middle-income country in 2024 based on two levers: the development of mining potential and the transformation of agriculture. To organise this march towards the rank of middle-income countries, the Government plans to articulate its action around five strategic pillars: (i) strengthening governance and consolidating peace, democracy, and fundamental freedoms, to boost change and strengthen peace; (ii) consolidation of growth through economic diversification; development and modernisation of basic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to support growth; (iii) social development and resource development, with a view to increasing socio-economic opportunities for all segments of the population; and (iv) balanc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ll provinces and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However, demographic dynamics, the infrastructure deficit, and the recurrence of armed and inter-communal conflicts could thwart this ambition.

Ⅲ. Interventions by UNDP DRC and Its Partners for Sustaining Peace in DRC

To address issues of peace and development in the DRC, UNDP and its partners "Humanitarian (OCHA) and Stabilisation (I4S)" are particularly active through three programmatic vehicles: the International Security and Stabilisation Support Strategy in the eastern DRC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I4S), Humanitarian Fund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OCHA), and UNDP programmatic steering wheel.

1. International Security and Stabilisation Support Strategy in Eastern DRC (I4S)

The I4S is an instrument of the United Nations (here in after referred as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ributing to the stabilisation of eastern DRC, in support of the Stabilisation and Reconstruction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STAREC) programme of eastern DRC of the Government. Supported by donors, the strategy is managed by a Stabilisation Support Unit (SSU) established within MONUSCO, in direct collaboration with the STAREC team. The I4S program is currently in its third phase 2018-2022, after the first phase 2008-2012 and the second phase 2013-2017. Its structure is organised around (i) an integrated strategy comprising five programmatic pillars; (i) a financing mechanism (Coherence Fund for Stabilisation); (iii) an external project alignment mechanism, upstream and downstream; and (iv) close communication with donors and national partners.

The I4S is a strategy that tackles the different structural and underlying causes of conflict through both a Bottom-up approach, through building the capacity of civil society to hold the state accountable, and an approach Top-down, by supporting the Congolese State to provide services to the people and to strengthen its authority. It is at the heart of the Nexus in areas where humanitarian needs and development constraints are linked to violence.

The I4S currently covers three provinces (Ituri, North and South Kivu) around

13 priority areas. Six zones are currently operational (2 in Ituri, 2 in North Kivu, and 2 in South Kivu). A second programming cycle to extend the operationalisation to 12 zones is planned for the period 2019-2022. At the programmatic level, it comprises 5 pillars: (i) democratic dialogue; (ii) security; (iii) restor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State; (iv) reintegration and socio-economic revival; and (v) women, peace and security.

2. The Humanitarian Fund (OCHA)

Managed by UNDP and OCHA, the Humanitarian Fund was created in 2006 at the initiative of donors to support humanitarian reform in the DRC. It was plac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Humanitarian Coordinator (here in after referred as HC). It funds the humanitarian projects identified in the Humanitarian Response Plans. These projects are implemented by NGOs and UN agencies. The Humanitarian Fund received approximately US $ 968 million from 12 donors between 2006 and 2016, which helped support nearly 7 million people through 1,316 projects. The projects and activities funded by the Humanitarian Fund cover a wide range of sectors and areas: nutrition, protection, health, food security, shelter, logistics, education, hygiene and sanitation, water, etc.(OCHA, 2016).

Emergency solutions provided by humanitarian actors over the last decade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existential needs of the affected population, particularly in the east of the country, but have not been sustainable. The need to better articulate and coordinate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interventions would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results. The Nexus approach addresses this concern.

3. UNDP's Interventions for Sustaining Peace in DRC as Part of Its Programmatic Steering Wheel

At the heart of UNDP's missions are crisis prevention,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inequality, resilience,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and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all of which help to consolidate peace and reduce vulnerabilities.

Following its 2013-2017 Strategic Plan, which has been extended to date, UNDP is working on two priority programmatic axe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peace and development. In the first, dealing with **Peacebuilding and Strengthening Democracy**, UNDP provides support to the electoral process, justice and security reform, the court of auditors, parliamentary institutions, local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centralisation. In the second, on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DP provides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SDG-driven development planning tools, community resilience,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and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iorities follows three guiding principles: to allow the transition from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consolidation of peac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rule of law in the long term which is UNDP's comparative advantage for the operationalisation of Nexus; ensure a better spatial and sectoral balance in programming; and obligation of results in the medium and long term(UNDP DRC, 2013, p.4).

Earlier this year,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 of fragility, UNDP developed a new approach to intervention in crisis-affected provinces and areas, consisting of structured substantive and comprehensive support as follows; (1) Upstream and (2) Downstream.

Upstream,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package of actions including, is formulation of a SDG-driven provincial development plan, empowerment, M&E development, support for resource mobilisation, the coordination of aid, all in connection with the Nexus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The aim is to help the province put in place a development framework structured around the SDGs that can address the challenges of peace and development and channel humanitarian dividends towards sustainable solutions. With the ultimate objective, to help the provinces build their own public policy leadership and create an effective decision-making framework that enables them to ensure the transformation and resilience of their provinces[5].

5) Notes prepared by the UNDP DRC Country Office in 2018 and shared with all stakeholders to feed a first reflection on the Nexus: (1) Converge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DRC towards stabilization; (2) project to support the formulation of SDG-focused provincial development plans (UNDP DRC, 2018).

Downstream is a series of interventions focused on the restoration of state authority and the strengthening of its capacity to deliver basic public services for the consolidation of peace, security and good governance; community governance and capacity building for local actors, especially women and youth, as a foundation for restoring the social contract and the rule of law; stabilisation of livelihoods and access to opportunities in return areas[6].

6) UNDP DRC (2018).

Ⅳ. Operationalisation of Nexus: A Coordinated Approach to Effective Addressing Humanitarian,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in Post-Conflict Areas[7)]

1. Rational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Nexus-based Interventions in Post-Conflict Areas

The need to improve cooperation between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ctors has been recognised within the UN for a few years now. The adoption in 2006 of the **"Delivering as One"** framework was a first step to engage development actors in cooperating with humanitarians. For their part, humanitarians were called upon to strengthen collective action in 2005 with the adoption of the Cluster approach of the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n this structuring, we will remember that two contradictory dynamics emerged around the concept of **"Early Recovery"** and its dedicated cluster. Indeed, this cluster had to promote both the emergency-development link in all the specific clusters (health, water, etc.) and set up specific activities that could promote this link (work with state institutions, demining, etc.).

For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n this link, one can refer to the study "The Continuum of Humanitarian Crises Management: Multiple Approaches and the Convergence Challenge (Gómez and Kawaguchi, 2016)." This questions the response to humanitarian crises and compares different approaches to the emergency-development nexus, building on work on disaster risk reduction and peacebuilding. While describing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authors present a model of activities based on a simple and commo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to which all actors can come together.

7) This chapter is based on following list of documents: DRC's UNDP Portfolio 2018 (2018); Dag Hammarskjöld Foundation and the Multi-Partner Trust Fund Office (2018); World Bank (2015); World Bank (2018); and Manuel Opérationnel du Fonds Humanitaire en RDC. See references for additional information.

In May 2016, **the World Humanitarian Summit** called for a change in the managemen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humanitarian action. In its report **"One humanity, shared responsibilities,"** ahead of the summit, the UN Secretary-General launched a global appeal to "change people's lives: moving from providing aid to humanitarian needs. He insisted that the 2030 SDGs should not leave anyone behind and refer to the establishment of a common framework between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ctors to ensure maximum security, dignity and ability to thrive (UNSG, 2017).

The Commitment to Act signed at the 2016 World Humanitarian Summit calls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New Way of Working**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NWOW)" to achieve a "Humanitarian-Development Nexus" where the convergence between the two pillars is around "collective results." The peace dimension was later incorporated into this approach, which, in the case of the DRC, seems very relevant. The NWOW approach aims to bridge the gap between humanitarian aid and development assistance, and in particular addressing the needs of those most affected by humanitarian emergencies through a more comprehensive and complementary approach (ICVA, 2017).

The NWOW therefore responds to the need for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ctors to align with common and sustainable collective results that address the sources of conflict,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affected populations, and project a better trajectory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approach requires actors working in the humanitarian / stabilisation / development continuum to collaborate and plan a coordinated multi-year response framework that maximises overall results and minimises the risk of backtracking. In the same perspective, it makes it possible to increase the coherence and effectiveness of aid deployment.

The effectiveness of the NWOW approach, operationalised by the Nexus, is corroborated by the theory of cooperative games. When all actors agree to work together and work in a coordinated and synergistic framework, the coordination of interventions and the economies of scale that it allows will lead to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gains, leading to optimal balance. In the context of the Nexu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gains from coordination will transform short-term humanitarian dividends into recovery and resilience, thus enabling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a medium-term and long-term perspective (3 to 5 years).

So, by and large, without being exhaustive, the Nexus approach allows:

- Better articulate humanitarian aid and development assistance so as to put the former in a sustainable perspective;
- Reduce long-term humanitarian needs by making the best use of existing resources and capacities;
- Improve the coordination of actions on the continuum with a view to generating efficiencies and efficiencies to achieve improved and high collective; and
- Boost partnerships, especially with the private sector, local actors, and multilateral banks, which can provide additional capacity and resources to achieve collective and measurable results for people and communities emerging from crises (ICVA, 2017; OCHA, 2018).

2. Approach and Methods of Operationalisation of the Nexus

Conceptually, the operationalisation of the nexus is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and the approach developed by the NWOW. This approach describes how Nexus actors and their national counterparts can effectively coordinate their interventions, to achieve improved collective outcomes that reduce the long-term needs, risks and vulnerabilities of affected populations.

The NWOW Analytical Framework calls for committed actors on the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continuum to agree on at least three important commitments and to design effective practical modalitie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Nexus. These commitments include: (i) joint multi-year SDG-based programming with a clear roadmap to contribute to the long-term resilience and development of affected communities; (ii) tangible collective results in reducing needs, vulnerability and risks; and (iii) collaboration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different areas of intervention. In practical terms, these commitments will be articulated around four practical actions: conducting a joint analysis of the situation; develop a joint and coordinated planning and programming process with M&E indicators; put in place effective coordination; and design effective financing modalities for multi-stakeholder and multisectoral activities.

3. Operationalisation of the Nexus in the Context of DRC

Under the coordination of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DSRSG), Resident Coordinator (RC), HC, and UNDP Resident Representative (UNDP RR) in the DRC, a committee composed of UNDP, OCHA,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UNICEF), the World Bank, the office of DSRSG and Stabilisation Support Unit (SSU) of MONUSCO has been put in place for the operationalisation of the Nexus in the DRC. At this stage, a strategic note for operationalisation of the Nexus with some of concrete proposals called Nexus Pilots has been elaborated. In the note, as a first step, it is proposed to operationalise the Nexu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WOW elements within a limited number of Nexus pilots to ensure greater complementarity and coherence between humanitarian efforts, development and peace. In practical terms, the Nexus will first be implemented provincially and locally, and not nationally,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the approach. Its operationalisation would be done through Nexus Pilots articulated around the geographical zones out of crises (provinces, territories, grouping, ...) or key themes (displacement of populations, recovery, resilience, stabilisation, etc.) (UNDP Nexus Core Team and OCHA DRC, 2018).

4. The Implementation Phasing of the Nexus in an Identified Nexus Driver Would Then Decline

According to (1) definition or identification of a Nexus Pilot, it will define a Zone or theme consensual and accepted by all actors of the Nexus (Humanitarian / Development / Peace / Local Authorities / NGOs / Donors), to lead activities in the framework of the Nexus. It is important to involve donors at this stage to ensure funding; (2) Conducting a joint and holistic needs analysis, which will consist of assessing the needs, risks and capacities needed to address the root and structural causes of the problem, as well as the risks and vulnerabilities of the communities and / or affected areas; (3) Conduct joint planning / programming / budgeting, based on data collected during the joint analysis; (4) Definition of the expected collective results, for a period of 3 to 5 years, with intermediate targets to be reached; (5)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coordination mechanism including all Nexus actors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and local authorities (and possibly beneficiaries); (6) Establishment of a predictable, flexible and multi-year funding mechanism over a minimum period of 3 years, preferably 5 years, to ensure sustainable collective results.

5. Nexus Pilots Identified in the DRC

The following is Nexus Pilots identified in the DPR; (i) **Grand Kasai** (Kasai Central, Kasai, Kasai Oriental, Lomami, Sankuru) around a global response on issues of security, IDPs, agriculture, nutrition, education, health, reproductive health, human rights, GBV, etc; (ii) **Ituri** around issues of IDPs, refugees, democratic dialogue, local governance, etc .; (iii) **North and South Kivu** around issues of stabilisation, recovery, rule of law, human rights, GBV, local governance, community recovery, and; (iv) **Tanganyika** around Pygmy and Bantu conflicts; (v) **Beni** around a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response to Ebola Virus Disease; (vi) **Provinces of Equateur in Mbandaka** around a global and sustainable response to the “Ebola Virus Disease”:

early warning and monitoring system, strengthening of health structures, agriculture, etc.

6. Axes of Possible Thematic Interventions of the Nexus

The focus could be on several themes, including (i) **health** with a focus on epidemics; (ii) **food insecurity and malnutrition**; (iii) **access to basic social services** for the most vulnerable (drinking water, electricity, health, and education); (iv) **long-term IDPs;** (v) **reduction of violence;** etc.

7. UNDP Strategic Positioning in the Nexus

UNDP is a key player in the development process, working on a broad spectrum of the Nexus, from stabilisation, recovery, development, to peacebuilding. It also plays a unifying role (**Integrator**)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its comparative advantages and its experience gained, it is strategically positioned on the various niches below. (i) **Stabilisation** (North Kivu, South Kivu and Ituri) with a focus on the rule of law, local governance, political dialogue, security, justice, GBV, etc.; (ii) **recovery** (Grand Kasai, North and South Kivu); (iii) **development**, with a focus on the SDGs; (iv) **peace and sustainable solutions,** including on issues of refugees, IDPs, etc.

V. Opportunities and Recommendations for a Stronger Partnership with Donors, Mainly Bilateral Donors, including KOICA, for a Sustaining Peace in the DRC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Nexus, it will be important to mobilise long-term resources (3-5 years), but also to forge diversified partnerships and capitalise on existing partnerships.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 in after referred to as KOICA), as a key bilateral partner, could be mobilised for the stabilisation components (rule of law, local governance, political dialogue, security, justice, GBV, etc.), peace (displaced, refugees, pygmy / bantu conflicts in Tanganyika, etc.) and Recovery of affected communities (improvement of economic opportunities). As a concrete example to clearly see how the Nexus can be operationalised in the field, a humanitarian intervention for food crises in the Grand Kasai provinces is being implemented by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UNICEF, and World Food Programme (WFP) funded by the World Bank in the context of ongoing and post-conflict situations. To gradually transform the dividends of humanitarian action into sustainable recovery, capacity for resilience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KOICA-UNDP Nexus Pilot programme, for example, can be jointly developed to work in the region by conducting a joint analysis of the situation, social cohesion, institution building, support for long-term joint planning support at the provincial level. The DRC government has recently launched the 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Solutions for the IDPs and returnees which is another relevant example directly liked to the Nexus where the partnership can be built to support the strategy for the IDPs and returnees in the eastern provinces such as Tanganyika and North Kivu.

Ⅵ. Conclusion

The expected results of Nexus and NWOW engagement will be to ensure that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actors establish the strategic and programmatic foundations for setting common goals to ensure greater coherence and coherence. Increased convergence of interventions. The results of the Nexus will be long-term and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WOW elements and the objectives of the "collective results." The mobilisation of financing in a context of political uncertainties will be one of the key success factors of the Nexus in the DRC. Bilateral partner like KOICA can play a major role in this process.

〈References〉

Aperçu de la Crise en. 2018. “RD Congo: Plan de Réponse Humanitaire 2017 (Mise à jour pour 2018).” Kinshas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available at https://www.humanitarianresponse.info/en/operations/democratic-republic-congo/document/rd-congo-plan-de-r%C3%A9ponse-humanitaire-2017-mise-%C3%A0-jour.

Agenda for Humanity. 2018. “Multi-Stakeholder Regional Workshop on the New Way of Working, West and Central Africa,” available at https://www.agendaforhumanity.org/sites/default/files/resources/2018/Aug/NWOW-Workshop-Report-20180713.pdf.

Dag Hammarskjöld Foundation and the Multi-Partner Trust Fund Office. 2018. “Financing the UN Development System: Opening Doors.” Uppsala: Dag Hammarskjöld Foundation, available at https://www.daghammarskjold.se/wp-content/uploads/2018/09/financial-instr-report-2018-interactive-pdf_pj.pdf.

Expériences de mise en place de la Nouvelle Manière de Travailler au Soudan, la Somalie, et le Bassin du Lac Tchad.

Gomez, Oscar A., and Chigumi Kanaguchi. 2016. “The Continuum of Humanitarian Crises Management: Multiple Approaches and the Convergence Challeng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Working Paper, no.136, available at https://www.jica.go.jp/jica-ri/publication/workingpaper/wp_136.html.

ICVA. 2017. “The New Way of Working Examined: An ICVA Briefing Paper.” Geneva: A Global NGO Network for Principled and Effective Humanitarian Action, available at https://www.icvanetwork.org/system/files/versions/ICVA_NWoW_Briefing_paper.pdf.

ISSSS. 2013. “International Security and Stabilisation Support Strategy 2013-2017.” Kinshasa: United Nations Organization Stabilization Miss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MONUSCO), available at http://www.unpbf.org/wp-content/uploads/ISSSS-2013-2017-Strategic-Framework-FINAL_EN.pdf.

OCHA. 2017. “New Way of Working (NWOW).” New York: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Policy Development and Studies Branch (PDSB), available at https://www.unocha.org/sites/unocha/files/NWOW%20Booklet%20low%20res.002_0.pdf.

____. 2017.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Aperçu des besoins humanitaires.” Kins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available at https://reliefweb.int/report/democratic-republic-congo/r-publique-d-mocratique-du-congo-aper-u-des-besoins-humanitaires-0

____. 2018. “COLLECTIVE OUTCOMES: Operationalizing the New Way of Working.”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is a United Nations, available at https://www.agendaforhumanity.org/sites/default/files/resources/2018/Apr/OCHA%20Collective%20Outcomes%20April%202018.pdf.

PLAN-CADRE DES NATIONS UNIES POUR L’ASSISTANCE AU DÉVELOPPEMENT — UNDAF 2013-2017,” available at http://cd.one.un.org/content/dam/unct/rdcongo/docs/UNCT-CD-UNDAF.pdf.

UNDP DRC. 2013. “Country Program Document 2013-2017.” Kinshasa: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_____. 2018. Notes on the Nexus, prepared shared by UNDP Country Office Country Office with stakeholders in 2018.

UNDP Nexus Core Team and OCHA DRC. 2018. “Draft concept Note on Operationalization of the HDP Nexus in the DRC” elaborated on October 30, 2018.

UNSG. 2017. “UN Secretary-General Report: Repositioning UNS for Develop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Our Promise of a Life with Dignity, Prosperity and Peace on a Healthy Planet” adopted on 20 December 2017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72/684-E/2018/7.

UNSSC. “Le Programme de développement durable à l’horizon 2030.” Bonn: United Nations System Staff College, available at https://www.unssc.org/sites/unssc.org/files/2030_agenda_for_sustainable_development_kcsd_primer_fr.pdf.

WHS HDAG. “thinkpiece - Better Humanitarian-Development Cooperation for Sustainable Results on the Ground,” available at https://cic.nyu.edu/publications/after-world-humanitarian-summit-better-humanitarian-development-cooperation-sustainable.

World Bank. 2015. “FROM BILLIONS TO TRILLIONS: MDB Contributions to Financing for Development.” World Bank Report, July 2015. Washington D.C.: World Bank, available at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602761467999349576/pdf/98023-BR-SecM2015-0233-IDA-SecM2015-0147-IFC-SecM2015-0105-MIGA-SecM2015-0061-Box391499B-OUO-9.pdf.

_____. 2017. “Country Assistance Strategy for DRC, World Bank, 2013-2016.” Washington D.C.: World Bank, available at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664211468246896400/Congo-Democratic-Republic-of-Country-Assistance-Strategy-for-the-period-FY13-FY16.

_____. 2018. “World Bank Group Engagement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posted on World Bank website on May 16, 2018, available at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drc/overview#2.

World Humanitarian Summit. 2016. “Commitment for Action” posted on World Humanitarian Summit website on 23 May, 2016, available at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system/files/whs_commitment_to_action_-_transcending_humanitarian-development_divides_0.pdf.

평화활동의 주변에서 지속적 평화의 중추로: 평화구축과 평화의 지속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론을 중심으로

권구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목차

Ⅰ. 서론

Ⅱ. UN 평화의제의 발전과 시민사회
1. UN 평화활동의 전환
2. UN 평화구축의 개념 형성과 진화
3. 평화구축과 지속적 평화의제에서의 시민사회

Ⅲ. 평화구축 프로세스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쟁점
1. 평화구축활동의 영역
2. 평화구축 프로세스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3. 주요 쟁점

Ⅳ.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 현황과 과제

Ⅴ. 결론

참고 문헌

요 약

본 논문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6과 관련해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의 평화의제가 '분쟁 후 평화구축'에서 '평화의 지속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살펴보고, 한국의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를 조명했다.

UN의 평화의제는 초기의 대응적 평화활동에서 냉전 이후의 비국제적 무력 충돌의 확산으로 인해 다면적 평화활동으로 바뀌었다. 이는 평화구축활동이 개념화되고 또 공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공공 행위자들로부터 분쟁과 갈등 전환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평화 프로세스에서 보호·감시·옹호·내그룹 사회화·응집력 제고·중재·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해 왔다.

한편, 한국의 개발협력 시민사회가 분쟁·취약국을 대상으로 평화구축과 지속적인 평화의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근거해 개발협력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연대 구축, 인식 제고와 역량 개발, 컨소시엄형 프로그램 지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주제어: 평화구축(peacebuiling), 지속적 평화(sustaining peace), 시민사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분쟁·취약국

Ⅰ. 서 론

냉전이 종식된 후, 무력 충돌 및 피해자 수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국가적 무력 충돌(non-state armed conflicts)은 여전히 국제 안보에 있어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발발한 무력 충돌은 49건이고, 직접 피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69,000명에 달한다(Wallensteen, 2017). 단일국가에서 정부와 교전 무장단체 간, 그리고 연계된 지역사회 간 폭력적인 분열 양태는 궁극적으로 국가 제도의 붕괴를 초래함으로써 화해에 기반한 재건과 평화구축의 과정을 더욱 요원하게 만든다. 특히 무력 충돌을 피해 주거지를 등진 수천만 명의 피난민들은 매순간 삶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10년간 복합 위기 상황으로 인한 인도적 지원의 요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의 통합지원호소(Consolidated Appeal Process)의 규모가 235억 달러로 2006년에 비해 400% 이상 증가했고, 이러한 기조는 지난 7년간 지속되고 있다(OCHA, 2018). 이처럼 암울한 정황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평화에 대한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무력 충돌에서 평화구축으로 전환하는 데 개입해 온 주요 행위자는 주로 UN과 국민국가였고, 공공 행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간 무력 충돌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평화구축의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불요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Paffenholz, 2001).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무력 충돌의 양상이 복잡하고 다원화됨에 따라, 평화구축에 대한 담론은 “어떤 행위자와 접근 방법이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가?”로 귀결되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유엔으로부터 분쟁 당사국의 풀뿌리 조직 혹은 시민사회에 이르는 다수 행위자의 참여와 다양한 접근이 지속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Reychler and Paffeholz, 2001; Crocker, Hampton, and All, 2001; Paffenholz, 2009).

평화구축 과정에서, 특히 민주화와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시민사회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는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정체성과 범주 내 행위자의 관점에 대한 보편적이고 합의된 정의가 여전히 부재하다. 이는 평화구축이나 시민사회의 결합(nexus)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평화구축활동이 증대하는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개발협력 관점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과 관련한 서비스 전달 기능을 담당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이하 NGOs)에 대해 평화구축활동의 참여가 내외적으로 요구되었고, 현재 서구의 NGOs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기반 활동에 최적화된 NGOs가 평화구축에 적합한 행위자인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가 국제비정부기구(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이하 INGOs)로 대표되는 외부 시민사회의 무차별적인 개입이 현지 시민사회를 종속화하고 또 그들의 노력을 주변화시킴으로써 유의미한 영향력을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Paffenholz and Spurk, 2006: 27). 이처럼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평화구축의 맥락에서는 시민사회의 포괄적인 범주화가 불가피하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들을 배경으로 우선, UN 체제를 중심으로 평화의제의 형성과 진화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시민사회 의의와 역할에 대한 인식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평화구축 프로세스에서 시민사회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함께 제기되는 쟁점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개발협력 NGOs를 포함한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UN 평화의제의 발전과 시민사회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설립된 UN은 헌장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존립 근거로 천명했고, 분쟁의 예방과 평화를 위협하는 호전적인 행위를 일소하는 데 있어 집단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요구받았다(UN, 1945). 종합적인 대응책이란 사법적 조치와 이에 근거가 되는 국제법의 적용 및 분쟁 당사자 간 조정과 합의 등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후의 보루(last resort)로서 집단안보 체제에 의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소 강대국이 주축이 된 냉전 기간 동안 UN이 분쟁 방지와 적극적인 개입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보완 기제로서 도입된 군 중심의 제한적인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은 분쟁 당사국 간 감시를 통해 충돌 가능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했다.[1] 이에 UN은 분쟁의 예방적 노력 이상으로 무력 충돌 발생 시 교전국 간 정전 유도와 평화협약 체결, 평화유지활동으로 연계되는 일련의 평화활동(peace operations)에 중점을 두고 규범적 정의와 정책의 강화, 조직적 개편, 활동과 자원의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따라서 UN 평화구축의제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UN 평화활동의 변화를 초래한 정황(context)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평화활동의 제도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화구축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구체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

1. UN 평화활동의 전환

냉전 해체기 이전의 무력 충돌 양상은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특정 강대국의 세력권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일부 국가 간 집단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집 사례, 국가 간 국지적인 충돌, 외부 세력의 확대와 적극적 개입으로 인한 확전이다(James, 1990). 당시 상황으로 볼 때, UN이 주도하는 대규모 병력 동원은 거의 불가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평화협약을 체결한 후 소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해 감시 활동만 가능했다. 그러나 냉전 해체 이후, 강대국에 의한

1) UN에 의해 수행된 평화유지활동의 첫 사례는 1948년 중동에 파견된 유엔정전감시단(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UNTSO)과 카슈미르 분쟁에 따른 인도-파키스탄 유엔정전감시단(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for India and Pakistan, UNMOGIP)이고, 현재까지도 감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출처: UN Peacekeeping 홈페이지, “Our History” posted o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website, available at https://peacekeeping.un.org/en/our-history (접속일: 2018.11.14.).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취약국에 잠재되어 있던 정치적인 압제와 구조적인 불평등, 인종과 종교 간의 갈등, 극심한 빈곤 등의 문제는 비국제적 무력 충돌의 확대를 초래했다(Suhrke and Chaudhary, 2009).

이는 과거와 달리 소말리아, 르완다, 코소보의 사례와 같이 교전 당사자의 인명 피해보다 민간인에 대한 반인도적·반인권적인 잔악 행위로 인한 사상자가 증가하고, 무력 충돌 이후 치안의 안정화 및 질서 유지와 더불어 붕괴된 국가 제도와 사회적 가치의 복구를 위해서는 대규모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평화활동도 다차원적으로 변화되었다. 한편, 소말리아와 보스니아의 경우와 같이 분쟁 당사자 간 교전이 진행 중인 호전적인 상황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긴급 인도적 지원의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지역 기구나 동맹국의 병력이 동원되어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소위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 활동도 개시되었다.

이러한 다차원적 평화활동으로의 확대를 범주화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UN 평화활동의 범주화

Bellamy, Williams & Griffin (2004)	Talentino (2004)	Diel, Druckman & Wall (1998)
• 전통적 평화유지 활동 • 과도정부 관리 활동 • 확대된 평화유지 활동 • 평화 강제 활동 • 평화 지원 활동	• 제한적 활동 • 확장적 활동 • 국가 재건 활동	• 전통적 평화유지활동 • 감시 활동 • 집단적 강제 활동 • 선거 감시 활동 • 인도적 지원 활동 • 국가 재건 활동 • 치안·질서 유지 활동 • 예방적 전개 활동 • 무기 통제·검증 활동 • 보호 서비스 지원 활동 • 민주화 지원 활동 • 제재 강행 활동

출처: Diehl (1998: 13-15)을 참고해 저자가 재구성

이에 방법론적 측면에서 복잡한 양상을 띤 무력 충돌 전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civilian experts)와 경찰 요원(UN Police)과 같이 분야별 역량을 보유한 행위자가 UN 임무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임무단의 대표도 고위급 군 장성에서 민간 고위 관료인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로 교체되었고, UN 국가팀의 조정관인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 지부장이 임무단 부대표를 겸임하면서 외부 행위자처럼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UN기구들이 평화활동의 방계형 거버넌스에 편입되었다. 아울러 기존의 파트너인 지역 기구와 더불어

양자원조기구, 특히 INGOs을 비롯한 현지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2. UN 평화구축의 개념 형성과 진화

UN 시스템 내에서 평화구축(peacebuilding)이라는 개념은 1992년 당시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Boutros Boutros-Ghali) UN사무총장으로부터 제시되었다. 그는 『평화를 위한 아젠다(An Agenda for Peace) 보고서』(이후 Agenda for Peace 보고서)를 통해 '평화를 강화하고 확고히 하는 구조를 규정하고 지원해 분쟁으로의 회귀를 막는 행위'로 정의했다(UN, 1992). 『Agenda for Peace 보고서』가 내포하는 특징은 목표에 있어 분쟁 재발의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된 전략과 활동의 수반, 시점상 UN 자체의 한계성으로 인해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분쟁 후를 상정한다는 것이다(Diehl, 1998: 22-23). 따라서 부트로스-갈리의 보고서가 분쟁 후 평화구축(post-conflict peacebuilding)이라는 제한적인 개념을 표명했다면 평화 학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평화구축의 담론을 형성했다.[2)]

한편,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UNDP는 무력 충돌로 회귀하는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에는 맥을 같이 하나, 분쟁 관리를 위한 국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와 개발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3)] 그리고 평화구축은 폭력의 구조적인 근인(根因)의 환기를 통해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활동이다(OECD, 2011: 60). 갈등 해결 전략으로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폭력의 불법성을 촉구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적 역량을 구축하며, 폭력을 촉발하게 하는 취약성을 경감시키는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11).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출범 당시 평화의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UN 체제에서 평화구축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별도로 이뤄졌다. 2000년 브라히미 보고서(Brahimi Report)에서는 평화구축을 재정의했는데, '평화의 토대를 재구성하되 전쟁 부재 이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개입 시점의 재조정이 구체적으로 이뤄졌고, 무력 충돌의 원인에 대해 정치적 활동(유엔 정무국: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DPA)과 개발(UNDP)이 융합된 효과적인 접근을 주문했다(UN, 2000). 이어서 구체적인

2) 대표적으로, 갈퉁(Galtung; 1976)은 평화란 평화유지활동 및 일시적 평화 조성과 달리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대체재를 제공하는 자체적 구조를 형성하는 보다 근원적 평화구축 개념을 제시했다. 한편, 분쟁 후 평화구축이라는 시계열적 관점에서 탈피해 분쟁을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일련의 과정과 단계를 포괄하는 개념을 제시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이 제시되었다(Lederach, 1997).

3) UNDP 홈페이지,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building" posted on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ebsite, available at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ourwork/democratic-governance-and-peacebuilding/conflict-prevention-and-peacebuilding/ (접속일: 2018.11.15.).

평화구축활동에 있어 분쟁국의 필요를 환기시키고 또 지속적 평화(Sustaining Peace)와 개발로 이행되도록 관련 재원을 조성하며, 공여국을 포함한 회원국들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어 촉매제 역할을 담당할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가 2005년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산하 자문기구로 설립된다(UN, 2005).

전술했던 제한적 평화구축에서 지속적 평화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2015년에 채택된 SDGs가 분수령이 되었으며, 이전의 파편화된 평화구축을 구성하는 개념과 전략들이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평화구축의 요소로서 범주화된 민주적 거버넌스 및 인권과 정의, 사법적 질서유지를 포괄하는 법치의 개념이 16번 목표로 수렴된 것이다(김수진, 2015; 곽재성·이성훈·홍문숙·윤지영·김수진·송수전·김은영·장아영·정원선·박진아, 2018). 대응적 UN 평화활동의 제도적인 발전을 견인한 코피 아난(Kofi Annan) 사무총장의 기조를 이은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현 사무총장은 총회 결의안 제262호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2282호에 근거해 2018년 4월, 『평화구축과 지속적 평화 보고서(Report on Peacebuilding and Sustaining Peace)』를 발표하며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분쟁 발발의 대응적인 차원에서 분쟁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총체적 방지 기제로서 평화구축을 대입시켰다(UN, 2018).

3. 평화구축과 지속적 평화의제에서의 시민사회

개발협력의 이해관계자 담론에 있어 NGOs를 포괄하는 시민사회가 초국적 연대를 통해 정부 주도의 다자간 협약에 하향식 의사 결정을 촉구하고 또 결의 과정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점증함에 따라, 2000년대 들어 개발협력 체제의 주요 행위자이자 대화 파트너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다차원적인 평화구축활동의 제도화 과정에서 UN 역시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4)]

『Agenda for Peace 보고서』(UN, 1992: para 84)에서는 UN 시스템과 회원국 정부만으로 평화를 성취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학계와 의회, 기업 등과 이해의 공유와 참여가 필요함을 기술했다. 이를 계기로 UN의 평화활동에 있어 NGOs 및 시민사회 간 접점

4) 1950년에 채택된 UN총회 결의안 제337호는 소위 '평화를 위한 통합결의(Uniting for Peace)'의 실행 근거로서 평화 위협 시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대응 조치가 불가할 때 총회가 병력 사용을 포함한 집단적 조치를 권고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로 냉전 기간 동안 안전보장이사회의 불능 시 총회가 대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냉전 이후, 안전보장이사회로 권한이 집중되면서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2003년 이라크전쟁 시 안전보장이사회가 적기에 대응을 못 하자 시민사회 단체들은 평화를 위한 통합결의 발동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Mani and Ponzio, 2018).

(interface)과 조정의 공간이 형성되었고, 이후 브라히미 보고서의 집필 과정에서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유사시 파견 가능한 전문가 풀을 구축하는 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했다. 또 임무단의 유휴장비 일부를 검증된 현지 시민사회에 기증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유용한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및 NGOs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UN, 2000).

또한 무력 충돌 과정에서 민간인의 피해가 증대됨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민간인 보호(protection of civilian)' 규정으로 제1674호 결의안을 의결하는 데 있어 비록 시민사회를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재건 및 복구의 전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인권 보호와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다(UN, 2006). 이는 동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던 시민사회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UN평화임무단의 파병 전 민간인 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도 시민사회의 역량과 협력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반영되어 있었다.[5)]

2015년 SDGs의 출범을 계기로 평화구축에서 지속적 평화의제로 전환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었다. SDGs의 도출 이전에는 평화활동에 있어 시민사회에 대한 인지 제고와 더불어 다소 선택적인 협력의 맥락이었다면,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식과 협력을 주문하고 있다. 『평화활동에 대한 고위급 독립패널 보고서(High Level Independent Panel on Peace Operations)』에 의하면, "미래를 조망 시 시민사회의 부상과 민중의 목소리가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을 위한 강력한 계기를 마련할 것(UN, 2015)"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협력의 대상도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 종교 단체, 여성과 청소년 단체들로 확대하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할 것을 확인했다(UN, 2015). 이러한 기조는 『평화구축과 지속적 평화 보고서』를 통해 파트너들과의 새로운 플랫폼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수사적 선언 이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6)]

이와 같이 UN의 평화의제는 무력 충돌에 대한 대응적 평화기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오다가 재발 방지라는 제한적 개념의 평화구축을 제시하면서, 평화를 무력 충돌의 전개에 대한 선형적

5) 필자가 2011년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KNDU PKO Center)의 요청으로 '민간인 보호(Protection of Civilians)' 교과를 개발 시 기초자료로 제공된 UN 자료를 보면, NGOs의 지위와 역할, 협조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6) 안토니오 구테헤스 UN사무총장은 '평화네트워크를 위한 기업글로벌 컴팩트(the UN Global Compact's Business for Peace Network)', '평화와 안보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UN과 아프리카연맹 간 공동 프레임워크(the Joint UN-African Union Framework for Enhanced Partnership in Peace and Security)', 'UN평화활동국의 신 지역사회 참여 프레임워크(UN DPKO's New Community-Engagement Framework)' 등을 제시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립서비스가 아님을 증명하고자 노력했다(Ponzio, 2018).

사고에서 비선형적 개념의 틀로 점차 전환했으며, 필요 시 적시 개입이라는 예방적 접근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MDGs에서 SDGs로의 전환이 주요한 계기를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NGOs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주요 이해관계자이자 변혁의 촉매제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Ⅲ. 평화구축 프로세스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쟁점

비국제적 무력 충돌이 빈번해진 1990년대 중반 이후, 평화구축을 위한 전환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가 증대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더구나 북구의 시민사회, 특히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에 전문성을 보유한 북구의 대형 INGOs 중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케어(CARE), 옥스팜(Oxfam), 월드비전(World Vision),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등이 무력 충돌의 과정에서 설립되었고, 이들의 활동 영역이 초기 인도적 지원에서 1970년대에는 지역개발이 주요 임무로 편입되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서는 분쟁국 내 시민사회의 형성과 화해, 옹호와 같은 평화구축의 과업까지 확대되고 있다(Gerstbauer, 2010: 849).

평화구축의 보편적인 정의가 부재한 만큼 복합적 위기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현장의 정황적 맥락에 따라 활동의 범주도 다양해지고,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모호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책임과 의무, 위계에 의한 의사 결정 체계가 규정된 공공 섹터와 달리 비정치성과 자율성, 독립성의 가치를 내포하는 시민사회가 갖는 유연성은 비정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Aall, 1996; Natsios, 1997; Wehr, 1996).

이에 평화구축 프로세스에서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해당 과업에서 INGOs를 중심으로 한 사례를 주로 점검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살펴본 후, 시민사회의 참여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평화구축활동의 영역

UN 내 평화구축활동은 대체로 안정기, 과도기, 통합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각 시기가 명확히 구분되기보다 중복과 회기가 가능한 유동성을 내포하고 있다(De Coning, 2005: 92). 또한 분쟁 당사국에서 배치되어 활동하는 UN임무단 및 국가팀은 활동 지역의 상황이나 안보리의 위임 명령(mandate)에 따라 상이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5가지 분야를 추출한다면 '안보, 정치적 전환·거버넌스·민주화, 사회경제적 개발, 인권-정의-화해, 조정-관리-자원 동원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NEPAD, 2005). 한편, 본부 단위에서 평화구축기금(Peacebuilding Fund)의 심의와 배분을 결정하는 평화구축위원회는 대응과 함께 예방적 성격을 내포하는 4가지 우선순위 영역을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임박한 위협과 평화협약 및 정치적 대화를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에 대응하는 것, ②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공존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역량의 구축과 강화, ③ 경제력 활성화, ④ 필수

공공행정 서비스의 복구'로 구분된다(UN, 2005).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와 같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무관한 동맹국이 주도해 일으킨 무력 충돌 이후 수행된 재건과 안정화 작전의 일부가 평화구축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라크 재건의 사례를 보면, 미국 주도의 동맹국이 추구했던 핵심 영역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그것은 거버넌스, 법치와 사법 분야의 조정, 경제 복구, 필수공공시설의 재건과 기타 개발사업의 조정, 공공외교다(Kwon 2011:145).[7] UN의 평화구축활동과 비교되는 건 역시 공공외교의 영역으로, 현지 치안 상황에 대한 방어적 조치이자 자국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지역사회에 확산한다는 점에서 대비가 된다.

한편, UN기구 중 평화구축을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설정한 UNDP는 SDGs 16번을 단일 목표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17개 목표를 성취하는 핵심요소로 보고 관련 사업을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갈등 예방,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호응적이고 책무성 있는 제도 구현, 법치·정의·치안·인권, 청소년의 권익 강화, 부패 방지,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HIV 및 보건'을 상정했다.[8]

전술한 영역들을 다시 범주화하면, ① 정치와 제도적 영역으로 포용적이면서 민주적 원칙들이 적용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 ② 포괄적인 법치의 영역으로 인권이 보호되고 공정한 사법 집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 ③ 안보의 영역에서 분쟁 당사자들의 해체와 재통합 그리고 치안과 안보를 담당하는 기구들을 총체적으로 재편하는 것, ④ 사회적 영역에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의 안전한 귀환은 물론 여성과 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 그리고 공공서비스 기능의 회복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시경제에서 정상적인 시장경제가 작동하도록 거시·미시경제를 활성화해 평화의 배당(peace dividend)을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제 영역이다. 또한 전술한 평화구축활동의 시기별로 요구되는 활동들을 분류해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갈등과 위기 관리를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중기에는 주로 사회·경제적 활성화와 물리적 시설의 복구가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현지 지역사회의 반목적 태도와 행위, 무기력함의 변화를 추구해 폭력적 갈등 상황으로의 회귀를 차단해야 한다(Peinado, 2003).

7) 비 UN 평화활동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없이 수행되었고, 대테러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대의명분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사회·경제적 제도의 복구가 주요 목표이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체가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UNDP 홈페이지, "Democratic Governance and Peacebuilding" posted on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ebsite, available at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democratic-governance-and-peacebuilding.html (접속일: 2018.11.16.).

2. 평화구축 프로세스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평화구축에 있어 시민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주요 임무(mandate)로 하는 NGOs를 포함해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해야 한다는 전제를 언급한 바 있다.[9] 1990년대 초에는 주로 북구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무력 충돌 이후 지역사회의 재건·복구 임무와 더불어 선결 요건인 복합적인 사회적 갈등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평화구축에 대한 외부적 요구, 즉 공여기구의 필요와 재원이 결부되어 참여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현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평화구축의 적법성과 유용성이 크다는 학계와 북구 시민사회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평화구축활동도 국제적·국가적·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 추진되고, 특히 현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형태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Paffenholz, 2009: 65).

평화구축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은 주로 민주화와 거버넌스에서 요구되는 임무에 기인하는데, 파펜홀츠와 스펄크(Paffenholz and Spurk, 2006)는 선행연구를 통해 7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첫째, 보호 활동으로서 이는 시민사회가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선결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구축에 있어 전제적 정부뿐만 아니라 무장 그룹은 시민사회와 더불어 민간인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시민사회, 즉 인권과 옹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INGOs들과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고(Orjuela 2004: 47), 이를 토대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같은 이니셔티브나 무장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평화구역(peace-zone)의 설정 등이 주효한 활동이 될 수 있다. 또한 물리적인 폭력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평화유지군이나 UN경찰과 같은 공공 행위자의 보호 역할도 일부 요구된다.

둘째, 감시 및 책무성 기반의 활동이다. 감시는 보호와 옹호 활동의 주요 기제이면서도 정부가 민주화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력 있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효과적인 감시는 무력 충돌의 발생이나 회기에 대한 조기 경보의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유효한 활동이다. 마찬가지로, 현지 시민사회와 외부 시민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주요 사례로, 네팔의 인권 단체들이 현지 지역사회와 조력하면서 국제사면기구(Amnesty International)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셋째, 대중 커뮤니케이션을 토대로 한 옹호 활동으로, 평화구축의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9) 물론 이러한 포괄성은 다양한 섹터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상이한 목적의 시민사회 행위자의 목적과 역할 그리고 목표에 대해 제대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Paffenholz, 2009: 65). 다만, 활동과 수단에 있어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과 같은 소위 비시민적(uncivil) 행위를 하는 단체는 예외로 한다.

평화 이슈를 국가 차원으로 의제화하는 데 있어서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현지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한편, 외부 시민사회는 분쟁 당사국의 이슈를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역시 유효하다. 중요한 건, 옹호 활동은 무력 충돌의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력 충돌의 소강 상태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를 위한 대화 채널로 나오도록 대중을 조직화해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평화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공공 행위자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화 체제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스웨덴의 생명평화연구소(Sweden Life & Peace Institute)는 소말리아 사태에 대해 사람 중심의 평화 프로세스, 즉 상향식 해결 방식의 접근에 있어 UN을 포함한 국제사회나 원조기구 조정회의체 및 각종 국제회의에서 호응을 받은 바 있다(Paffenholz, 2003: 56-57).

넷째, 내 그룹 사회화 활동으로 평화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평화적인 갈등 전환과 화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견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화와 수평적 거버넌스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지 시민사회는 평화적 공존을 위한 내 그룹의 태도적 변화와 결집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외부 시민사회는 미디어를 활용한 평화 교육과 갈등 해결 혹은 교섭에 대한 연수를 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제네바에 기반한 국제분쟁사회사업(International War-torn Society Project)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각 그룹의 평화적 노력과 이해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먼저 착수했다.

다섯째, 갈등에 민감한 사회적 응집력 증진 활동이다. 내 그룹 사회화가 동일 집단 내 활동이라면 사회적 응집력 강화는 이전 혹은 현재 반목적 위치에 있는 집단 간의 화해와 협력에 방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종의 반목 집단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한다든지, 유사한 사회적 위치나 직종 간 연합 조직을 설립하거나 공동 문화행사 등을 주선하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다민족 사회에서 기업, 노동조합 혹은 기타 사회단체를 통한 공동의 활동이 폭력적 갈등을 통제하는 데 유효했다고 밝혀진 바 있다(Varshney, 2002: 46).

여섯째, 평화구축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층위에서 요구되는 중재의 역할이다. 물론 정부 간 혹은 정부와 무장 그룹 간 중재와 같은 공식적 중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하위 지역 단위에서는 그러한 역할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무장 그룹 간, 무장 그룹과 지역사회 간, 무장 그룹과 인도적 지원기구 간 등 공식적·비공식적 중재도 포함된다. 실례로, 엘살바도르의 내전 기간 동안 교회 단체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백신 캠페인을 전개하고, 평화 구역 혹은 무력 사용 금지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 간 중재에 참여해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Kurtenbach and Paffenholz, 1994).

일곱째, 필수적 서비스의 공급 역할이다. 물론 이 역할이 기본적으로 정부나 기업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본원적 역할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무력 충돌로 인한 정부와 시장 기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간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민사회에 있어 또 하나의 분리된 역할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Barnes, 2005). 특히 시민사회의 지원 서비스 역할은 현지 평화구축활동의 진입에 용이한 진입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여 기구들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Anderson, 1999). 또한 스리랑카의 북부에서 정부군과 무장 그룹, 타밀엘람 해방 호랑이(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 간 휴전 직후에 착수된 긴급 교육 서비스 사업은 이전에 대화 채널이 부재한 분쟁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구 단위 사업위원회를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했다(Paffenholz, 2003).

〈표 2〉 시민사회의 평화구축활동 비교

시민사회의 역할	활동 내용	추진 시점
보호 활동	모든 무력 행위자로부터 보호	무력 충돌 중
감시 및 책무성 기반 활동	인권 관련 정부 및 무장 그룹의 감시와 조기 경보 연계 활동	무력 충돌 중 / 보호 및 옹호와 연계 시 효과
대중 커뮤니케이션 기반 옹호 활동	지역의 이슈를 국가적 의제화로 연계하고, 평화 절차에 참여 기반 마련	무력 충돌의 전 과정
내 그룹 사회화 활동	평화적 풍토와 화해에 대한 내 그룹 태도의 변화 유도 및 촉구	무력 충돌 이후
갈등 반영 사회적 응집력 증진 활동	반목 그룹 간 접점과 교류 기반 마련	무력 충돌 중에도 가능하나 이후에 유효
중재 활동	정부와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간 교섭	무력 충돌 중이나 이후
필수적 서비스 제공 활동	이해관계자가 모두 공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교두보로 삼아 평화구축으로 진전	무력 충돌 이후

출처: Paffenholz and Spurk (2006), p.32를 참고해 저자가 재구성

3. 주요 쟁점

평화구축의 맥락에서 볼 때, 시민사회는 평화를 통한 안정화의 중요한 행위자이자 무력 충돌에서 평화구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한편, 평화활동과 평화구축이 이행되는 현장에서 NGOs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개입에 대해 우려와 비판적인 입장도 감지되고 있다.

첫째, 분쟁 당사국 및 지역사회의 맥락과 내재된 이해관계의 심도 있는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외부 시민사회, 즉 서구 시민사회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오류다. 폴러니(Pouligny, 2005)는

외부자들은 현지 시민사회의 복잡한 다양성을 간과함으로써 현지인들을 지원하고 또 권한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실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서구적 관점에 기인한 시민사회의 개념이 현지 지역사회에 부재하거나 맥락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평화구축의 단기와 중·장기 목적의 불일치 혹은 비대칭의 문제로 인해 주로 서비스 기반의 NGOs 활동에서 제기되는 쟁점이다. 전술한 대로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역할은 다분히 복합적이고 또 상호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토대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원뿐만 아니라 의지도 중요하다. 서비스 기반의 NGOs는 공여 기구의 목적과 재원 확보라는 외부적 요인에 민감하다 보니 현지의 실제적인 요구보다 자체적인 역량과 공여 기구의 의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평화구축에 있어 중·장기 서비스 공급이 때로 분쟁을 예방하기보다 불공정하고 또 전시경제를 연명하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Carey, 2003).

셋째, 평화구축 과정에서 생성된 현지의 시민사회,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성과 편중된 자원의 문제다. 이들의 회원 기반이 제한적일 경우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어렵고, 다민족 국가의 맥락에서 볼 때 민족별 구성도 현안이 될 수 있으며 또 정치계와 시민사회계의 구분이 모호한 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정치적 결사체와 암묵적으로 연계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지 시민단체는 지역사회보다 주로 재원이 제공되는 외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책무성에 천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평화 절차에서의 주인 의식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볼 때 내부 동력의 약화와 종속적 위치에 머무르게 하는 동인이 된다(Belloni, 2001).

Ⅳ.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 현황과 과제

1980년대 중반, 한국의 시민사회는 재편을 통해 민주주의를 견인하면서 '동원적 시민사회'를 형성했고, 민주화 정부 이후에는 급속한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통해 '제도적 시민사회'를 창출했다(임혁백, 2009). 한국 시민사회의 한 축인 개발협력계의 시민사회는 이보다 늦은 1990년대 초, 한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던 것과 맥을 같이하며 제도화가 진행되었다.[10] 이로써 빈곤·보건·교육·인권 등 초국적인 이슈들, 불공정한 글로벌 공공재의 분배와 남용에 대한 대안적 행동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개발협력의 인력 생태계에서 양질의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직종의 전문화가 일정 부분 이뤄졌으며, 공적 재원인 ODA 이외에 개인 모금과 기업의 후원을 포함한 개발 재원이 증대되면서 시장화가 동시에 이뤄졌다(양동휘, 2015). 그러나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양적인 성장 이면에 인적·물적 자원 등 규모적인 측면의 양극화가 현안으로 대두되었고(손혁상·신재은·이주희, 2011), 시민사회의 내외부에 걸쳐 질적 제도화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적 가치에 천착했던 주류 시민사회와 달리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주로 교육과 보건, 인프라 등 개발도상국 내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 분야에 집중해 왔다. 반면, 탈정치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현안에 따라 개발도상국 현지 정부와 긴장 관계 형성이 불가피한 분야, 즉 SDG16에서 제시하는 평화와 인권, 포용적 제도에 대해서는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SDG16 목표 중 평화에 직접 해당하는 '분쟁, 평화, 치안' 분야의 사업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건과 2015년에 2건으로 나타났다. 이때 사업비는 각각 3천4백만 원과 9천6백만 원으로 0.1%에 해당하며, 평화구축의 도입 기제로 간주될 수 있는 긴급 구호와 재건 구호는 2015년도 기준 176건으로 8.1%이고, 사업비는 114억 원으로 23.5%에 해당된다(KCOC, 2016). 이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총 5분기에 걸친 SDG16 목표의 사업 현황 분석을 볼 때 평화와 관련된 사업은 총 13건인데 비해 인권은 17건, 민주적 거버넌스는 85건으로 나타나 평화 부문에 대한 관심과 재원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곽재성 외., 2018: 140-148).

10) 2016년 기준,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KCOC)의 회원 단체가 총 127개이고, 상근 및 비상근 인력을 포함해 9,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모금액 1조 8천억 원 중 5,227억 원이 개발협력사업에 투입되었다(KCOC 홈페이지, http://www.ngokcoc.or.kr/theme/kcoc/03/society04.php)(접속일: 2018.11.19.).

한편, KOICA는 올 2월에 발표한 10대 혁신 중점과제 중 제3번 과제로 '평화, 인권, 민주주의성 평등 등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를 선정함으로써 한국 개발협력계의 평화구축과 지속적인 평화의 의제화를 선점했다. 그리고 이행 방안에 따른 연구를 수행해 'SDG16의 대상화 이행 강화 방안'과 'SDGs 주류화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이행 전략 중 하나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제시했다(곽재성 외., 2018).

이는 분명히, 개발협력 시민사회에는 도전적인 상황이다. 우선, 시민사회운동의 존재론적 가치로 여겨지는 평화와 민주화의 담론이 공공기관에 의해 먼저 주창되고 의제화되었다는 사실은 개발협력 시민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SDG16 목표가 자체 이행의 범위를 넘어 연관 목표들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유관 분야의 민관 협력 파트너십과 더불어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개발협력 시민사회가 차지하고 있는 선도적 지위만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화와 인권, 민주화와 거버넌스 분야에서 활동했던 시민사회에는 한국에서 민주적 제도화에 기여한 지식과 경험을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해 공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초국적 시민사회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구 공여국의 경우에는 개발협력 분야에 다양한 층위의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여 기관도 서비스 공여 이외에 협력국의 민주화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 단체들과 유연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개발협력의 지식과 현지 지역사회의 경험들이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렵다는 점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가운데 한국의 시민사회가 SDG16과 연계된 평화구축과 지속적 평화의제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개발협력 시민사회 단체와 평화·인권·민주화에 기반한 시민사회 단체 간 SDG16의 이행을 위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혹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과 같이 기존 협의체가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대는 KOICA가 설정한 평화의제의 이행 방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시민사회 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과 더불어 SDG16의 이행에 대한 감시와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분쟁·취약국을 대상으로 평화구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인식 제고와 인적 자원 및 역량의 개발이다. 먼저, 서구의 개발협력 시민사회 사례를 보면, 1990년대 당시 UN과 공여 기관 등 외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내재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미션과 인식을 재정의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정황 해석 오류와 지역사회 갈등의 몰이해, 전통적 개발 방식의 접근은 개입에 대한 영향력의 부재와 갈등의 악화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 제공의 역량을 토대로 전술했던 평화구축 관련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KOICA는 SDG16과 연관된 프로그램이나 민관 협력 사업을 컨소시엄형으로 설계해 개발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층위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발 컨소시엄 기금사업(UK Aid Connect)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동 사업은 개발협력 주체의 컨소시엄을 통해 통합적 역량을 도모해 개발 문제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시민사회 단체와 고등교육기관, 기업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휴를 하는데, 최소 3백만 파운드에서 9백만 파운드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필요할 경우에는 민관 협력 플랫폼을 마련해 형성과 기획, 추진 과정에서 협업의 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분쟁·취약국의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과 초국적 네트워크의 힘이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재래 무기 군축 문제와 인권·인도적 지원 및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의 해결 방안 도출을 촉구하고, 남북 당국과 이해 당사국을 논의의 장에 유인한 후 협의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SDG16의 국내 이행과 관련해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현 정부는 금년 2월, 정부의 운영을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두는 전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에 초점을 맞춰 인권·안전·환경·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실현하는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액션 플랜을 수립했다. 또한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로드맵을 제시하고 이행 중이다. 이러한 전향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제도적 민주화와 한반도의 평화 이니셔티브의 결행에 따른 대중적 참여와 지지를 촉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제 SDG16의 실제적 이행이 절실한 분쟁·취약국을 대상으로 평화구축과 지속적 평화를 위해 한국 정부와 개발협력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가 연대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탈정치적인 입장에서 선회해 현장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축적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 경험을 토대로 평화구축 역량을 개발하고, 갈등 감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인권·민주화에 기반한 시민사회는 개발협력 시민사회 혹은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분쟁·취약국의 지역 단위에서 균열되고, 반목적인 사회가 화해를 통해 응집력을 강화하고 민주적 거버넌스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현지 시민사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한국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SDG16 이행 협의체를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시민사회 차원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평화구축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분쟁·취약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제도적 차원에서 대상 국가들이 주로 적색경보나 흑색경보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접근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건, 평화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사회가 불안정한 치안 환경에서 활동할 경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차량, 무전기, 안전가옥,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주기적 휴가, 긴급후송계획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적용하기 위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모 사업이나 민관 협력 사업에 한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 관련 비용을 인정하는 등 제반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곽재성·이성훈·홍문숙·윤지영·김수진·송수전·김은영·장아영·정원선·박진아. 2018.『SDGs 16 달성을 위한 KOICA 이행방안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김수진. 2015.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촉진, 사법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지속가능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pp.309-330.

임혁백. 2009.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부활과 지속적 발전."『OUGHTOPIA』 24(1): 137-169.

양동휘. 2015. "한국 국제개발NGO의 제도화 과정."『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5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2015.12.18-19, 서강대학교).

손혁상·신재은·이주희. 2011.『한국 개발 NGO 역량현황 기초조사 및 역량강화 방안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KCOC. 2016.『2015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서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Aall, Pamela. 1996.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eacemaking." pp.433-443 in *Managing Global Chaos Sources of and Responses to International Conflict,* edited by Chester A. Crocker, Fen Osler Hampson, and Pamela Aall.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Anderson, Mary B. 1999. *Do No Harm: How Aid Can Support Peace or War.*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Barnes, Catherine. 2005. "Weaving the Web: Civil-Society Roles in Working with Conflict and Building Peace." pp.7-24 in *People Building Peace II, Successful Stories of Civil Society,* edited by Paul van Tongeren, Malin Brenk, Marte Hellema, and Juliette Verhoeven.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Bellamy, Alex J., Paul D. Williams, and Stuart Griffin. 2004. *Understanding Peacekeeping.* Cambridge: Polity Press.

Belloni, Roberto. 2001. "Civil Society and Peacebuilding in Bosnia and Herzegovina."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38(2): 163-80.

Carey, Henry F. 2003. "Conclusion: Ngo Dilemmas in Peace Processes."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10(1): 172-179.

Crocker, Chester A., Fen Osler Hampton, and Pamela All. 2001. *Turbulent Peace: The Challenges of Managing International Conflict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De Coning, Cedric. 2005. "Civil-Military Coordination and UN Peacebuilding Operations." *African Journal on Conflict Resolution* vol.5(2): 89-118.

Diehl, Paul F. 1998. *Peace Operations: War and Conflict in the Modern World.* Cambridge: Polity Press.

Diehl, Paul F., Daniel Druckman, and James Wall. 1998. "International Peacekeeping and Conflict Resolution: A Taxonomic Analysis with Implic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42(1): 33-55.

Galtung, Johan. 1976. "Three Approaches to Peace: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pp.282-304 in *Peace, War and Defense: Essay in Peace Research, Volume II.* Copenhagen: Christian Ejlers.

Gerstbauer, Loramy Conradi. 2010. "The Whole Story of NGO Mandate Change: The Peacebuilding Work of World Vision, Catholic Relief Services, and Mennonite Central Committe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39(5): 844-865.

James, Alan. 1990. *Peacekeep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MacMillan.

Kurtenbach, Sabine, and Thania Paffenholz. 1994. "Kirchen können in Kriegen vermitteln." *Der Überblick* vol.3(94): 16-119.

Kwon, Goo Soon. 2011. "Civil-Military Cooperation of the U.S.-led Post- conflict Reconstruction in Iraq: The Case Study of the Regional Reconstruction Team for Iraqi Kurdistan."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Lederach, John Paul. 1997.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Mani, Rama, and Richard Ponzio. 2018.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nd Conflict Prevention." In *The Oxford Handbook on the United Nations,* edited by Thomas G. Weiss and Sam Daw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vailable at https://www.stimson.org/sites/default/files/Ch.%2018-Mani%20%20Ponzio.pdf (접속일: 2018.11.15.).

Natsios, Andrew S. 1997. “An NGO perspective.” pp.337-361 in *Peacemaking in International Conflict: Methods and Techniques,* edited by I. William Zartman and J. Lewis Rasmusse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NEPAD. 2005. “African Post-Conflict Reconstruction Policy Framework.” Midrand: NEPAD Secretariat.

OCHA. 2018. “Annual Report 2017.” Genev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ECD. 2011.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Can We Do Better?.”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rjuela, Camilla. 2004. “Civil Society in Civil War, Peace Work and Identity Politics in Sri Lank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öteborg.

Paffenholz, Thania. 2001. “Western Approaches to Mediation.” pp.75-81 in *Peacebuilding: A Field Guide,* edited by Luc Reychler and Thania Paffenholz. Bouler: Lynne Rinner Publishers.

_____. 2003. “Community-based Bottom-up Peacebuilding.” In *The Development of the Life and Peace Institute's Approach to Peacebuilding and Lessons Learned from the Somalia Experience (1990-2000).* Uppsala: Life and Peace Institute.

_____. 2009. “Civil Society.” pp.60-73 in *Post-conflict Peacebuilding: A Lexicon,* edited by Vincent Chetai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affenholz, Thania, and Christoph Spurk. 2006. “Civil Society, Civic Engagement, and Peacebuilding.” Social Development Paper, no.100 and Conflict Prevention and Reconstruction Paper, no.36. Washington D.C.: World Bank.

Peinado, Manuela M. 2003. “The Role of NGOs and the Civil Society in Peace and Reconciliation Process.” Madrid: Centro de Investigacion para la Paz.

Ponzio, Richard. 2018. “The UN’s new “Sustaining Peace” Agenda: A Policy Breakthrough in the Making” posted on Stimson Center website on 23 February, 2018, available at https://www.stimson.org/content/un-new-sustaining-peace-agenda-policy-breakthrough-making (접속일: 2018.11.15.).

Pouligny, Béatrice. 2005. “Civil Society and Post-Conflict Peacebuilding: Ambiguities of International Programmes Aimed at Building ‘New’ Societies.” *Security Dialogue* vol.36(4): 495-510.

Reychler, Luc, and Thania Paffenholz (eds.). 2001. *Peacebuilding: A Field Guide.* Bouler: Lynne Rinner Publishers.

Suhrke, Astri, and Torunn Wimpelmann Chaudhary. 2009. “Conflict and Development.” pp.406-424 i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edited by Paul Alexander Haslam, Jessica Schafer, and Pierre Beaudet. Ontario: Oxford University Press.

Talentino, Andrea Kathryn. 2004. “One Step Forward, One Step Back?: The Development of Peacebuilding as Concept and Strategy.” *Journal of Conflict Studies* vol.25: 33-60.

UN. 1945.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United Nations.

___. 1992. “An 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Pursuant to the Statement Adopted the Summit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on 31 January, 1992, A/47/277-S/24111, 17 June, 1992.

___. 2000. “Report of the Panel o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Brahimi Report). General Assembly and Security Council, A/55/305-S/2000/809, 21 August 2000.

___. 2005. “The Peacebuilding Commission.” General Assembly, A/RES/60/180, 30 December, 2005.

___. 2006. “Arrangement for Establishing the Peacebuilding Fund.”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General Assembly, A/60/984, 22 August, 2006.

___. 2015. “Report of the High-level Independent Panel on Peace Operations on Uniting our Strengths for Peace: Politics, Partnership and People.” A/70/95-S/2015/446, 17 June 2015.

___. 2018. “Peace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A/72/707-S/2018/43, 18 January, 2018.

Varshney, Ashutosh. 2002. *Ethnic Conflict and Civic Life: Hindus and Muslims in Ind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Wallensteen, P. 2017. “Wars, Civil Wars and Armed Conflict. Pattern, Trends and Analytic Paradigms.” pp.253-271, in *States and Peoples in Conflict: Transformations of Conflict Studies,* edited by Michael Stohl, Mark I. Lichbach, and Peter Grabosky. London: Routledge.

Wehr, Paul. 1996. “The Citizen Intervenor.” *Peace Review* vol.8: 555-561.

KCOC 홈페이지.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활동현황.”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활동현황 안내 페이지. http://www.ngokcoc.or.kr/theme/kcoc/03/society04.php (접속일: 2018.11.19.).

UN Peacekeeping 홈페이지. “Our History” posted o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website, available at https://peacekeeping.un.org/en/ our-history (접속일: 2018.11.14.).

UNDP 홈페이지.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building” posted on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ebsite, available at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ourwork/democratic-governance-and-peacebuilding/conflict-prevention-and-peacebuilding/ (접속일: 2018.11.15.).

_____. “Democratic Governance and Peacebuilding” posted on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ebsite, available at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democratic-governance-and-peacebuilding.html (접속일: 2018.11.16.).

II

섹터포커스

1. SDGs 직업 역량 핵심지표인 ICT 역량 제고를 위한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동향 및 개발협력 수요

서정희(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양혜경(KOICA 사업품질성과관리팀 차장)

2. 예산지원(Budget Support)의 최신 동향과 과제

고요한(KOICA ODA연구정보센터 연구원)

SDGs 직업 역량 핵심지표인 ICT 역량 제고를 위한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동향 및 개발협력 수요

서정희(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양혜경(KOICA 사업품질성과관리팀 차장)

목차

Ⅰ. 서론

Ⅱ. 에스토니아 국가 및 교육의 개요
1. 에스토니아의 교육 일반
2. 에스토니아의 교육정보화

Ⅲ. 에스토니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1. ProgeTiger 프로그램의 목표
2. ProgeTiger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3. ProgeTiger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 연수

Ⅳ.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1.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
2. 한국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 및 내용
3.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Ⅴ. SDGs와 개발도상국 ICT 교육
1. 초 · 중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ICT 활용 지원 모델
2.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ICT 활용 지원 모델
3. 직업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ICT 활용 지원 모델

Ⅵ. 결론

참고 문헌

요 약

교육 분야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을 위한 적절한 스킬을 갖춘 청년 및 성인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하위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21세기 필수 역량으로 청소년과 성인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이하 ICT)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지표로 선정한 바 있다.

ICT교육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인 에스토니아와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 동향을 소개하며, ICT 역량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기술교육 차원을 넘어서 학습자의 컴퓨팅 사고력 증진과 일상생활 및 직업 세계와 연계된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확산・발전되는 추세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적인 화두와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 청소년 세대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의 체제 변화는 단지 선진국뿐이 아닌 개발도상국에도 당면과제로 인식된다.

개발도상국에서 적용 가능한 ICT교육 모델에 기반을 두고 SDGs에서 추구하는 학습자의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향상할 수 있는 ICT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매개자인 교사의 ICT교육 역량을 강화해 수업 방법에 대한 혁신과 질을 높이는 것을 추구한다.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이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Ⅰ. 서론

교육 분야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을 위한 적절한 스킬을 갖춘 청년 및 성인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하위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21세기 필수 역량으로 청소년과 성인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이하 ICT)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지표로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ICT교육 분야의 비교우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디지털 격차 경감을 위해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주로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의 ICT 접근성 제고, ICT 활용 교수학습, 이러닝 기반 구축, ICT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초·중등교육에서 ICT 활용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의 ICT 소양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나,[1] 최근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2]에 따른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CT활용교육을 넘어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2018학년도부터 중학교, 2019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3]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컴퓨팅 사고력의 신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로 프로그래밍교육, 코딩교육, 컴퓨터교육, ICT교육 등 다양한 용어로 언급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도 ICT 기반 구축이나 ICT 기본 소양교육 차원을 넘어 로보틱스교육, 그래픽디자인교육 등 지식정보 분야의 직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우수한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분석해 ICT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스펙트럼을 확장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1) 2009 OECD PISA DRA(디지털읽기능력평가) 결과 세계 1위
2)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소프트웨어가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는 사회
3) 교육부 보도자료,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보도일자: 2016.12.02.)

II. 에스토니아 국가 및 교육의 개요

에스토니아는 소프트웨어 강국 및 스타트업 국가라는 별칭이 있으며, 북유럽의 디지털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발트 3국 중 하나로 독일, 스웨덴, 러시아 등 수많은 외세의 침략(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외침과 핍박을 받은 나라라고도 함)을 받았음에도 고유의 언어와 민족성을 유지해 왔다는 점은 강인한 민족성을 대변한다. 지형적으로 볼 때 에스토니아는 북쪽과 서쪽은 발트해, 동쪽은 러시아, 남쪽은 라트비아와 닿아 있으며, 수도는 탈린이다. 정식 명칭은 에스토니아공화국(에스토니아어: Eesti Vabariik 에스티 바바리크)으로, 1939년 소련에 편입되었다가 1988년부터 소련을 상대로 벌인 노래혁명(Singing Revolution)[4]을 통해 독립했다. 국토는 남한 면적의 1/2보다 조금 작으며, 인구는 130만 정도다. 또 수도인 탈린에 45만 정도가 밀집되어 있어 국토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밀도가 낮다. 민족 구성은 약 70%가 에스토니아인이고 또 20% 정도가 러시아인이며, 공용어로는 에스토니아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의회는 단원제로,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에스토니아는 구 소련을 구성하던 15개 공화국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며, 유로존에서 정부 공공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자 발트 3국 중에서는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세금경쟁력지수 1위(OECD), 기업가정신 1위(WEF), 인터넷 자유도 1위(FREEDOM HOUSE), 모바일네트워크커버리지 1위(Global IT Report) 등으로 기술 기반의 경제·사회 구축의 좋은 모델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보편적 의료, 무상교육,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유상 출산휴가(146주)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디지털 사회로서 2005년에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실시했고, 2008년에는 eHealth System, 2011년에 Smart Grid, 2014년에 eResidency와 Data Embassy 서비스를 개시했다(e-Estonia, 2017).

이처럼 에스토니아의 놀라운 성장에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IT)"을 국가가 주도해 나갈 미래핵심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한 정부 지도자들의 식견이 있었다. 2006년부터 2016년도까지 에스토니아의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4) 1989년 5월 발트 3국은 '발트총회'를 창설해 소련연방정부에 "불법 점령 사실을 인정하고 독립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며, 1989년 8월 23일 오후 7시에는 발트 3국의 수도로 이어지는 620km의 발트의 길(인간 사슬)을 만들고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는 노래를 불렀다.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시민이 나와 손에 손을 맞잡고 합창을 했다. 누구나 촛불로 서로 격려하고 노래로서 서로 마음을 달랬다. 노래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무기이자, 오랜 핍박 속(13세기 초부터 700년 동안)에서도 자신과 가족 그리고 후손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장치였다.

일베스(Toomas Hendrik Ilves)가 대표적 인물이다. 1991년 구 소련으로부터의 독립과 동시에, 에스토니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봉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1998년에 전국의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시켰고, 이후 1998년에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저비용·고효율을 실현하기 위한 IT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외국의 도움 없이 자국의 전문가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에스토니아의 IT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카이프(Skype)'라는 화상통신 소프트웨어는 3명의 에스토니아인에 의해 개발되었고, 사이버네티카(Cybernetica), 가드타임(Guardtime)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여러 IT 기업이 에스토니아를 대표하고 있다.

한편, 2017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전략포럼에 참석한 일베스 전 에스토니아 대통령에 의하면, 2007년 에스토니아 기간전산망이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되는 사건을 계기로 에스토니아는 범정부 차원에서 코딩교육 강화, 정부 시스템 개혁 등 디지털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해킹에도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부가 데이터를 조작한다는 의혹도 사라지게 해 디지털 정책의 집행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에스토니아에서는 2005년부터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의원 선거에서는 30% 이상이 온라인 투표로 참여했다. 결혼, 이혼, 주택 거래 외 대부분의 서비스를 아이디카드(ID card) 하나로 이용할 수 있으며, iBanking, eHealth, ePolice, ePrescription, eSchool, eResidency 등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에스토니아의 사회적 인프라와 공공 시스템은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디지털 사회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1. 에스토니아의 교육 일반

에스토니아의 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 모든 이에게 평등한 교육 서비스 제공,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요약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of Estonia, 2014). 국가는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각 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과목과 내용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고 또 학교 운영의 전반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한다. 에스토니아의 높은 학업적 성취는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유럽에서 1위(OECD, 2018)를 통해 입증되었고, 이는 자율적이고 평등한 학교 운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에스토니아 전문가는 주장한다(Laanpere, 2018).

〈그림 1〉 2015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Science		Reading		Mathematics	
	Mean score in PISA 2015	Average three-year trend	Mean score in PISA 2015	Average three-year trend	Mean score in PISA 2015	Average three-year trend
	Mean	Score dif.	Mean	Score dif.	Mean	Score dif.
OECD average	493	-1	493	-1	490	-1
Singapore	556	7	535	5	564	1
Japan	538	3	516	-2	532	1
Estonia	534	2	519	9	520	2
Chinese Taipei	532	0	497	1	542	0
Finland	531	-11	526	-5	511	-10
Macao (China)	529	6	509	11	544	5
Canada	528	-2	527	1	516	-4
Viet Nam	525	-4	487	-21	495	-17
Hong Kong (China)	523	-5	527	-3	548	1
B-S-J-G (China)	518	m	494	m	531	m
Korea	516	-2	517	-11	524	-3

출처: OECD (2018)

에스토니아의 일반적인 교육 체제는 아래 <표 1>과 같다(신승기·배영권, 2015). 유치원에서 초등 및 중등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 수준의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 체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6-3-3제를 택하고 있다.

〈표 1〉 에스토니아의 교육 체제

나이	학년	학교급	
24~26		대학(박사과정)	
22~23	16–17	대학(석사과정)	
19~21	13–15	대학(학사과정)	
16~18	10–12	상위 중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13~15	7–9	초등학교(Primary)/ 기본학교(Basic School)	3단계(Third stage)
10~12	4–6		2단계(Second stage)
7~9	1–3		1단계(First stage)
3~6		유치원	

출처: 신승기·배영권 (2015)

단지, 초·중·고등학교나 초·중학교가 하나의 학교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에스토니아에는 530여 개의 학교가 있으며, 그 중에서 1~9학년이 하나의 학교로 연결된 학교(초·중 연계)가 290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1~12학년이 하나의 학교로 연결된 학교(초·중·고 연계) 수도 143개교에 이른다.

에스토니아의 교육은 취학 전 교육, 기본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뉜다. ① 취학 전 교육(Pre-School Education)은 18개월에서 만7세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각 아이들의 개성을

고려해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② 기본교육(Basic Education)은 초등학교(Primary School, 1~6학년)와 기본학교(Basic School, 1~9학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한다. 기본 교육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에스토니아어, 수학, 학생 선택과목, 창의적인 과제(creative assignment)로 구성된 3개의 기본학교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기본학교 이후에는 상위 중등학교(Upper-secondary school)에서 교육을 받거나, 직업교육 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기도 한다. ③ 일반적인 중등교육은 상위 중등학교 수준에서 받을 수 있다. 상위 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재능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또 신뢰성을 갖춘 시민이 되게 하는 데 목표를 둔다. 상위 중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96개의 개별 과정을 이수하고, 에스토니아어, 수학, 외국어로 구성된 국가시험과 학생 개인의 연구 논문 및 실습 활동을 포함한 상위 중등학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도 우수한 교사의 질을 교육의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다(Laanpere, 2018). 에스토니아 중등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우수한 교육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HITSA, 2016). 이러한 우수한 교사의 질은 구 소련 체제에서도, 현재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체제에서도 에스토니아가 다양한 교육적 혁신을 시도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2. 에스토니아의 교육정보화

에스토니아는 e-Estonia라고 불릴 정도로 정보화가 잘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에스토니아는 교육 분야에서 ICT를 필수적인 교육 및 학습 환경으로 보고, 타이거립(Tiger Leap) 재단을 필두로 에스토니아의 교육정보화를 이끌어 왔다(김현철, 2015). 1996년 에스토니아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 Tiger Leap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초기에 학교의 물적 인프라 구축과 ICT 활용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후반으로 가면서는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쿨리에루(koolielu)[5]와 같은 교육자료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포털 서비스를 비롯해 EU의 다양한 교육혁신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재단에서 추진한 대표적 프로젝트인 '프로게티케르(ProgeTiger)'는 저학년 중심의 로보틱스 수업부터 시작해 코딩이라고 일컫는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했다.

이후 Tiger Leap 재단과 에스토니아 IT 재단 및 에스토니아의 교육연구 네트워크인 EENet의

5) Koolielu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s://koolielu.ee/ (접속일:2018.09.12.)

합병을 통해 에스토니아의 통합 IT교육재단인 힛사(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for Education, 이하 HITSA)[6]가 2013년에 확대·출범했다. HITSA는 에스토니아의 IT교육 진흥 및 관련 전문가 육성 기관으로, 에스토니아의 모든 IT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중추로서 각 기관에 IT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적용을 지원하고 또 관련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를 진행한다. HITSA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 ICT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온라인 연수 30%와 오프라인 연수 70% 정도로, 200개가 넘는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2017년 겨울 기준). 아울러 교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웹 기반 또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운영함으로써 ICT 전문 교사와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 학습관리시스템, ICT 교육개발센터, 혁신센터(교재 개발, 교사 육성)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에스토니아의 다양한 온라인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노브(INNOVE)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교사 자체평가(교사가 디지털 능력을 스스로 평가)와 학교 자기평가, 학생 대상 e-test 등과 관련한 도구 개발 및 평가 실시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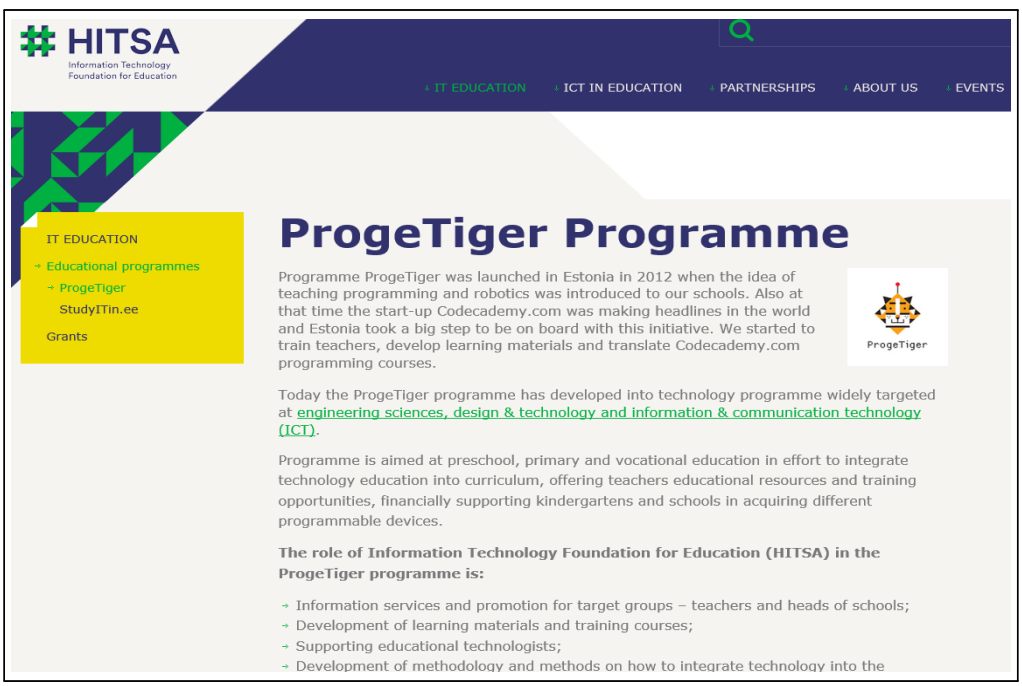
HITSA와 함께 에스토니아의 교육정보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INNOVE[7]는 2003년도에 설립된 에스토니아의 교육부 산하기관으로서 약 500명 정도의 규모로, 에스토니아 전역에 15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INNOVE에서는 에스토니아의 국가 교육과정 연구 및 실행, 교사 교육, 평생교육, 표준화 시험도구 제공(e-평가 포함) 등 국가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 말에 발표된 2015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 결과에서 에스토니아가 종합적으로 유럽 1위, 세계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얻어 INNOVE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위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INNOVE는 에스토니아의 교육을 넘어 EU를 비롯한 여러 다른 정부 산하기관과도 상호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영향력이 많은 재단이다.

6) HITSA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s://www.hitsa.ee/ (접속일:2018.09.12.)
7) INNOVE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s://www.innove.ee (접속일: 2018.09.12.)

Ⅲ. 에스토니아의 소프트웨어 교육

에스토니아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과거 에스토니아의 IT 정책을 이끌던 Tiger Leap 재단에서 2012년에 실시한 ProgeTiger라는 프로젝트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준별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었다(김상민, 2018). 에스토니아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심에 있는 ProgeTiger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그림 2〉 HITSA의 ProgeTiger 프로그램 소개 화면



출처: HITSA의 ProgeTiger 프로그램 안내 화면 (https://www.hitsa.ee/it-education/educational-programmes/progetiger) (접속일: 2018.09.12.)

1. ProgeTiger 프로그램의 목표

ProgeTiger(Programming Tiger)는 단순히 소프트웨어(software, SW) 활용에서 정보교육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며, 아래의 4가지 목표로 두고 있다(김민자·김자미·김현철,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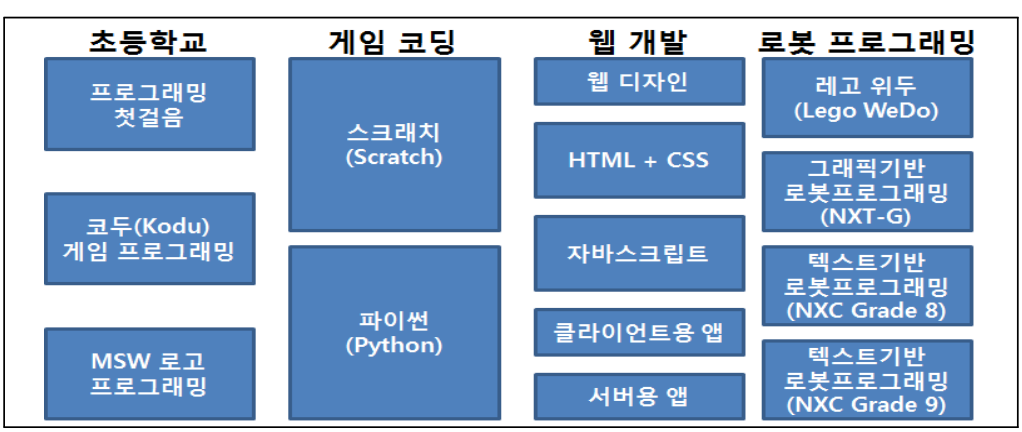
- 학생의 논리적 사고, 창의성, 수학 역량 등을 개발시킨다.
- 프로그래밍이 흥미롭고 누구나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실제적인 활동(practical activity)을 통해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가르친다.
- 학생들에게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가르친다.

즉, ProgeTiger 프로그램은 학생의 흥미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력 향상에 초점을 두며, 무엇보다도 실생활 연계를 강조한다. 여기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프로그래밍 교육이 시작되어야 함을 피력하며,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 책임자에 의하면, 프로그래밍 교육의 목적은 프로그래머를 길러 내는 것이 아니라,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여건을 조성하고 또 이해를 돕움으로써 직업 선택의 기회와 배움의 즐거움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한다(신승기·배영권, 2015). 이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와 운영에 있어서 그 방향성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선진 사례를 조사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나라가 에스토니아이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ProgeTiger의 상세 내용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a).

2. ProgeTiger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ProgeTiger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은 4개의 테마로 나누어 제시되며, 그 내용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ProgeTiger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과정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a)

그리고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수준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법을 배우고, 이후에는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과 웹 개발 과정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년별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에스토니아의 소프트웨어 교수학습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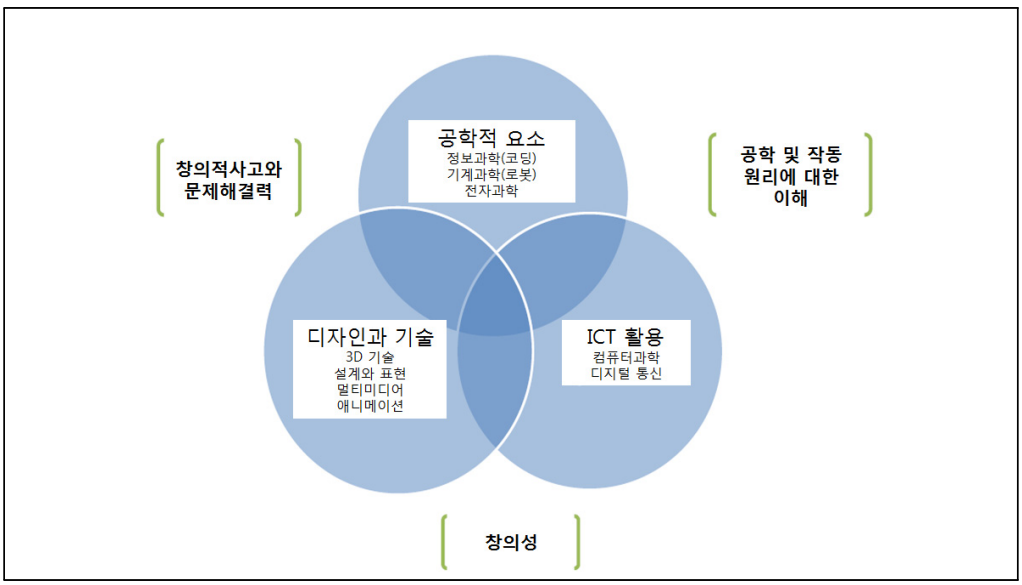
학년	교수학습 내용
1~4학년	• 프로그래밍에 친숙해지기 –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법 익히기 – 논리적 추론과 사고 과정이 포함된 게임하기 •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언어 사용하기 – Kodu, Logo, Scratch
5~9학년	• 레고 로봇 활용하기 – 그래픽 기반의 레고 로봇 프로그래밍언어인 NXT-G에서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NXC로 전이하기 • 웹 기반 프로그래밍언어 활용하기 – 웹사이트 및 웹프로그램 개발하기
10~12학년	• 웹 기반 프로그래밍언어 활용하기 – 웹사이트 및 웹프로그램 개발하기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a)

초등학교 1~4학년에서는 논리 및 사고와 관련한 게임 등을 통해 프로그래밍에 친숙해지기 위한 활동과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또 5학년에서 9학년 과정에서는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언어에서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언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바뀌면서 웹사이트나 웹프로그램(어플)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웹사이트 제작 및 웹프로그래밍 제작 활동을 한다.

한편, ProgeTiger 프로그램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보다 집중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아래 <그림 4>와 같이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했다(HITSA, 2015).

〈그림 4〉 ProgeTiger 프로그램의 접근(교수학습 모형)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a)

위 소프트웨어 교육 프레임워크를 보면, ProgeTiger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ICT 리터러시와 디지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3개의 프레임을 조합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교육에서 강조했던 ICT 활용 또한 간과되거나 무시되지 않고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로 작동하고 있으며, 문제해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이나 로보틱스 등을 활용하는 공학적 지식과 이해의 활용,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설계와 아이디어의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해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은 ICT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물론 창의와 협력을 통한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함양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설정된 이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신승기·배영권, 2015). 첫째, 학습자가 가능성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언제나 접근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자료가 개발되어야 하며 또 많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이론과 실제의 결합을 위해 사전 지식을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또 전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최소한의 사전 지식을 통해 언제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3. ProgeTiger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 연수

ProgeTiger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은 학생들의 ICT 리터러시와 디지털 역량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교사의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또 수업에서 이러한 역량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ProgeTiger의 교사 지원은 지원 대상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직접적 지원, 학교 및 학생을 통한 간접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민자 외., 2015). 직접적 교사 지원을 위해 ProgeTiger에서는 교원연수 과정과 관련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수학습방법론을 개발해 실질적인 연수와 자료제공서비스를 진행한다. 반면, 간접적 지원은 우선 학교를 통해 이루지는데, 학교의 리더를 대상으로 정보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해 학교 차원의 정보교육 인지도가 높아지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교육기술교사(educational technologist)를 지원해 이들이 교사가 필요할 때 시스템 측면뿐 아니라 기술의 교육적 활용 및 소프트웨어 교육 방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ProgeTiger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특징은 ① 입문 단계부터 심화 주제까지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 ② 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래밍언어(Educational Program Language, 이하 EPL)와 관련된 도구를 경험하게 하고 또 이를 수업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연수한다. 즉,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단순한 학습에 그치지 않고, 이를 수업에 어떻게 접목하고 또 이에 대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을 지원한다.

이처럼 ProgeTiger 프로그램의 교사연수를 포함해 에스토니아의 ICT활용교육과 관련된 교사연수 프로그램은 관련 역량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교사 역량은 2014년에 국제교육기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이하 ISTE)의 컴퓨터과학 교사를 위한 ISTE 표준과 연계해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산하의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가 제안한 '유럽 교육자를 위한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 framework for educators)'을 근간으로 재정비되었다. 이 역량 표준은 교사교육에서 증진되어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자료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b).

2016년에 개정된 에스토니아의 교사 역량은 전체 5개 역량군으로 나누어지고, 그 안에 세부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 즉, ① (역량 I) 학습자를 독려하고 그들의 창의성을 개발한다. ② (역량 II)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교수 및 평가 방법을 개발한다. ③ (역량 III) 디지털시대의 학습 문화 및 업무 진행 방식을 보여 준다. ④ (역량 IV)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시민 의식을 보여 준다.

⑤ (역량 V) 전문성과 리더십을 개발한다. 그리고 각 역량군별로 무경험자(mittekasutaja), 초보자(alustaja), 중급자(tegija), 전문가(eestvedaja) 수준의 행동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에스토니아는 현재, 학교에서 컴퓨터과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고 또 재직 중인 교사들도 컴퓨터과학의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한 한시적인 대안으로, 컴퓨터를 잘 다루는 학생들과의 협동을 장려한다.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은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수학 교사와 함께 팀티칭을 한다. 학생 강사의 활용은 가끔 교사 대상 연수에서도 실행되고 있다(Laanpere, 2017).

교사 ICT활용역량측정 프로젝트로 멘텝(Mentoring Technology Enhanced Pedagogy, 이하 MENTEP)[8]이 있다. MENTEP 프로젝트는 교사들의 ICT활용교육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온라인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에 시작해 201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제는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현재 1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상자 1〉 ICT활용역량측정 프로젝트(MENTEP)의 목적

- 교사가 테크놀로지활용교육(Technology-Enhanced Teaching, TET) 역량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가 높고, 사용하기 쉽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 측정 도구의 유용성, 역량 증진의 효과 등을 평가
- 정책개발자에게 교사의 역량, 교육의 요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이 측정 도구가 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을 규명
- 도구를 제공하고 그 활용 결과를 확인
- 이 도구로 측정 가능한 역량을 기반으로 유럽에서 활용 가능성을 조사
- 구체적인 실행과 정책 개발에서 국가의 역량을 증진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b)

교사들은 이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ICT 활용 능력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이 도구는 4개의 역량 영역이 있다. 즉, ① 디지털 교육 방법, ② 디지털 활용과 제작, ③ 디지털 시민 의식, ④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관련된 측정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사는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할 수 있다. 측정 결과는 개인 수준에 대한 설명, 다른 교사와의 비교 정보, 역량 증진이 필요한 영역 제안 등으로 제시된다. 아울러, 각 측정 역량별로 역량 증진을 지원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이 있다.

8) MENTEP 관련 소개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mentep.eun.org/tet-sat;jsessionid=FE211287781666349DF491B150C7E9E8) (접속일: 2018.09.18.)

Ⅳ.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2015년 9월 23일에 발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내용으로, '정보'과목이 이례적으로 포함되었다. 교육과정 개정의 전반적인 방향이 학습 내용의 축소와 적정화라는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필수과목으로 '정보'가 추가되었다는 것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6년 초에 우리나라 전역에 몰아쳤던 4차 산업혁명의 쇼크와 맞물리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영역인 ICT교육의 핵심이 되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교육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영국, 미국,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코딩교육, 프로그래밍교육, 컴퓨터과학 등과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교육 내용이나 교육 목적과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이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컴퓨팅 사고력과 이에 기반한 문제해결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교육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각각의 산하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창의재단이 추진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교육청과도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의 추진 방향,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 및 내용, 교사들의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 강화 3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1.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

교육부는 2014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개최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보고회'를 통해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2015년 9월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모든 초·중등학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고 또 고등학생은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며, 2016년 12월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해 중·장기적인 방향과 추진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매년 단계적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했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 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8년까지 초등 교사 6만 명(초등 전체 교사의 30%)에게 직무연수와 심화연수를 실시해 1개교당 1명의 핵심교원을 양성한다. 또 중등 교사 중 '정보' 과목 담당 교사 및 '정보·컴퓨터' 자격증을 소지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연수를 실시하고, 정보 교사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며, 예비 교원도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이수토록 한다. 둘째, 미설치 학교에 컴퓨터실을 설치하고 또 이미 설치된 학교에는 노후 컴퓨터 교체, 무선망 도입, 스마트패드 보급 확대, 로봇연계교육 확대 및 소프트웨어 교육 종합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수업을 지원한다. 셋째, 연구·선도학교를 확대·운영해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양질의 교과서와 보조 교재를 개발하며, 현장 교사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활동과 결과의 확산·공유를 통해 자율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 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초·중등 교육과정 내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 편성한 사례의 공유・확산, 자유학기와 연계한 소프트웨어 진로체험 확대,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동아리 지원, 소프트웨어 융합교과 중점학교 지정을 통해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기반을 확대한다. 다섯째, 대학 소프트웨어교육 혁신의 선도 모델로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지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학 특성화를 통해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여섯째,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구성해 학교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운영하고, 올바른 컴퓨터·미디어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 강화 및 소프트웨어 교육 행사 및 캠페인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위와 같은 기본 방향과 더불어 그 전해의 성과와 연계해 후속 연도의 연간 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초에 발표한 초·중등교육 중심의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교육부, 2018)의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 5> 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 방향의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나 다섯 번째 추진 과제인 '창의력 및 사고력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통해, 융합교육이나 학생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그림 5〉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 추진 계획

비 전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지능정보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목 표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의 성공적 안착 및 학교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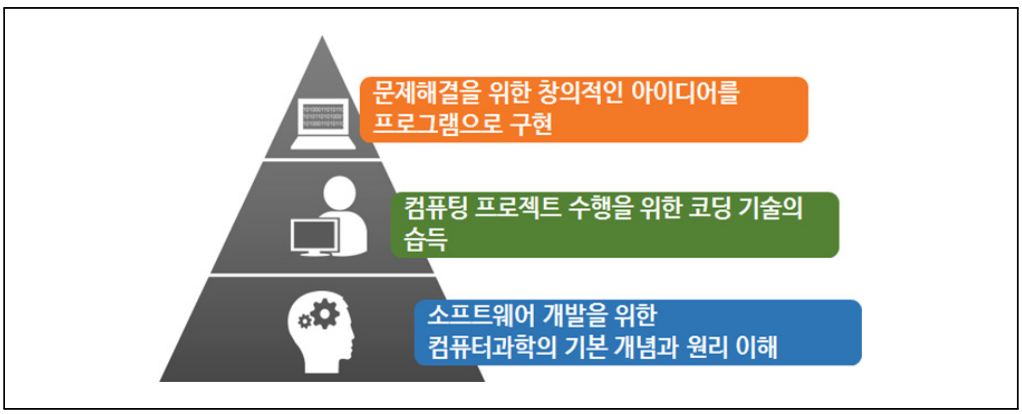
추진 과제	주요 내용
1 소프트웨어 교육 인적 기반 마련	• 초·중등 담당교사 연수 강화 • 중등 정보·컴퓨터 교사 확보 •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시도 해당 없음)
2 소프트웨어 교육 물적 기반 마련	• 컴퓨터실 설치 및 노후 컴퓨터 교체 • 피지컬 컴퓨팅 실습 지원
3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 모델 발굴 및 확산	• 연구·선도학교 운영 및 성과 확산 • 중점 중·고등학교 사례 발굴 및 확산 • 성과발표회 및 유공자·기관 표창
4 초•중등 교육과정 내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 교육과정 우수 편성·운영 학교 사례 발굴·확산 • 단위 학교의 차별화된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지원
5 창의력 및 사고력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 소프트웨어·과학·수학 융합교육 활성화 • 교사연구회 및 학생 동아리 활성화 •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6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활동 및 홍보 강화	•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체험)센터 구축·운영 • 체험 및 탐구 중심의 프로그램 활성화 • 소프트웨어 교육의날 운영 활성화

출처: 교육부 (2018)

2. 한국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컴퓨터과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CT)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합니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a).’ 이처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는 아래 <그림 6>에 제시된 대로 컴퓨터과학의 이해와 활용에 바탕을 둔,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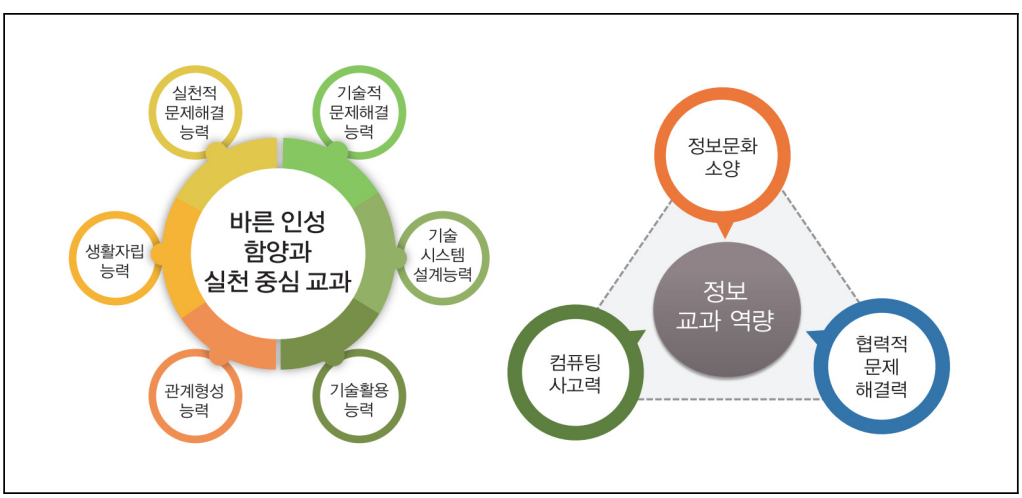
〈그림 6〉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



출처: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a)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도 불린다.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교과별로 제시된 교과별 역량은 각 교과의 목표 설정을 비롯한 학생의 핵심 역량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초등 실과 및 중학교 정보과의 교과 역량은 아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교과 역량–초등 실과(좌), 중등 정보과(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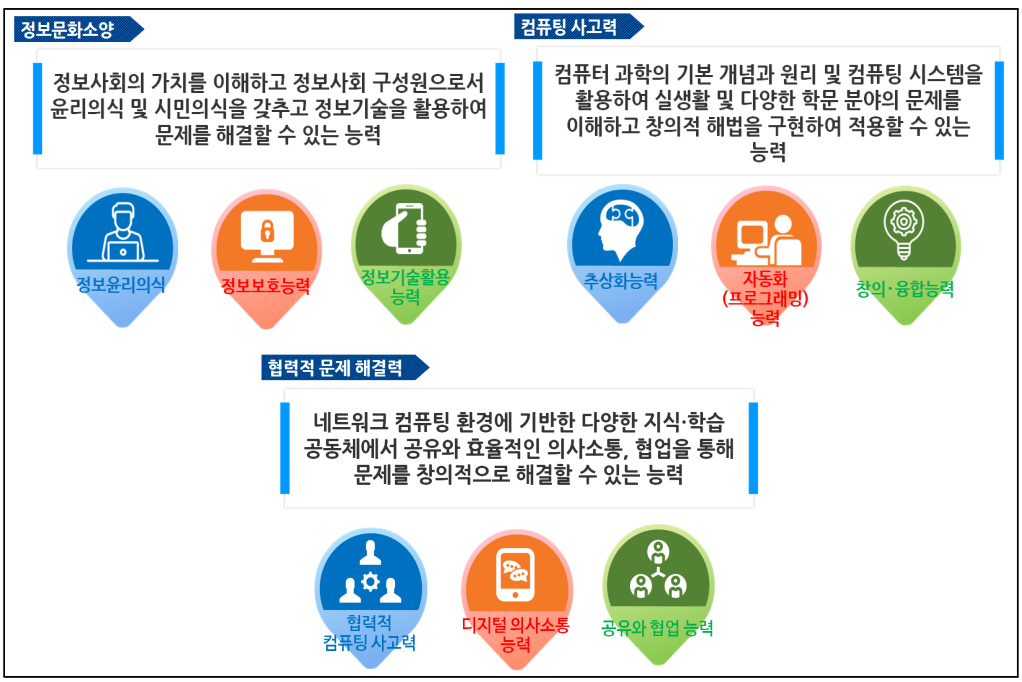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a)

초등 실과의 교과 역량에서는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기술적 문제해결 능력,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활용 능력' 등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더욱이 독립 교과로 설정되어 있는 중등 정보과의 교과 역량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역량을

보다 더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2015 개정 중등 정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교과 역량, 이를 구성하는 총 9개의 하위 역량은 아래 <그림 8>과 같다.

〈그림 8〉 2015 개정 중등 정보과 교육과정 및 교과 역량의 의미와 하위 역량



출처: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a)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컴퓨팅 사고력' 외에도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문화소양',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협력을 강조하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기존 초·중등교육에서 지도되었던 정보기술활용능력(ICT활용능력) 또한 정보문화소양의 하위 영역으로 포함되어 정보과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 9>와 같이 초등학교에서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의 체험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중학교에서는 알고리즘 이해와 표현 및 프로그래밍 기초 활동을 토대로 실생활 문제 해결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며, 고등학교에서는 알고리즘 설계·분석과 심화된 프로그래밍 활동을 통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게 된다.

〈그림 9〉 학교급별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 및 교육 내용



출처: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a)

이러한 목표 달성과 교육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교과의 편제를 변화시켰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교과의 ICT활용 중심 내용 단원을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과 관련된 교육 내용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5~6학년군에서 17시간 이상 시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기존의 선택과목이었던 정보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또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 개편해 총 3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심화 선택과목이었던 정보 교과를 일반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내용으로 개편함으로써 단위 학교의 과목 선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3.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한 교사 연수는 2015년부터 활발히 추진되어 오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2018년까지 연구·선도학교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5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에 제시된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운영되었다.

〈표 3〉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에 제시된 교육 내용

대 영역	중 영역	내용 요소
생활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활용과 중요성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특징, 소프트웨어의 활용과 중요성
	정보윤리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지적재산의 보호와 공유
	정보기기의 구성과 정보 교류	컴퓨터의 구성,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정보의 유형과 구조화	정보의 유형, 정보의 구조화
	컴퓨팅 사고의 이해	문제 해결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과 구조화, 문제 해결 전략의 탐색
	알고리즘의 이해	알고리즘의 이해, 알고리즘의 설계
	프로그래밍의 이해	프로그래밍언어의 이해, 프로그래밍의 기초
컴퓨팅과 문제 해결	컴퓨팅 사고 기반의 문제 해결	실생활 문제 해결, 다양한 영역의 문제 해결

출처: 교육부 (2015)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원격연수, 일반 교원연수, 선도 교원연수, 심화 연수, 전문 연수, 추수 연수 등)은 물론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위한 각종 콘텐츠 개발이나 학교 내외 프로그램 운영도 위 내용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시된 내용으로 업데이트되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에 수립한 '소프트웨어 교육활성화 기본계획'에서 2018년까지 전체 초등 교원의 30%인 6만 명의 교사와 중학교 '정보' 교사 및 '정보·컴퓨터' 자격증 보유 교사 전체 인원인 약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실시 계획을 밝히고 이의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수립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선도하는 핵심 교원(1만 명) 육성(국정과제 54)'을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에 걸쳐 소프트웨어 교육 핵심 교원을 연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교육부, 2018)하고 2018년 여름방학부터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15년부터 약 4년간에 걸쳐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대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연수가 전국에 걸쳐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ICT교육 정책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부처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어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전의 ICT 정책들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크다. 2018년에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립한 연수 프로그램의 종류 및 연수 목표 인원, 연수 내용을 초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2018년도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

연수 과정 (운영 기간 /2018년 목표)	단계 (시수)		핵심 연수 내용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2017~/ 6,040교)	입문 단계 (2)		언플러그드 활동, 교육용 프로그래밍 체험
원격연수 (2015~/ 20,000명)	준비 단계	기초 (15)	소프트웨어 교육과 교육과정 이해, 컴퓨팅 사고력, 도구와 저작권, 알고리즘 체험(언플러그드 포함), 프로그래밍 체험, 수업 사례 분석
		심화 (30)	소프트웨어 교육과 교육과정, 체험과 수업 사례 분석, 수업 설계 전략과 수업 방법, 소프트웨어 교육 평가 방법
기본연수 (16,180명↑)	초보 단계 (15)		소프트웨어 교육과 교육과정 이해 및 컴퓨팅 사고력 이해, 언플러그드 활동, EPL(스크래치, 엔트리 등), 소프트웨어 교육과 연계한 '로봇' 활용 활동
핵심교원 연수(2,000명)	핵심 단계 (30)		학생 참여 중심의 소프트웨어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의 이해, 학생 참여 중심의 소프트웨어 수업 설계, 협력과 토의 기반 자료 개발
심화연수 (시도 주관)	프로 단계	경력자 (15)	EPL(스크래치, 엔트리 등), 언플러그드 활동, 소프트웨어 교육과 연계한 '로봇' 활용 활동
전문연수 (100명)		지도자 (45)	컨설팅과 코칭, 교사 학습 공동체 구성 및 운영, 수업 관찰 및 분석,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 전략, 교육과정 설계 및 현장 적용, 소프트웨어 융합교과 지도
선도연수 (150명)		시도 연수 강사 (30)	소프트웨어 교육과 교육과정 이해 및 강의 전략, 컴퓨팅 사고력 이해 및 강의 전략, 언플러그드 활동 및 강의 전략, EPL(스크래치, 엔트리 등), 소프트웨어 교육과 연계한 '로봇' 활용 활동 및 강의 전략, 소프트웨어 수업 설계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중등 교원 대상도 프로그램 구성상 위와 유사하나, 단지 주요 대상이 중등 '정보'과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 연수와의 차이점이다. 연수 과정을 살펴보면 전달 방식에 따라 원격연수와 집합연수(면대면 수업)로 구별되며, 연수 내용의 특성에 따라 기초연수, 일반연수, 심화연수, 전문연수, 추수연수, 선도연수, 핵심연수 등으로 다양한 수준의 연수 과정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앞서 언급했듯이,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이 중심이 된다. 즉, 초등의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컴퓨팅 사고력의 이해, 언플러그드 활동, EPL 활용 프로그래밍, 로봇 연계 소프트웨어 교육이 주를 이루고(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있다. 또한 중등의 경우, 피지컬 컴퓨팅과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등으로 심화된다.

한편, 그동안 운영되어 온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단계별 연수 내용이 유사하거나, 연수를 통해 증진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교사 역량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연수 목적과 효과성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강신천·정영식·양재명·옥지현, 201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b)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에스토니아와 같이 목표로 하는 교원 역량에 대한 규명과 이의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운영하는 교사의 능력,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경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양재명·이원규·김자미·윤일규·서정희, 2017), 기존의 연수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연수 과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8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소프트웨어 교육 핵심 교원연수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내용 중심의 연수를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을 준비시키는 연수로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래 <표 5>와 같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이해를 토대로 학생 참여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 설계 및 실행, 소프트웨어 교육 실행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전략 수립, 과정중심평가 등을 포함한다.

〈표 5〉 소프트웨어 교육 핵심연수 프로그램 모듈 구성 및 주요 내용(2018년도 하계연수 적용)

모듈	주요 내용	비고
학생 참여 중심의 소프트웨어 수업과 과정중심평가 이해하기	• 학생 참여 중심의 소프트웨어 수업 설계를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해하기 • 학생 참여 중심의 소프트웨어 수업 및 과정중심평가 이해하기	1 ~ 5차시
학생 참여 중심의 소프트웨어 수업 설계하기	• 학습 목표 설정 및 학습 촉진 질문 개발하기 • 과정중심평가 계획 및 교수학습 활동 계획 수립하기	6 ~ 10차시
학습지원자료 및 평가자료 제작하기	• 수업 설계서에 따른 학습지원자료 및 평가자료 제작하기	11 ~ 13차시
수업 실행 및 학생 산출물 만들기	• 수업 실행 및 학생 산출물(예시) 제작하기	14 ~ 16차시
공유 및 평가하기	• 연수 결과 공유 및 평가하기(온라인 시스템 탑재)	17 ~ 19차시
성찰하기	• 연수과정 성찰일지 및 연수평가서 작성하기	20 ~ 21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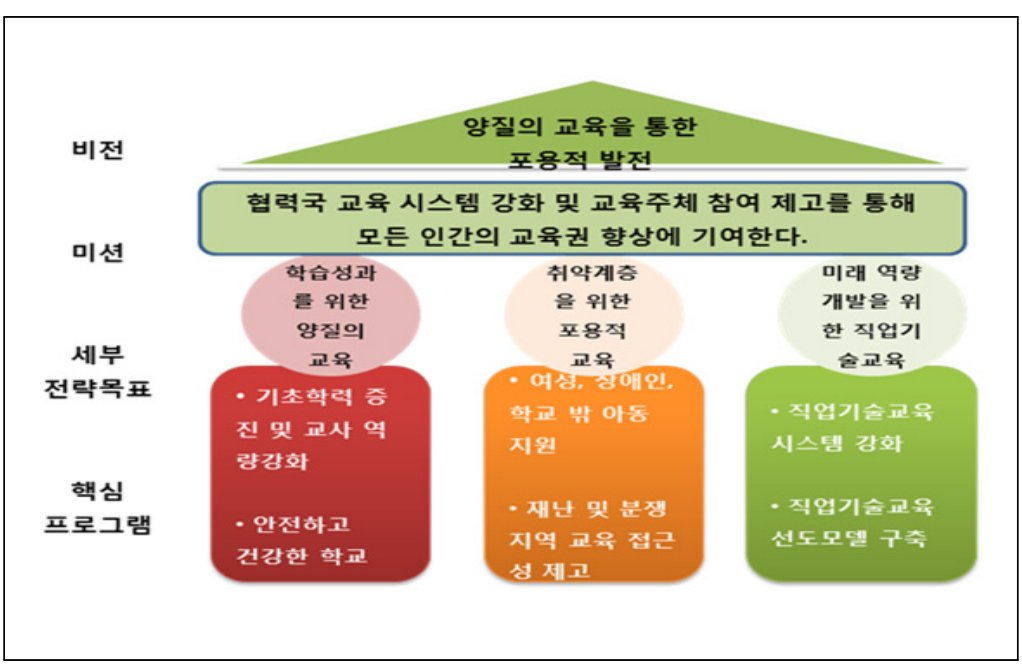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b)

Ⅴ. SDGs와 개발도상국 ICT 교육

국제사회가 합의한 SDGs 달성을 위해 교육 분야 개발목표인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하위 목표로 제시된 직업 역량 강화와 청소년 및 성인의 ICT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이 추진하는 교육 전략과 함께 르완다, 니카라과, 온두라스에서 추진하는 교사의 ICT역량강화 사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KOICA 교육 분야의 중기 전략은 양질의 교육을 통한 포용적 발전을 비전으로 정하고 기초교육, 취약계층 교육,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기초교육 분야에서는 SDGs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학습자의 학업성과와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학습 성과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라는 전략목표를 토대로 기초학력 증진과 교사 역량 강화를 핵심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다. KOICA는 여성, 학교 밖 아동, 장애인을 교육 분야의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이들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는 청소년 및 성인 등의 직업 역량 강화와 선도 모델 구축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그림 10〉 교육 분야 중기 전략 개념도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17a)

이러한 교육 분야의 전략목표 및 핵심 프로그램과 부합하는 ICT교육 사업 모델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초·중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ICT 활용 지원 모델의 구성 요소로는 ICT 교육 정책 컨설팅,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ICT 활용교육, 학습자 생애 역량 제고를 위한 ICT 역량 강화를 선정했다. 둘째,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ICT 활용 지원 모델의 구성 요소로는 ICT 기반 교원연수, 교원 ICT 역량 강화의 2개 구성 요소를 도출했다. 셋째, 직업 역량 개발을 위한 ICT 활용 지원 모델로는 ICT 활용 직업기술교육훈련과 ICT 전문 인력 양성의 구성 요소를 도출했다. 취약 계층을 위한 ICT교육 사업은 기초교육 분야에 포함해 추진하고자 한다.

〈표 6〉 교육 분야 전략목표별 ICT교육 모델(안)

전략목표	핵심 프로그램	ICT교육 사업 모델
학습 성과를 위한 양질의 교육 / 취약 계층을 위한 포용적 교육	기초·취약계층 학력 증진	•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ICT 활용 지원 모델 (구성 요소) – ICT 교육정책 컨설팅 –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ICT 활용교육 – 학습자 생애역량 제고(ICT 역량, 성평등, 민주주의 등)
	교사 역량 강화	•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ICT 활용 지원 모델 (구성 요소) – ICT 기반 교원연수 – 교원 ICT 역량 강화
미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직업기술교육	직업기술교육 시스템 강화, 기술교육 기관 선도 모델 구축	• 직업 역량 개발을 위한 ICT 활용 지원 모델 (구성 요소) – ICT 활용 직업기술교육훈련(ICT for TVET) – ICT 전문 기술인력 양성(ICT workforce)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17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초·중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ICT 활용 지원 모델: 태블릿 기반의 아동교육 앱 개발 사업

전 세계적으로 아동 문맹 수는 약 2억 5천만 명(총 아동 인구의 ⅛)이며, 학교 및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저비용의 혁신적인 교육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개발도상국의 학교교사 미 소재지에 인터넷 지원 없이 초절전형 태블릿만으로 기초 언어 및 수리 교육이 가능한 앱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상지로 탄자니아와 케냐를 선정했으며, 수혜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했다. 지원 언어는 스와힐리어와 영어이며, 학습 게임(읽기·쓰기·셈하기 교육), 전자도서관(책·영상) 외 아동 생활 및 정서 교육을 위한 부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인프라 부재 지역(예: 저개발국, 분쟁 후 지역, 자연재해 피해 지역, 난민캠프), 통학 곤란 지역(예: 격오지, 치안불안 지역), 기타 제약(예: 종교, 문화)으로 정식 교육이 불가능한 지역의 아동(특히 여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의 목표는 첫째, 초절전형 태블릿 기반의 교육 앱을 개발해 저비용으로 케냐, 탄자니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아동의 기초교육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 제공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동도 자가학습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해 학력성취도가 낮은 개발도상국 환경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태블릿 기반의 교육 앱은 기존의 컴퓨터에 비해 사용이 쉬워 0~8세 아동도 디지털 콘텐츠(온라인 포함)에 접근이 가능하며, 아동의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 자기주도학습 등에서 높은 효과가 증명되었다. 개인화를 통해 기존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을 보완하고 또 학습에 대한 흥미 증진을 위해 선진국 학교 및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ICT 활용 지원 모델 : 온두라스 교사 ICT 활용능력 강화 사업

본 사업은 온두라스 초·중등 교원들의 ICT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연수센터를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교사들의 ICT 문맹률 감소 및 ICT를 활용한 교육 시간 증가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에 위치한 뻬드로누피오(Pedro Nufio)센터 3개 교실 리모델링, ICT 기자재 지원, 센터 운영 및 홍보 홈페이지 개발, 관리자 연수 과정, 교사연수 과정, 교사 ICT 연수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ICT 및 로보틱스 연수 과정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온두라스 정부는 로보틱스 연수 과정을 도입한 후 아두이노(Arduino)[9]라는 센서 기반의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해 학생들이 개발한 프로그램과 동 키트를 연결한 뒤 기계의 센서 및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교사의 ICT 역량을 3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연수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본(Basic) 단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MS-Office), 이메일, 인터넷 활용 가능 수준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며, 중급(Intermediate) 단계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수업을 위한 강의

9) Arduino는 오픈소스 기반의 전자기기 플랫폼으로, 학습자가 생성한 프로그램에 의해 여러 개의 센서를 제어해 빛이나 모터 기능을 동작시킬 수 있어 기초 로봇틱스 실습 장비로 널리 활용된다.

자료 작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급(Advanced) 단계에는 영상 편집을 포함한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가능하게 하고, 온라인 강좌를 개발해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3. 직업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ICT 활용 지원 모델 : 방글라데시 기술교육 및 청년취업강화 사업

KOICA는 방글라데시의 3개 지역(다카, 쿨나, 실렛)에 있는 국립직업훈련센터를 국가표준기술자격 체계를 준용해 역량기반훈련(Competency-based training)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노동시장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교육훈련 과정 외에 방글라데시에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래픽디자이너, 웹프로그래머, 기계설계디자이너(Auto CAD) 양성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산학 협력을 통한 산업체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인턴십,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해당 지역 청소년의 직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직업기술교육에 ICT를 적용해 직업훈련센터 학생들의 ICT 역량을 강화하고, 교수학습 활동에 ICT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ICT 전공 학생들에게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해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는 그래픽디자이너나 앱개발자로 양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Ⅵ. 결론

이상으로 ICT교육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인 에스토니아와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ICT 역량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기술교육 차원을 넘어서 학습자의 컴퓨팅 사고력 증진과 일상생활 및 직업 세계와 연계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확산·발전되는 추세를 확인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적인 화두와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 청소년 세대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의 체제 변화는 단지, 선진국뿐이 아닌 개발도상국에도 당면과제로 인식된다.

KOICA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서 39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ICT 전문 인력 양성(ICT 훈련원, IT대학 설립 등), 학교의 ICT 기반 구축(방글라데시, 팔레스타인 컴퓨터실습실 구축), 교사 ICT 역량 개발(모로코, 방글라데시, 르완다,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이러닝(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등 다양한 ICT교육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KOICA가 수행한 ICT 교육 분야 지원사업 종합평가에 의하면, ICT교육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국의 ICT 수요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설계하고, 교육 효과성 관점의 성과모형 설정 및 성과중심 관리와 교육 분야 중기 전략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적용 가능한 ICT 교육 모델에 기반해 SDGs에서 추가하는 학습자의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향상할 수 있는 ICT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매개자인 교사의 ICT교육 역량을 강화해 수업 방법에 대한 혁신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이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참고 문헌〉

강신천·정영식·양재명·옥지현. 2017. 『SW교육 직무연수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2015.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 교육부(교육과정정책과) 발표자료(2015.02.).

_____. 2018.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고, 미래와 만나는 2018년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교육부(융합교육팀) 외부시행용 문서(2018.02.).

교육부 보도자료. 2016.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보도일자: 2016.12.02.).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교육정보화백서』.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_____. 2018a. 『2018년 소프트웨어(SW)교육 선도교원 연수교재』.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_____. 2018b. 『소프트웨어 교육 홍보 브로셔』.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민자·김자미·김현철. 2015. “에스토니아 ProgeTiger를 통한 SW교육 교사지원 방향 고찰.”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동계 학술발표논문집』 vol.19(1).

김상민. 2018. “창의·융합교육의 국제 비교 연구: 미국, 영국, 에스토니아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김현철. 2015. “[세계의 교육] 외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사례와 시사점.” 『교육개발』 2015 Summer vol.42(2).

신승기·배영권. 2015. “에스토니아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시사점 고찰.” 『정보교육학회논문지』 vol.19(3).

양재명·이원규·김자미·윤일규·서정희. 2017. 『2017년도 소프트웨어(SW)교육 연구학교 현황 및 효과성 분석』.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a. “해외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 동향 분석.” 『2017 KERIS 이슈리포트』.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_____. 2017b. “해외 소프트웨어교육 교사교육 정책 동향 분석-유럽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2017 KERIS 이슈리포트』.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_____. 2018. “2018년 SW교육 초등 핵심교원 연수 사업 실행계획(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8.05.).

한국국제협력단. 2017a.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7b. 『ICT교육분야 지원사업 종합평가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e-Estonia. 2017. “enter e-Estonia.” 2017년 e-Estonia 쇼룸 방문 시 쇼룸 담당자 발표 자료(2017.12.06.).

HITSA. 2015. “ProgeTiger Programme 2015-2017.” Tallinn: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for Education.

_____. 2016. “HITSA E 학습개발센터 소개.” 제10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우수입상자 국외연수 출장 시 기관 발표(2016.12.05. 에스토니아 HITSA 방문 시).

Laanpere, Mart. 2017. “Personal Communication.” 소프트웨어 교육과 교육정보화에 대한 한-에스토니아 국제 세미나 발표 및 질의응답(2017.12.05. 에스토니아 탈린대학서 개최).

_____. 2018. “Reform of Teacher Training on Software Education in Estonia.” 2018 이러닝 코리아 국제 콘퍼런스 초청 발표(2018.09.14.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of Estonia. 2014. “The Estonian Lifelong Learning Strategy 2020.” Tallinn: Estonian Government.

OECD. 2018. “PISA 2015 Results in Focu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ITSA 홈페이지: https://www.hitsa.ee/ (접속일: 2018.9.12.)

INNOVE 홈페이지: https://www.innove.ee (접속일: 2018.09.12.)

Koolielu 홈페이지: https://koolielu.ee/ (접속일:2018.09.12.)

MENTEP 홈페이지: http://mentep.eun.org/tet-sat;jsessionid=FE211287781666349DF491B150C7E9E8) (접속일: 2018.09.18.)

ProgeTiger 프로그램 안내 화면: https://www.hitsa.ee/it-education/educational-programmes/progetiger (접속일: 2018.9.12.)

예산지원(Budget Support)의 최신 동향과 과제

고요한 (KOICA ODA연구정보센터 연구원)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지원(Budget Support, BS)의 정의 및 지원 현황
1. 예산지원의 정의
2. 국제사회의 예산지원사업 현황

Ⅲ. 예산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1. 예산지원사업 효과성 평가의 한계
2. 예산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틀
3. 예산지원사업의 효과성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요 약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제시된 이후 국제사회는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그 가운데 더 나은 원조일치와 원조조화, 낮은 거래비용, 높은 예측 가능성, 공공지출의 효율적 배분, 수원국의 효율적 공공재정 관리, 높은 책무성 및 주인 의식 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라는 사업 유형이 원조기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파리선언의 5대 원칙인 원조일치와 원조조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Programme-Based Approach, PBA)을 적용하는 데 가장 용이한 사업 유형으로 여겨져 많은 원조기관이 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 많은 양자 공여국이 예산지원사업을 축소하고 있으며, 다자 공여기관들 정도만 기존 지원액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여러 예산지원사업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유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여러 건의 수원국 정부 부패스캔들에 기인한다. 이는 예산지원사업과 수원국의 빈곤 감소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공여국의 예산지원사업이 보류 및 중단되어 지금까지 달성되었던 개발결과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앞서 증명된 예산지원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위해서는 예산지원사업을 재정비해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지원사업이 모두 예측한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효과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분야예산지원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부정적인 효과들을 상쇄할 수 있는 예산지원사업의 형성 및 이행 메커니즘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지원과 빈곤 감소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하나, 교육과 보건 같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들의 접근이 개선된 것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비소득 빈곤의 감소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빈곤 감소라는 궁극적이며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리적인 평가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제시된 이후 국제사회는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그 가운데 수원국의 주인 의식 제고 및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비구속성 원조로 구분될 수 있는 예산지원이라는 사업 유형이 원조기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파리선언의 5대 원칙인 원조일치와 원조조화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Programme-Based Approach, PBA)을 적용하는 데 가장 용이한 사업 유형(type of aid)으로 여겨져 많은 원조기관이 도입을 시도했다. 예산지원사업의 본격적인 도입과 함께 국제사회는 더 나은 원조일치와 원조조화, 낮은 거래비용, 높은 예측 가능성, 공공지출의 효율적 배분, 수원국의 효율적 공공재정 관리, 높은 책무성 및 주인 의식 등을 기대했다.

이에 본 연구는 예산지원사업이 활성화된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개발 효과가 나타났는지, 현재는 예산지원사업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에 관해 최신 동향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예산지원(Budget Support, BS)의 정의 및 지원 현황

1. 예산지원의 정의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예산지원과 관련해 공여국의 재원이 수원국의 국고로 편입되어 수원국의 예산을 지원하는 원조 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산지원은 일반예산지원(General Budget Support, GBS)과 분야예산지원(Sector Budget Support, SBS)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예산지원은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non-earmarked) 지원하는 것이고, 분야예산지원은 특정 분야에 사용하도록 지정한 예산지원을 의미한다. 예산지원은 단독으로 지원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다른 비재정지원과 같이 제공되는데, 주로 정책대화(policy dialogue), 지출조건(disbursement conditions),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산지원이 다른 비재정지원과 같이 제공되는 이유는 이러한 지원들과 같이 제공되었을 때 사업의 효과성을 좀 더 많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재정지원은 예산 수립, 책정, 집행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 사항들을 처리하고 수원국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1)]

〈표 1〉 예산지원의 종류

유형/하위 유형 (Type/ Sub-type)	제목 (Description)	설명 (Clarification)
A	예산지원 (Budget Support)	본 범주에 속하는 자금 지원의 경우, 공여국은 수원국과 책임을 분담해 해당 기금의 배타적 운영권을 포기한다. (For contributions under this category, the donor relinquishes the exclusive control of its funds by sharing the responsibility with the recipient.)
A01	일반예산지원 (General Budget Support)	거시경제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 등 정부 예산에 제공하는 비지정 기여다.(예: 구조조정 프로그램, 빈곤감소 전략) (Unearmarked contributions to the government budget including funding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macroeconomic reforms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1) 그러나 독일개발평가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Development Evaluation, DEval)에 따르면, 이런 비재정지원 각각의 개별적인 효과에 대한 정보는 예산지원 평가 보고서들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Magdalena, Schmitt, Krisch, and Oltsch, 2017).

유형/하위 유형 (Type/ Sub-type)	제목 (Description)	설명 (Clarification)
		예산지원이란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수원국의 국고로 재원을 이전해 수원국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전된 기금은 수원국의 예산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자금지원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위해 국고로 이전된 기금은 수원국마다 상이한 예산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따라서 자금의 용처를 특정한 목적으로 지정한 경우는 예산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Budget support is a method of financing a recipient country's budget through a transfer of resources from an external financing agency to the recipient government's national treasury. The funds thus transferred are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recipient's budgetary procedures. Fund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treasury for financing programmes or projects managed according to different budgetary procedures from those of the recipient country, with the intention of earmarking the resources for specific uses, are therefore excluded.)
A02	분야예산지원 (Sector Budget Support)	분야예산지원은 일반예산지원과 마찬가지로 수원국 예산에 제공하는 지원이다. 단, 분야예산지원의 경우, 공여국과 파트너 정부 간의 정책 논의는 전반적인 정책 및 예산 우선순위가 아닌 특정한 분야에 집중한다. (Sector budget support, like general budget support, is a financial contribution to a recipient government's budget. However, in sector budget support, the dialogue between donors and partner governments focuses on sector-specific concerns, rather than on overall policy and budget priorities.)

출처: OECD (2018), 한국국제협력단 (2016)을 참고해 저자가 재구성

2. 국제사회의 예산지원사업 현황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통계를 살펴보면, 일반예산지원이 2002년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DAC 통계 지침의 공여국 보고체계(Creditor Reporting System, 이하 CRS) 목적코드 중 일반예산지원을 구분하는 목적코드 51010로 데이터가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통계 지침은 일반예산지원을 사업 유형이 아닌 CRS 목적코드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분야예산지원을 구분하는 CRS 코드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통계 지침이 개정되어 사업 유형에 예산지원이라는 상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졌고, 그 하위에 A01로 구분하는 일반예산지원과 A02로 구분하는 분야예산지원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이들 데이터가 수집되었다.[2] 따라서 기존 CRS 목적코드 51010으로 구분되는 일반

2) ODA 통계를 검색하게 되면, 일반예산지원은 2002년부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예산지원과 분야예산지원은 2010년부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예산지원과 새롭게 도입된 사업 유형의 A01로 구분되는 일반예산지원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다.

〈표 2〉 DAC 공여국 전체 예산지원 지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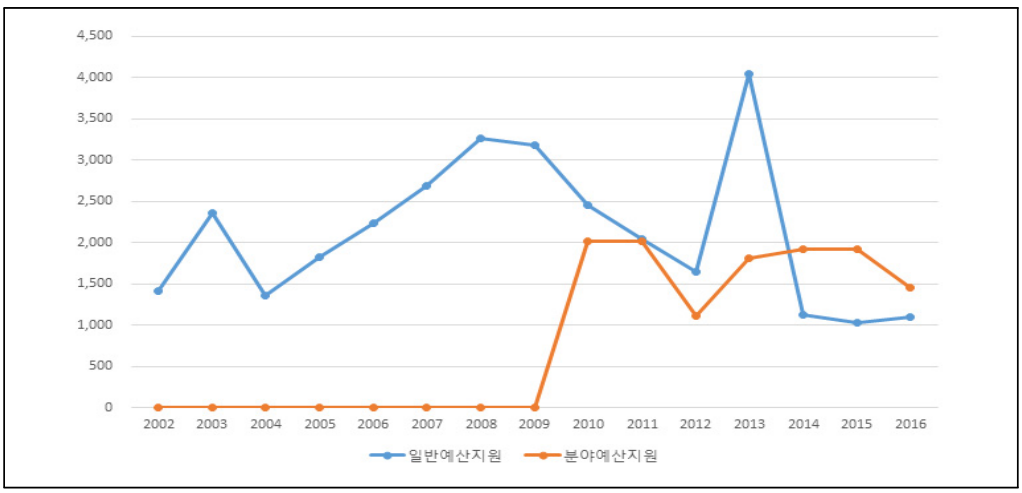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ODA	65,943	80,331	92,929	119,073	118,317	117,929	137,296	132,464
예산지원(BS)	0	0	0	0	0	0	0	0
일반예산지원(GBS)	1,414	2,351	1,359	1,826	2,232	2,687	3,263	3,176
분야예산지원(SBS)	0	0	0	0	0	0	0	0
예산지원 비중(%)	0	0	0	0	0	0	0	0
일반예산지원 비중(%)	2.1%	2.9%	1.5%	1.5%	1.9%	2.3%	2.4%	2.4%
분야예산지원 비중(%)	0	0	0	0	0	0	0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ODA	141,334	150,194	140,247	151,785	151,142	143,132	157,574
예산지원(BS)	4,461	4,050	2,752	5,851	3,038	2,946	2,541
일반예산지원(GBS)	2,451	2,036	1,647	4,042	1,120	1,031	1,090
분야예산지원(SBS)	2,011	2,015	1,105	1,810	1,918	1,915	1,450
예산지원 비중(%)	3.2%	2.7%	2.0%	3.9%	2.0%	2.1%	1.6%
일반예산지원 비중(%)	1.7%	1.4%	1.2%	2.7%	0.7%	0.7%	0.7%
분야예산지원 비중(%)	1.4%	1.3%	0.8%	1.2%	1.3%	1.3%	0.9%

출처: OECD 통계(http://stats.oecd.org)를 참고해 저자가 재구성 (단위: 백만 달러, 총지출 기준)

<표 2>를 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DAC 공여국 전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중 약 2% 정도를 일반예산지원에 투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이 수치가 1%대를 기록하며 일반예산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2010년부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예산지원은 2014년에 처음으로 일반예산지원보다 금액이 많아졌으며, 전체 ODA 중 분야예산지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림 1〉 DAC 공여국의 일반예산지원 및 분야예산지원 지원액



출처: OECD 통계(http://stats.oecd.org)를 참고해 저자가 재구성 (단위: 백만 달러, 총지출 기준)

한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DAC 공여국 중 일반예산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으로 이들 국가의 일반예산지원사업은 DAC 공여국 전체 일반예산지원사업의 66~93%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수원국에 지원되는 예산지원의 대부분이 이들 5개 국가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년의 경우에는 일본이 이례적으로 일반예산지원사업을 늘려 2009년 이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던 일반예산지원이 잠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반예산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표 3〉 DAC 5대 공여국 일반예산지원 지원액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DAC 공여국 전체 ODA	65,943	80,331	92,929	119,073	118,317	117,929	137,296	132,464
DAC 공여국 전체 GBS	1,414	2,351	1,359	1,826	2,232	2,687	3,263	3,176
DAC 전체 ODA 대비 GBS 비중(%)	2.1%	2.9%	1.5%	1.5%	1.9%	2.3%	2.4%	2.4%
프랑스 GBS	227	54	55	59	272	300	702	260
독일 GBS	4	0	55	56	88	73	58	136
일본 GBS	247	264	157	191	122	443	255	950
영국 GBS	341	520	606	531	691	690	746	541
미국 GBS	360	1131	12	455	377	275	506	428
DAC 전체 GBS 대비 5개국 GBS 비중(%)	83.3%	83.7%	65.1%	70.7%	69.4%	66.3%	69.5%	72.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DAC 공여국 전체 ODA	141,334	150,194	140,247	151,785	151,142	143,132	157,574
DAC 공여국 전체 GBS	2,451	2,036	1,647	4,042	1,120	1,031	1,090
DAC 전체 ODA 대비 GBS 비중(%)	1.7%	1.4%	1.2%	2.7%	0.7%	0.7%	0.7%
프랑스 GBS	259	563	261	251	217	231	174
독일 GBS	97	151	58	37	39	12	3
일본 GBS	465	67	165	2569	368	198	753
영국 GBS	650	447	349	211	87	76	81
미국 GBS	163	215	378	584	177	288	7
DAC 전체 GBS 대비 5개국 GBS 비중(%)	66.7%	70.9%	73.5%	90.3%	79.2%	78.1%	93.4%

출처: OECD 통계(http://stats.oecd.org)를 참고해 저자가 재구성 (단위:백만 달러, 총지출 기준)

DAC 통계를 찾아보면 예산지원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여국은 양자가 아닌 다자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EU는 2002년부터 일반예산지원을 시작해 그 비중이 EU 전체 ODA 중 약 7~9%를 차지했고, 2010년에는 처음으로 10%대를 넘어 12.1%를 기록하고 또 2011년부터 5%대로 축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3.5%로 떨어져 일반예산지원을 점점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야예산지원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줄어들다가 그 이후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 EU 예산지원 지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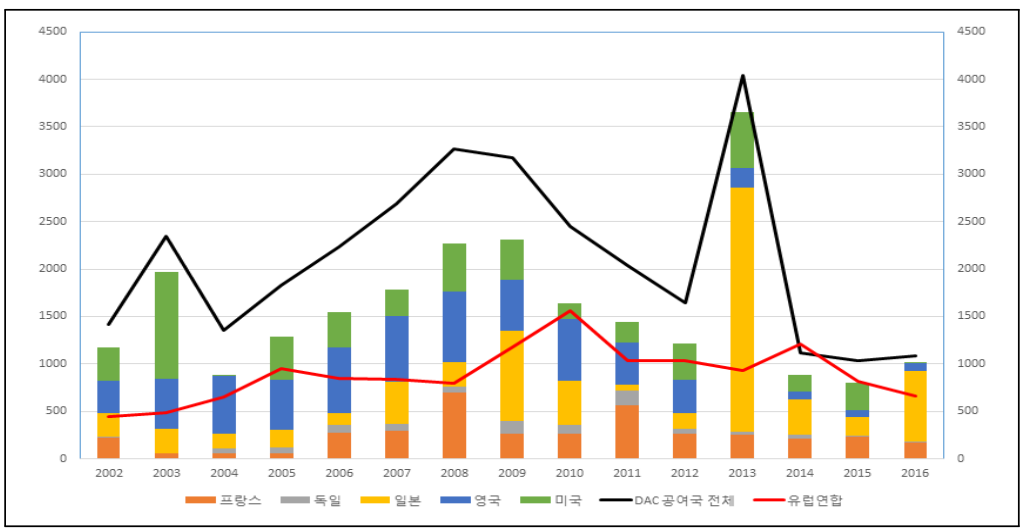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ODA	5792	7393	8971	9726	10678	11743	13197	13583
예산지원(BS)	0	0	0	0	0	0	0	0
일반예산지원(GBS)	440	490	650	948	843	833	798	1184
분야예산지원(SBS)	0	0	0	0	0	0	0	0
예산지원 비중(%)	0	0	0	0	0	0	0	0
일반예산지원 비중(%)	7.6%	6.6%	7.2%	9.7%	7.9%	7.1%	6.0%	8.7%
분야예산지원 비중(%)	0	0	0	0	0	0	0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ODA	12889	18292	18388	17401	18516	15679	18902
예산지원(BS)	2805	2306	2253	2285	2221	1852	2067
일반예산지원(GBS)	1563	1031	1039	931	1213	816	657
분야예산지원(SBS)	1242	1275	1214	1354	1008	1036	1410
예산지원 비중(%)	21.8%	12.6%	12.3%	13.1%	12.0%	11.8%	10.9%
일반예산지원 비중(%)	12.1%	5.6%	5.6%	5.4%	6.5%	5.2%	3.5%
분야예산지원 비중(%)	9.6%	7.0%	6.6%	7.8%	5.4%	6.6%	7.5%

출처: OECD 통계(http://stats.oecd.org)를 참고해 저자가 재구성 (단위: 백만 달러, 총지출 기준)

<그림 2>는 일반예산지원사업을 하는 상위 5대 국가와 EU의 지원액을 비교한 그래프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을 제외하면 2009년 이후로 양자 공여국가들이 다자 공여기관인 EU에 비해 일반예산지원을 줄이고 있는 속도가 빠르며 또 영국, 미국, 독일의 경우에는 2016년 지원액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2〉 상위 5대 DAC 공여국 및 EU의 일반예산지원 지원액



출처: OECD 통계(http://stats.oecd.org)를 참고해 저자가 재구성 (단위: 백만 달러, 총지출 기준)

결국, DAC 공여국과 EU 모두 기존에 주를 이루던 일반예산지원이 줄어들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분야예산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독일개발평가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Development Evaluation, 이하 DEva)는 양자 원조 포트폴리오를 보면 개발원조의 방향이 분야예산지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중소득국의 수원국 또한 분야예산지원과 함께 특정 분야의 기술 지원 및 역량 개발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Krisch and Schmitt, 2015). 3장 예산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에서 언급하겠지만, 예산지원사업이 교육과 보건 분야의 공공지출을 증대시켰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로 짐작해 보면, 일반예산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예산지원사업의 지원액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체 ODA에서 예산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그 안에서 일반예산지원은 축소되고 분야예산지원만 현재의 지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DEval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도 많은 공여국이 예산지원사업을 줄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공여국들이 예산지원

사업을 줄이거나 보류하게 된 이유가 수원국의 부패와 사업 유형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Orth and Schmitt, 2018a). 실제로, 독일을 비롯한 여러 양자 공여국이 2012~2013년 이후로 일반예산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다자공여기관들만 해당 사업 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말리·우간다·잠비아는 정부의 부패 스캔들로, 르완다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투치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밝혀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지원사업이 중단되었다(Orth, Birsan, and Gotz, 2018b).

Ⅲ. 예산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

1. 예산지원사업 효과성 평가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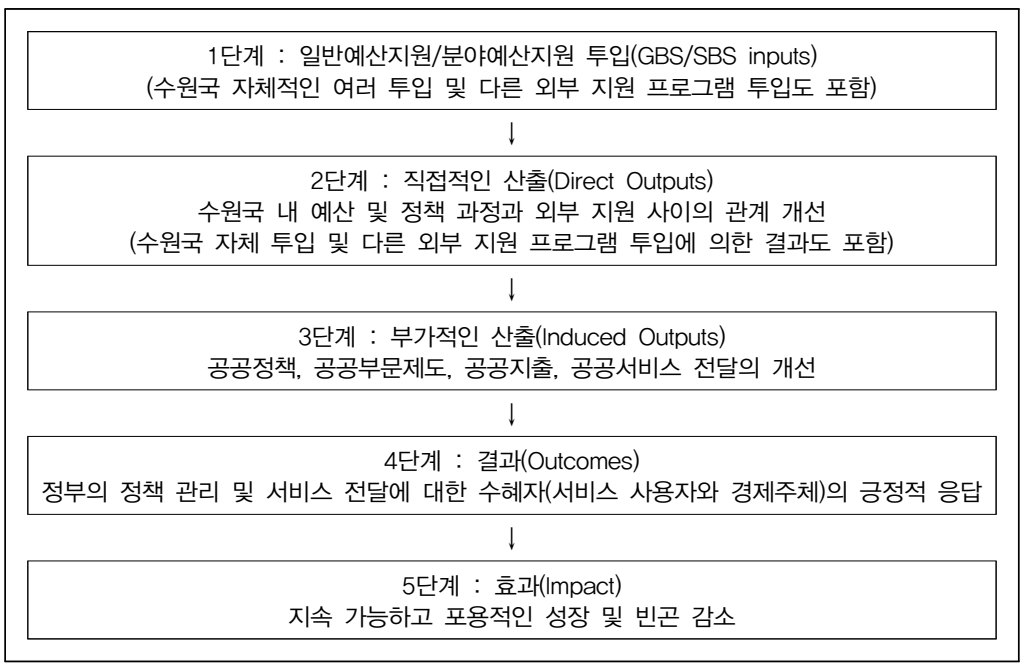
그렇다면 예산지원사업의 효과성이 실제로 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 예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평가를 진행하는 데는 네 가지의 어려움이 존재한다(Dijkstra and de Kemp, 2015). 첫째, 예산 지원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후가정(counterfactual) 방법을 엄밀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예산지원은 국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되기 때문에 효과성을 보기 위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를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예산지원사업의 효과성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예산지원사업이 프로젝트형 사업보다 효과적인지, 아니면 국제수지지원(balance of payment) 같은 기존의 프로그램형 원조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비교가 없는 상황이다. 셋째, 예산지원사업이 상반되는 두 가지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예산지원은 수원국의 주인 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빈곤 감소와 예산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와 함께 제공되는 비재정지원을 통한 수원국의 거버넌스와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를 훼손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넷째, 예산지원은 기본적으로 여러 공여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우선 고려 사항, 선호도, 지출 절차 등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화와 대립이 예산지원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예산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틀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해서인지 대부분의 예산지원사업의 평가는 기존 사업 유형과의 효과성을 비교하는 구조가 아닌 변화이론에 맞춰 예산지원사업이 기대했던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변화가 예산지원사업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변화의 원인이 다른 요소에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예산지원사업이 수원국의 정책, 전략, 지출 활동을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강화시켰고 또 그로 인해 국가 전체 또는 특정 분야의 지속 가능한 개발성과 달성, 빈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는지에 평가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이론에 기반을 둔 평가조차도 예산지원사업과 빈곤 감소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이라는 효과 사이의 탄탄한 인과관계를 증명해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가 틀을 수정했다. 대표적인 예로, OECD가 2006년에 제시한 5단계 평가

틀을 2012년에는 3단계 평가 틀로 수정한 사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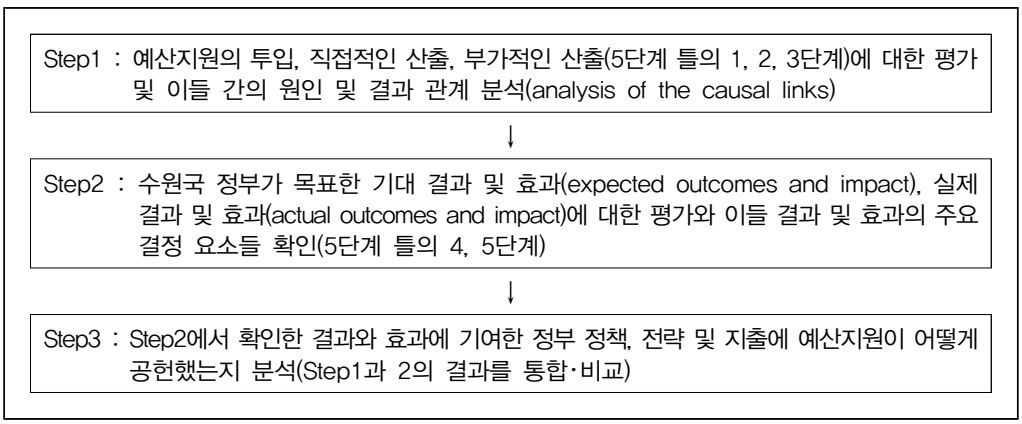
〈그림 3〉 OECD의 예산지원사업 5단계 평가 틀



출처: OECD (2012:9)를 참고해 저자가 재구성

OECD(2012)는 예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3단계로 평가하는 틀(framework)을 제시하고 있다. 위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시한 것처럼 5단계 틀을 제안했으나, 예산지원사업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분석(causality analysis)이 가능한 1, 2단계와 3단계 일부를 묶어 Step1로, 나머지 3단계와 4, 5단계를 묶어 Step2로, 그리고 Step1과 Step2를 통합적으로 살피며 예산지원이 수원국의 정부 정책 및 전략의 성공 또는 실패에 기여했는지를 보는 Step3으로 수정·제시했다. 이는 3, 4, 5단계가 예산지원사업의 결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닌 다른 여러 개발 주체(시민사회, 민간 부문 등)와 프로젝트 또는 외부 요소(세계시장의 자본재 가격, 외부 자본 유입, 정치적 안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기인한다(Koeberle, Stavreski, and Walliser, 2006). 또한 OECD(2012)는 빈곤 감소 및 경제개발 부양을 위한 수원국의 공공지출 결과 및 효과가 국가 전략과 정책의 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이를 위해 자원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정치적·행정적 역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림 4〉 OECD의 예산지원사업 3단계 평가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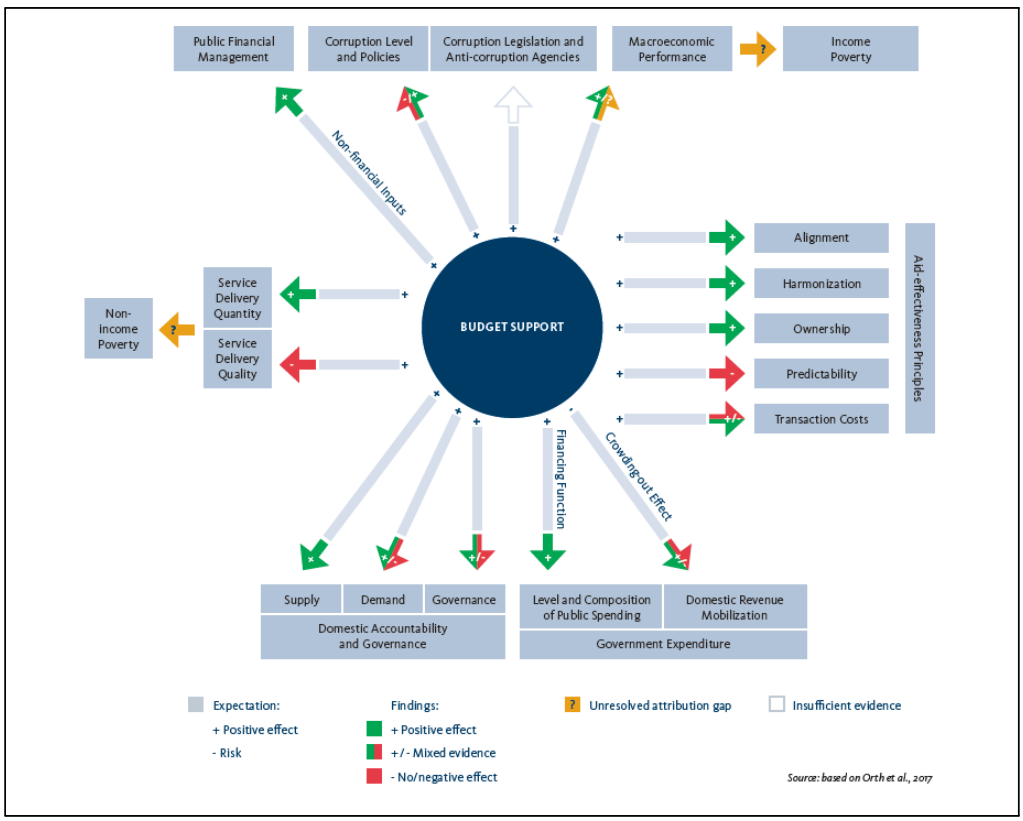
출처: OECD (2012:14)를 참고해 저자가 재구성

이렇게 수정·변경한 3단계 평가 틀에서도 한계는 존재한다. 예산지원이 정부 정책, 전략 및 지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분석한다는 Step3에서 우리는 정량적인 기여수치의 도출을 기대하지만, 이는 대부분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여도는 논리적 추론과 논리적 연결고리의 확인을 통한 질적 평가로 확인해야 한다(OECD, 2012).

3. 예산지원사업의 효과성

이러한 평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많은 보고서는 예산지원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Koeberle et al., 2006; Fiscus, 2014; Lawson 2015; ADE, 2013c; EU, 2017; Orth et al., 2018a). 해당 사업의 유형이 공공서비스 조달 개선, 빈곤 감소에 기여했으며 또 예산지원을 받은 수원국의 경제 거버넌스, 공공재정 관리, 예산의 투명성 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부패 척결·개선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32개 예산지원 평가보고서 및 42개 학술 발간물을 종합 평가한 DEval(2018a)은 아래 <그림 5>와 같이 예산지원의 효과를 제시하며, 예산지원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예산지원이 공공지출, 특히 교육과 보건사회 분야의 지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으며, 수원국 공공재정 관리의 품질(특히 예산 계획 및 준비, 예산 투명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수원국의 국내 책무성의 공급 측면(재정부와 통계청 같은 기관의 효율성, 최상위 감사기관의 역할 및 효율성)을 강화시켰고, 공공서비스(특히 교육과 보건)에 대한 접근을 개선했으며, 수원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의 증진 및 국내 부채 상환에 기여했다.

〈그림 5〉 예산지원의 효과



출처: Orth et al. (2018a)

한편, 보고서는 예산지원사업이 수원국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기여한 것과 관련해 조금 다른 입장을 나타내며, 대부분의 평가 보고서들이 예산지원과 관련해 부패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지원이 부패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효한 근거조차도 예산지원이 실제로 부패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내 책무성의 수요 측면(국회, 시민사회, 언론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장기적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수원국의 경제성과 개선이 예산지원에 기인한 것인지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소득 빈곤(income poverty) 또는 비소득 빈곤(non-income poverty) 감소와 같은 장기적·간접적·긍정적인 효과가 예산지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한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조 효과성이 중요하다는 게 강조되었고, 이러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예산지원사업이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공여국 사이에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다자를 제외한 많은 양자 공여국이 예산지원사업, 특히 일반예산지원을 보류하거나 중단해 해당 사업 유형은 많이 축소되었다. 이는 예산지원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기는 했지만, 부패 스캔들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들과 수원국의 빈곤 감소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평가에 기인한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통해 달성되었던 개발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이 흔들리고,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개발 전략 및 정책 논의를 위한 정책 대화의 구조가 약화되었으며, 원조조화가 어렵게 되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앞서 증명된 예산지원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위해서는 예산지원사업을 재정비해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예산지원사업이 모두가 예측한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효과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분야예산지원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또 분야예산지원에서 확실한 효과성을 보인 국가에 대해 장기적인 일반예산지원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앞서 나타난 부정적인 효과들을 상쇄할 수 있는 예산지원사업의 형성 및 이행 메커니즘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대화를 통해 수원국 정부의 부패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예산 관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시민사회와 수원국 언론이 예산지원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의 낮은 예측 가능성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수원국이 지출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여국 간의 통합되지 않은 지출 결정과 지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원조의 낮은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출 조건을 어겼을 경우의 수를 고려한 지출 프로세스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지원과 빈곤 감소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파악이 어렵다고는 하나, 교육과 보건 같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들의 접근이 개선된 것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비소득 빈곤의 감소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빈곤 감소라는 궁극적이며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리적인 평가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한국국제협력단. 2016.『OECD DAC 통합통계보고지침』.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ADE, ITAD and COWI. 2013a. "Joint Evaluation of Budget Support to Tanzania: Lessons Learned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Final Report: Volume 1. Independent Evaluation jointly manag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Irish Ai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 and the Ministry of Finance of Tanzania, avalia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 government/ 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06117/Budget-Support-Tanzania-Volume1.pdf (접속일: 2018.10.25.).

_____. 2013b. "Joint Evaluation of Budget Support to Tanzania: Lessons Learned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Final Report: Volume 2. Independent Evaluation jointly manag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Irish Ai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 and the Ministry of Finance of Tanzania, avaliable at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 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06119/Budget-Support-Tanzania-VolumeII.pdf (접속일: 2018.10.25.).

_____. 2013c. "Joint Evaluation of Budget Support to Tanzania: Lessons Learned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Summary. Independent Evaluation jointly manag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Irish Ai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 and the Ministry of Finance of Tanzania, avaliable at https://ec.europa.eu/europeaid/sites/devco/ files/evaluation-budget-support-tanzania-1321-summary-2013_en.pdf (접속일: 2018.10.25.).

Caputo, Enzo, Antonie de Kemp and Andrew Lawson. 2011. "Evaluation Insights: Assessing the Impacts of Budget Support: Case Studies in Mali, Tunisia and Zambia." No. 2, October 2011. Paris: OECD 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avaliable at http://www.oecd.org/dac/ evaluation/dcdndep/48934753.pdf (접속일: 2018.11.05.).

DANIDA. 2014. “Review of Budget Support Evaluations.” Copenhage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avaliable at https://www.oecd.org/derec/denmark/Review-of-Budget-Support-Evaluation.pdf (접속일: 2018.10.25.).

Dijkstra, Geske, and Antonie de Kemp. 2015. “Challenges in Evaluating Budget Support and How to Solve Them.” *Evaluation* Vol.21(1): 83-98.

EU. 2017. “Budget Support: Trends and Result 2017.”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avaliable at https://ec.europa.eu/europeaid/sites/devco/files/budget-support-trends-results-2017_en.pdf (접속일: 2018.11.05.).

FISCUS. 2014. “Synthesis of Budget Support Evaluation: Analysis of the Findings,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seven Country Evaluations of Budget Support.” London: FISCUS, ADE, avaliable at https://ec.europa.eu/europeaid/sites/devco/files/strategic-evaluation-synthesis-ec-budget-support-1335-main-report-201411_en.pdf (접속일: 2018.11.05.).

Koeberle, Stefan, Zoran Stavreski, and Jan Walliser. 2006. “Budget Support as More Effective Aid? Recent Experiences and Emerging Lessons.” Washington D.C.: World Bank, avaliable at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6958/359670Budget0Support01PUBLIC1.pdf?sequence=1&isAllowed=y (접속일: 2018.11.05.).

Krisch, Franziska, and Johannes Schmitt. 2015. “Accompanying Measures to Budget Support - Any Added Value?” *DEval Policy Brief* 05/2015, avaliable at https://www.deval.org/files/content/Dateien/Evaluierung/Policy%20Briefs/DEval_Policy%20Brief_052015_Budgethilfe_en.pdf (접속일: 2018.10.25.).

Lawson, Andrew. 2015. “Evaluation Insights: Evaluating the Impact of Budget Support: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a Synthesis of Seven Budget Support Evaluations.” No. 10, February 2015. Paris: OECD 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avaliable at http://www.oecd.org/dac/evaluation/Evaluation-Insights-Evaluating-the-Impact-of-BS-note-FINAL.pdf (접속일: 2018.11.05.).

OECD. 2006. “Harmoniz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Volume 2: Budget Support, Sector Wide Approaches and Capacity Development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valiable at http://www.oecd.org/development/effectiveness/34583142.pdf (접속일: 2018.11.05.).

____. 2012. “Evaluating Budget Support: Methodological Approach.”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valiable at https://www.oecd.org/dac/evaluation/dcdndep/Methodological%20approach%20BS%20evaluations%20Sept%202012%20_with%20cover%20Thi.pdf (접속일: 2018.11.05.).

____. 2018. “Draft Revis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for DAC Statistics: Annexes – Modules A, B and C,” avaliable at 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DCD/DAC/STAT(2018)9/REV1/ADD1&docLanguage=En (접속일: 2018.11.05.).

Orth, Magdalena, Johannes Schmitt, Franziska Krisch, and Stefan Oltsch. 2017. “What We Know About the Effectiveness of Budget Support: Evaluation Synthesis.” Bonn: German Institute for Development Evaluation (DEval), avaliable at https://www.deval.org/files/content/Dateien/Evaluierung/Berichte/2017/DEval_Synthesen_Bericht_2017_EN_bf_V2_baf.pdf (접속일: 2018.10.25.).

Orth, Magdalena, and Johannes Schmitt. 2018a. “How Effective is Budget Support as an Aid Modality?” *DEval Policy Brief* 2/2018, avaliable at https://www.deval.org/files/content/Dateien/Evaluierung/Policy%20Briefs/DEval_Policy%20Brief_2.18_Budgethilfe_EN_web.pdf (접속일: 2018.10.25.).

Orth, Magdalena, Marius Birsan, and Gunnar Gotz. 2018b. “On the Future of Integrated Policy-based Development Cooperation.” Bonn: German Institute for Development Evaluation (DEval), avaliable at https://www.deval.org/files/content/Dateien/Evaluierung/Berichte/2018/DEval_EN_The%20Future%20of%20Integrated%20Policy-Based%20Development%20Cooperation.pdf (접속일: 2018.10.25.).

OECD 통계사이트: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8.11.06.).

III

KOICA 개발협력자료 이용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도서관
2. KOICA ODA도서관 2018년도 학술DB 목록
3. KOICA 2018년 10월 ~ 2018년 11월 발간물 목록
4. KOICA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이용
5. 『국제개발협력』 원고 기고 방법
6. 『국제개발협력』 원고 집필 규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도서관

한국국제협력단 ODA도서관은 국제개발협력 및 개발도상국 관련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보고서 등을 수집·정리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적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관련 자료에 중점을 두고 운영. 관리 하고 있습니다.

ODA도서관은 개가제로서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 가능 하시며 자료보유현황 및 열람시간, 자료 열람 방법 및 이용범위, 자료검색, 자료 이용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료보유 현황(2018년 11월 현재)

- KOICA 발간물 : 10,313권
- 원문DB : 6,143권
- 국내/국외 학술DB : 12종

  ※ 구독목록은 'KOICA ODA도서관 2018년도 학술DB(국내/국외) 구독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 23,239권 (KOICA 발간물제외)

2. 자료 열람시간

구분	시간	비고
평일(월~금)	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 휴관

3. 자료 열람 방법 및 이용범위

- 직원 : 열람, 대출, 복사 가능
- 외부이용자 : 열람, 복사 가능

  (단, 자료 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한국국제협력단 발간 원문 공개파일은 외부이용자 모두 열람 및 출력 가능)

4. 자료 검색

- KOICA ODA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oica.go.kr)

5. 자료 이용문의

- 전화 : 031-7400-759, 760
- 이메일 : library@koica.go.kr

KOICA ODA도서관 2018년도 학술DB 목록

'학술DB 통합검색'은 ODA도서관 → 자료검색 → '학술DB' 부분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번호	DB명		내용	비고
1	KISS 한국학술정보 논문검색서비스	한국학술정보(KISS)	국내 학회지, 학위논문 원문검색시스템으로 1,327개 학술기관의 학술지 및 논문 3,279여종을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원문과 서지정보를 제공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2	DBpia	누리미디어(DBpia)	국내 학회, 협회 및 출판사 367개 기관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1,946여종의 원문과 서지정보를 제공 – 등재지 666종, 등재후보지 93종, SCIE/SSCI 등재 간행물 33종 포함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3	KYOBO 교보문고 | SCHOLAR 스콜라	교보문고(스콜라)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국내 학술 DB로 418개 학회, 학술지 622여종 원문 구독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4	Wiley Online Library	Wiley SSH	Wiley 발행 저널 중 SSH(Social Sciences Humanities) 분야 DB 572여종 원문 구독. – Development and Change, African Development Review,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evelopment Policy Review,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등 구독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5	Taylor & Francis Online	T&F SSH	T&F 저널 중 SSH(Social Sciences Humanities) 분야 DB 1,447여종 원문 구독. –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ird World Quarterly,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등 구독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6	SAGE journals	SAGE HSS	SAGE 출판 전자저널 패키지 중 SSH(Social Sciences Humanities) 분야 DB 559여종 원문 구독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7	ScienceDirect	Elsevier ScienceDirect	ScienceDirect DB 중 9개 세부 주제분야 저널 원문 구독. – Business, Management and Accounting, Decision Sciences, Economics Econometrics and Finance, Psychology, Social sciences,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Energy, Environmental Science, Health Sciences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8	OECD iLibrary	OECD iLibrary	OECD Publishing에서 발행하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통계자료 원문 구독 OECD Books(17종), Papers(16종), Statistics(35종) 원문구독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9	UN iLibrary	UN iLibrary	UN에서 발간하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통계데이터 온라인 DB 전체구독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번호	DB명		내용	비고
10	eLibrary	World Bank e-Library	World Bank Group에서 출판하는 8,000여종 출판물에 대한 Online Collection 구독 및 2,500여종의 World Bank eBooks 구독, 4,200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구독. – Social Development, Rural Development, Poverty Reduction, Conflict & Development, Gender, Urdan Development, Energy, Environment 등 총 28개 주제분야 원문 구독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11	IMF eLIBRARY	IMF e-Library	IMF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통계자료 구독. – 9개 대주제(Business and Economy, Education, Law, Medical, Nature, Political Science, Science, Social Science, Technology and Engineering) 및 103개의 세부주제 온라인 DB 전체구독	단내에서 원문 이용 가능
12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Reports	EIU사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경제, 정치, 국가 기본정보 및 분석 리포팅 서비스로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국가에 한해서만 열람가능 로그인 후 이용	로그인 후 이용

KOICA 2018년 10월 ~ 2018년 11월 발간물 목록

번호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년	발행처
1	(2018) KOICA Scholarship Program Fellows guidebook 2018.10	ODA교육원	2018	한국국제협력단
2	KOICA 석사학위연수 가이드라인 2018.10	ODA교육원	2018	한국국제협력단
3	제15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 논문집: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ODA교육원	2018	한국국제협력단
4	(2017) KOICA annual statistical report	ODA 연구정보센터	2018	한국국제협력단
5	(2017)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ODA 연구정보센터	2018	한국국제협력단
6	[개발과 이슈 43호] 중국 일대일로와 일본 커넥티비티 이니셔티브를 통해 본 KOICA의 함의 2018.10	ODA 연구정보센터	2018	한국국제협력단
7	KOICA가 들려주는 SDGs 이야기: 우리가 만들어요, 더 나은 지구촌	국민소통실	2018	한국국제협력단
8	KOICA 성주류화 사업적용 가이드라인: 내부평가지표 반영 2018.10	사업 전략기획실	2018	한국국제협력단
9	네팔 UNDP 과일 및 채소 가치사슬 개발 사업 ('18–'22/ 500만불) 기획조사 결과보고서 2018.3	서남아 태평양실	2018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이용

대한민국 대개도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은 ODA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 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ODA원조정보공유시스템(www.oda.go.kr)”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NGO 및 민간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조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2010년 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원조사업 관련 정보 수집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70%)하였으며, 이는 △원조관련 정보의 분산(41%),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름(26%),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정보 비공개(22%)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통합원조정보공유시스템 구축완료 후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여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ODA원조정보의 공유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축된 동 시스템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NGO및 민간기업 등 ODA 유관기관 간 서로 원조정보를 등록, 조회, 평가, 검색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중복사업 추진 방지를 위해 기관별 연간 사업계획 공유, 정보 Q&A, 커뮤니티 개설 및 이슈토론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간 공유가 가능한 자료로는 원조정책, 사업계획, 사업수행 및 평가관련 정보, 선진원조 동향, 연구보고서, 국별, 지역별, 분야별 정보, 사업수행 가이드라인, 평가 및 통계 자료 등입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무상원조사업 수요조사를 동 시스템을 통해 상시 접수 할 예정으로, 우량사업에 대한 적기의 검토와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나아가 ODA원조정보공유시스템은 ODA 유관기관 간 원조정보 및 지식, 노하우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원조 분절화 방지 및 OECD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따른 원조 선진화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동 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각 기관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완료한 후, 기관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아래의 팩스 번호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 E-mail : oda@koica.go.kr FAX : 031-740-0778
- ODA원조정보 공유시스템 : www.oda.go.kr

『국제개발협력』 원고 기고 방법

한국국제협력단은 계간지 국제개발협력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이슈 중 아래에 정한 내용이어야 하나, 이 외에도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제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발전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국제협력 사업 종사자 및 국제협력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투고를 기대합니다.

Ⅰ.『국제개발협력』 발간 목적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OECD/DAC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이슈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

Ⅱ.『국제개발협력』 원고게재 절차

기고 → 접수 → 심사 → 게재

1.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하다. 단, 우편접수시에는 논문이 원본 파일이 저장된 CD 1대를 동봉한다.
  Email : callforpapers@koica.go.kr
  Tel : (+82)31-740-0759 Fax : (+82)31-740-077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KOICA아카데미 ODA연구원 (461-833)
- 원고접수는 각 호의 원고마감일에 따른다.

호	기고 주제	원고마감일
2019년 1호	국제개발협력 관련 자유주제	2019년 1월 31일
2019년 2호		2019년 4월 30일
2019년 3호		2019년 7월 31일
2019년 4호		2019년 10월 31일

『국제개발협력』 원고 집필 규정

Ⅰ. 원고 제출 및 게재

1.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논문의 성격 및 형태는 순수이론적인 논문, 실증분석논문, 사례연구, 응용연구 및 정책분석 등 방법론상의 제약을 두지 않는다.
2. 제출 원고는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한국국제협력단 외 다른 곳에 게재 또는 발간되었거나 향후 그러할 계획이 없는 창작 글이어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표절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한 인지 및 확인 후 대표저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친필본 사본을 원고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최종 게재 확정 후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 원고 제출 전 논문표절방지프로그램을 통한 원고의 사전 표절 검토를 권고한다.
3. 게재희망 원고 중 협력단 외부 연구지원을 받은 원고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명/지원기관명/연구기간/참여연구자명 등을 첫 번째 페이지의 원고 제목에 각주처리하여 밝힌다.
4. 협력단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의 경우 『국제개발협력』편집 규정에 맞추어 요약 투고 가능하며, 대상 원고의 최종 게재 여부는 『국제개발협력』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5. 협력단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투고한 원고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명/발간부서명/연구기간/발행일자/연구자명 등을 원고 첫 번째 페이지의 원고 제목에 각주처리하여 밝힌다.
6. 한국국제협력단 연구용역 또는 사업과 관련된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첫 번째 페이지의 원고 제목에 각주처리하여 밝힌다. 또한 연구자는 투고 이전에 그 내용을 연구용역 또는 사업 담당 소관부서와 사전에 공유하여야 하며, 협력지 발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부서에 해당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문표기
  이 논문은 0000년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프로젝트명”의 일부로 수행된 연구임 (No. 한국국제협력단 계약번호).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under the title of “프로젝트명” in 0000년 (No. 한국국제협력단 계약번호).

7. 제출된 원고가 편집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제개발협력』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원고를 반려할 수 있다.

8. 『국제개발협력』은 매년 분기별로 네 차례 발간한다. 매 호의 원고는 출판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접수된 것에 한하며, 매 호의 원고마감일은 직전 호의 국제개발협력지에 별도 안내된다.

9. 원고는 『국제개발협력』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원고집필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10. 원고 제출시 연구자는 영문 또는 국문초록이 포함된 논문게재신청서(별지서식 1호) 및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사본(별지 서식 2호), 그리고 원고를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전자메일 (callforpapers@koica.go.kr)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한다.

> 전자메일 : callforpapers@koica.go.kr
> 전화 : (+82)31-740-0556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13449)

11. 제출된 원고의 게재여부는 소정의 비공개 심사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게재 승인을 받은 논문의 저작권은 협력단에 귀속된다.

12. 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 편집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13. 원고 게재가 결정된 원고 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14.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II.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 분량

가. 원고는 표지, 목차, 표 또는 그림 일체를 제외한 기타 부분(참고문헌 산입)에 대해 200자 원고지 기준 100매로 제한한다.

나. 원고 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원고분량의 경우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매로 산정한다.

2. 원고 구성

가. 원고는 표지, 국문(영문)요약, 주제어(3~5개),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구성한다.

나. 표지에는 논문제목, 목차, 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이메일·전화·팩스), 간단한 필자 소개를 명기해야 한다. 필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횡렬로 기재한다.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 수령 사실은 각주로 기재한다.

다.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필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삼가야 한다.

라.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을 비롯한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 뒤의 괄호 속에 넣어서 쓴다. 또한 본문 내에서 반복 언급되는 용어를 축약어로 나타내고자 할 경우 첫 번에 한하여 '(..., 이하 축약어)'로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축약어로 표기한다.

[예1] 세계은행(World Bank)…. (생략) 세계은행이 발표한…

[예2]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생략) SDGs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마.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으로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바. 각주는 꼭 필요한 것만 달도록 하여, 가급적 10개 내외로 최소화시킨다.

사.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표와 그림의 번호는 "<표 1> …"과 "<그림 1> …"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서 삽입한다.

2) 설명주는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출처:"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3) 표 속의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4)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 시에는 흑백으로만 표현됨에 유의 한다.

아. 원고의 각 쪽에는 반드시 쪽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표지인 첫 페이지를 제외한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한다.

3. 원고의 형식

가.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편집체계는 다음과 같다. (글씨체: 휴먼명조, 본문 글자크기 13p, 각주 글자크기 11p, 표와 그림 제목 및 출처: 12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및 꼬리말 15)

나. 본문 서술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장·절·항·목의 번호는 "Ⅰ.", "1.", "1)", "(1)" 순차로 매긴다.

2) 강조어는 ' ', 인용구는 " "로 둘러싼다.

4. 저자명 표기

가. 공동집필인 경우에는 대표저자와 공동저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저자명을 표기하고, 각주에 대표저자와 공동저자 구분 및 저자정보를 별도 표시한다.

5. 표 및 그래프 작성

가. 제목은 "<표 1> …"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의 위에 적는다.

나. 설명주는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출처:"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어 놓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다. 표와 그림의 길이는 가로 113mm를 초과할 수 없다.

Ⅲ. 전거 표시 요령

1. 전거 표시 요령은 한국사회학회 전거 표시 요령을 준용한다.
2. 전거는 저자명과 간행연도를 반드시 표기하고, 필요시 인용 페이지를 덧붙여 기재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그 방식은 같다.

구체적인 전거표기의 예는 아래와 같다.

가. 저자명은 서술의 흐름에 따라 본문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괄호 속에 넣어야 할 경우도 있다.
[예1] "…이상백(2009: 23)…"; [예2] "…라 했다(이상백, 2009: 23)."

나. 외국인 저자명을 본문에 노출시킬 경우, 한글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한다. 또한 외국인 저자명을 본문에 노출시키지 않을 경우, 번역서와 원서에 관계없이 저자명은 원어로 표기한다.
[예] "…밀스(Mills, 2011)"

다.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저자명을 중간점으로 구분하고 병기한다.
[예] "…(이상백·김채윤, 2006)"

라.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전거표기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et, al.)를 사용한다..
[예] "…(문승규·윤근섭·한상복, 2014)"; "…(문승규 외, 2014)"

마.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forthcoming)을, 미간행물은 "미간행"(un-published)을 명기한다.
[예] "…(김일철, 2017 출간예정)"; "…(Lee, forthcoming)"

Ⅳ.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 작성 요령은 한국사회학회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2.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먼저 한국어 문헌을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동양어 문헌을, 마지막으로 서양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가. 국문저서나 간행문명은 『 』, 신문제호는 「 」, 논문제목은 " "로 둘러싼다.

나.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다.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 …를 부기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라.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1) 영문저자 2인 이상 표기시 '제1저자 성, 이름, 제2저자 이름 성 and 마지막 저자 이름 성' 순으로 표기한다.
[예] "Cannel, Charles F., Peter Miller, and Louis Oksenberg. 1981.…"

마. 학술회의 발표문은 발표 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바. 온라인 자료의 경우 링크주소와 접속일을 함께 표기한다.

사. 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출판기관은 '도시명: 출판기관명'으로 표기한다.

아. 국문 참고문헌의 저자명이 기관명으로 되어 있을 경우 국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예] 한국국제협력단. 『2015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자. 참고문헌 기재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서적

- 이정희·우승지. 2009. 『현대국제정치이론과 한국적 수용』. 파주: 법문사.
- 차종천. 1990a. "동아시아와 서구의 사회이동 비교." 송호근 편. 『노동과 불평등』. 파주: 나남출판. pp.125-149.
- _____. 1990b. "세대간 사회이동의 지역격차."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pp.93-122.
- Easterly, William. 2011. *The Elusive Quest for Growth*. Cambridge: MIT Press.
- Beger, Peter. L., and Xinhuang Michael Xiao (eds.). 1988.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Cannel, Charles F., Peter Miller, and Louis Oksenberg. 1981. "Research on Interviewing Techniques." pp.389-437 in *Sociological Methodology,* edited by Samuel Leinhardt. San Francisco: Jossy-Bass.

- 菅谷章 (스가랴 아키라). 1988.『日本社會政策史論』. 東京; 日本評論論社.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力移動." 森田桐郎 編,『國際勞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1-54.

(2) 학술지

- 홍은경. 2016. "개도국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국제개발협력지』2016-4호: 73-96.
- Mullin, Walter J, and Miguel Arce. 2008. "Resilience of Families Living in Poverty."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11(4): 424-40.

(3) 연구보고서

- 김수진. 2015.『신흥공여국 ODA정책과 현황: 슬로베니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김지현. 2015.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5-20.
- 한국국제협력단.『2015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World Bank. 2013. "Innovative Finance for Development Solutions: Initiatives of the World Bank Group." Washington, D.C.: World Bank.

(4) 인터넷 문서

- 통계청. 2014.『보건·사회·복지 통계자료』. http://www.kosis.kr (접속일: 2014.11.10.).
- Dunning, Casey, and Jared Kalow. 2016. "SDG Indicators: Serious Gaps abound in Data Availability" posted on CGD website on 17 May, 2016, available at http://www.cgdev.org/blog/sdg-indicators-serious-gaps-abound-data-availability (접속일: 2016.11.01.).
- IAEG-SDGs. 2016.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 Indicators," available at http://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3/Provisional-Proposed-Tiers-for-SDG-Indicators-24-03-16.pdf (접속일: 2016.04.28.).

(5) 학위 논문

- 이순아. 2013. "경제위기 전후 빈곤결정 양상의 변화-미시요인 및 거시요인의 영향 변화를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 Shin, Ho Hyun. 1990. "Sc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6) 학회 발표

- 한승주. 2010.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에 관련한 정책갈등.”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2010.04.23.,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법학대학원)
- IAEG-SDGs. 2016. “the 47th Session of the Statistical Commission: Outcome on global SDG indicators,” presented at the 3rd meeting of the IAEG-SDGs on 30 March-1 April, 2016, Mexico.

(7) 번역서 및 번역보고서

- 베버, 막스(Weber, Max). 1990.『유교와 도교』. 이상율 역. 문예출판사.
- 클레그·히긴스·스파이비(Clegg, Stewart R., Winton Higgins, and Tony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김혁래·박길성·유흥준 편.『신경제사회와의 이해』. 역사비평사. pp.195-210.
- Weber, Max. 1951(1920). The Reli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별지 서식 1호]

논문게재신청서

대표저자	성명	(국문)	(영문)	
	소속		직위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공저자	성명	(국문)	(영문)	
	소속		직위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논문제목				
작성언어	한국어		영어	

논문요약	

* 논문요약은 국문 기준 500자 내외, 영문기준 200단어(words)로 제한하며, 3~5개의 국문 및 영문 주제어(Key words)제시

[별지 서식 2호]

연구윤리자가진단서

연구자 : 소속　　성명 :

상기 본인은 ‘　　’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첫째, 연구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하였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상을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중

연구자료 : ODA연구 2018-17-180

국제개발협력 2018년 제4호

발 행 2018년 11월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김수진 (ODA연구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13449)
전 화 031) 740-0759
팩 스 031) 740-0772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아트프린팅 (02)805-8874

[무단복제를 금함]

ISSN 2093-212X

연구자료

ODA연구 2018-17-180

ISSN 2093-212X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031-740-0114 Fax.031-740-0655
http://www.koica.go.kr